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5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420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잇따른 성보기증

<성문종합영어>의 저자 송성문씨가 30년간 모은 국보-보물급 유물 46건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불교계에도 문화재 기증이 잇달아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학자인 조병호씨와 홍경식 교수(서울산업대). 두 사람은 최근 자신이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고려시대 금 · 은니 사경 <범망경 보살계> 한 점과 임진왜란 전에 찍었던 <법화경> 판본 3권1질을 원래 소장처인 전북 완주 안심사에 기증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당장 지방문화재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조씨는 단군의 묘를 자비로 지어 대전시에 기증했을 정도로 지역에선 꽤 알려진 한학자. 2년 전 서첩 형태(세로 30㎝, 전체 폭 1m)로 된 고려사경을 구입했던 조씨는 최근 아무 조건 없이 안심사에 이를 기증했다. 사경에 '안심사에서 전해왔다(安心寺 遺傳)'는 기록이 적혀있는 만큼 "안심사에 있던 유물은 안심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홍 교수는 애초부터 안심사에 기증할 목적으로 유물을 구입한 경우다. 평소 안심사 주지 진관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홍 교수는 서울 인사동 고서점가에 안심사에서 찍은 조선시대 <법화경> 판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500만원에 이를 구입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전소된 안심사 복원불사를 벌이고 있는 주지 스님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진관 스님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안심사는 사내 암자 19개를 거느린 대가람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불타 지금은 사적비와 부도 등 석조물만 몇 점 남아있다"며 "원래 자리를 잃고 떠도는 성보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몰라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종 총무원장의 표창을 받는다.

권형진(취재1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 도 권 : (02)737-0090 부 산 : (051)632-0064
대 구 : (053)768-8008 광 주 전 남 : (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033)521-6293
영 주 : (054)634-3429 경 남 동 부 : (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5월 4일 서울을 비롯 전국 도시에서 연등축제가 열려 불자와 온국민이 자비와 평화의 실천을 다짐했다. 사진은 종로에서 펼쳐진 제등행렬. 사진= 박재완 기자

"자비의 꽃등 물결 평화로 출렁"

4일 전국서 연등축제 … 외국인 증가 '세계의 잔치'

서울 20만명 참여, 장엄물 앞세워 제등행진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가 연인원 20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일 동대문운동장과 조계사 앞 우정국로, 종로 거리에서 펼쳐졌다. 특히, 태국이 국가 차원에서 참가하는 등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는 외국인 참가자가 예년보다 많은 2만 여명에 달해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봉행된 동대문운동장 연등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11개 종단 총무원장과 100여 사찰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4만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불교도공동발원문도 봉독됐다.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대형 장엄물, 수만 개의 연등, 오색 깃발을 앞세우고 조계사 앞까지 제등행진을 벌이며 서울의 밤을 '평화와 자비'로 수놓았다.

연등법회에 앞서 낮 12시부터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거리 문화축제에서는 불교단체들의 사물 사경, 연꽃 전시, 외국인 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0여 도시에서도 연등축제가 열려 불자와 시민들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발원했다.

연등축제 화보 12 · 1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노대통령 축하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조윤제 청와대불자회 회장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음은 진리의 원천"

법전 조계종 종정 법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4월 28일 "마음은 모든 진리의 원천이며, 마음에서 만유(萬有)가 비롯되어 우주법계를 이루었으니, 해탈로 나아가는 길도 마음에서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법어전문 14면

한명우 기자

현고 · 범하 스님 문화재위원 위촉

문화재청은 4월 25일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을 신설된 문화재제도분과에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이었던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은 연임시켰다고 발표했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멸빈자사면 종회가 '제동'

제적 이하 49명 8일 사면 … 법전 종정 인준

멸빈자를 포함하는 조계종 대사면이 불발로 끝났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 158회 임시종회를 열어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적 이하 징계자 사면은 총무원이 상정한 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종정 법전스님은 2일 제적 이하 징계자들의 사면을 인준했으며, 부처님 오신 날인 8일을 기해 사면이 단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및 사면자 명단 2면

종헌개정안을 놓고 무기명비밀투표에 들어간 종회는 총 투표수 72표 중 찬성 41표, 반대 30표, 무효 1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종헌 개정을 위해서는 종회 재적인원 81명 중 3분의2(54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에 앞서 종회는 제적 이하 징계자 49명의 사면복권 및 경감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종회는 또 승려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명우 기자

전통불교 꽃꽂이 회원 모집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중 꽃 공양이 으뜸-
(동국대 전통불교 꽃꽂이 전수자, 박필상 합장)
011-541-7769

봉축특집 40면 발행

주제: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세계평화와 국가의 안녕, 개인의 행복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추구되어야 할 희망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부단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쟁과 질병, 폭력과 갈등의 악순환은 그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사바세계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이 바로 불성이어서 이 세상이 곧 불국정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는 명제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온 인류의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평화의 가르침 3-4면 인류 평화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법륜 스님과 박이문 교수의 대담으로 듣고, 화쟁의 정신으로 지구촌 평화 만들기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섭수의 가르침 5-6면 삶의 현장에서 섭수의 가르침을 온 몸 바쳐 실천하는 참여불교의 현장을 점검하고 '둘 아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계 복지, 자원봉사 현장을 살폈습니다.

참회의 가르침 7-8면 참회의 삶을 통해 참 불자로 거듭나는 길을 제시하고 인류 행복의 최소단위인 가정의 화목이 효도에서 비롯되는 도리를 함께 인식합니다.

한국불교의 화두 9-10면 과연 한국불교는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과연 불교다운가?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포교 40년을 맞아 세계화의 화두를 어떻게 얼마나 풀었는지 점검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불교계의 환경운동을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합니다.

연등축제 화보와 뒷얘기 12-13면
각 종단 지도자 봉축법어 14면
부처님오신날 무슨 책 선물할까? 27면

다음주(421호)도 봉축특집

현대불교의 봉축특집은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재가불자 1402명의 신행의식조사
부처님오신날 소망이 실현된다면
비구니 파워 그 힘을 활용하자
본각 스님의 6남매 출가이야기

재가불자들의 신행지수를 조사했습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부처님 오신날의 소망은?
불교의 한축을 차지하는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은?
6남매 스님들의 감춰진 출가와 수행이야기.

'아! 큰스님' 展 성료 성원 감사드립니다

본사와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 주관한 한국의 큰스님 20분의 진영 자수전시회 '아! 큰스님' 展이 각종단과 문중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성료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문화관광부 · 봉축위원회 · 핸드코리아 관계자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주문 제작: 전시작품은 만수대창작사와 추가 제작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품은 물론 개인 초상 작품도 주문 받습니다. 문의전화: (02)732-1520

이번주 신문(420호)은 연등축제 기사 게재를 위해 5월 6일 발송하며 다음주 신문은 10일 발송합니다.

www.dhsystem.co.kr
ISO 9001 KAB
• 실 용 신 안 특 허 0224039호
• 속깊은 장 실용신안 0258524호
봉축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
2003년 5월 8일 (음력. 4월 8일)

Anegre 에너그리 CD-074C
맞춤 붙박이장 전문 메이커
불자님들께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대중방이 정리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저희 대한시스템 붙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空間藝術
대한시스템 붙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사찰 납품 대표 모델 •법흥사 •삼운사 등
(주)대한시스템 붙박이장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3-7 (남동공단 167블럭 8롯트)
TEL:(032)822-0022-30 FAX:(032)822-0033
소비자보호센타:(032)822-0030

사 설

새 시대를 위해 꽃등을 밝히자

현대 한국 문화를 움직이는 주체세력은 이른바 N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컴퓨터나 이메일, 혹은 핸드폰 등을 통해 손쉽게 의사를 소통한다. 필요에 따라 쉽게 뭉치고 쉽게 헤어진다. 과거의 윤리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몰입하며, 남을 간섭하지도 않고 남의 간섭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이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은 이들의 움직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 계층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찬탄의 노래를 하지 않고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제인들은 이들의 취향을 알아야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저들을 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젊은 세대들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한국 사회의 주축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사회고 보면 젊은 세대의 층은 더욱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교계 역시 저들과 소통할 통로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꽃등이 거리를 장식한지 오래다. 시내든 농촌의 들녘이든 아니면 산간의 사찰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훈향을 드리운 곳은 어디나 꽃등이 있다. 낮이면 가로수에 걸려 하늘거리는 모습이 한 떨기 꽃과 같거니와 밤이면 형형색색으로 빛나며 거리를 밝히고 있는 모습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 보기도 한다. 꽃이나 빛으로 환생하여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이 저리도록 감동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꽃과 빛이 아름답고 향기가 짙을수록 그 꽃과 빛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재생하길 바라는 것 역시 불교도들의 소망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찬란한 신문명의 꽃과 빛으로 화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서원이 있기에 N세대에 대한 관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무상의 법칙 속에 전개되고 있기에 특별히 어느 계층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도 애착이려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무집착이 최고의 미덕은 아니다. 인류의 문명이 눈부신 진보를 거듭했다고 말하지만 문명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인간들의 원시적인 야수성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고주의에 물들어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들의 이기심이 평화, 자유, 환경 등 인류문명의 소중한 가치들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기에 정신적으로 진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들의 무명으로 엮어진 것이 인류사 내지 인류 문명사라는 점에서 이 시점을 반성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문명을 위해 이 시점을 중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N세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이다. 적어도 이들만은 무명에 의해 문명을 창출해 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들과 왕래할 교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불제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화두이며, 여래께 올릴 수 있는 최상의 찬탄이요 헌화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종정·원로회의 '의지' 종회서 외면

조계종 멸빈자 사면 불발이 남긴것

'멸빈자 사면은 NO, 제적 이하 징계자 사면은 YES'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의 이번 선택은 중앙종회의 역할과 법장 스님의 향후 종단 운영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종회는 멸빈자 사면에 대한 '사전 합의'를 깨뜨림으로써 그 위상과 신뢰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평가=멸빈자 사면이 종회에서 논의되고 종헌개정안이 투표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는 종회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필요성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고, 여기까지 상황을 전개시킨 총무원 새 집행부의 노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회 역시 해묵은 계파 간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종헌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계파 간 사전 합의가 깨짐으로써 그동안 종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온 종도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다.

"계파간 이해 여전" 비난 면하기 어려워

멸빈이하 사면·종헌개정안 표결 '성과'

◑무엇을 남겼나= '합의 정신' 실종은 종회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종헌 개정안이 상정된 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기왕 사면할 바에는 멸빈자의 부담을 더 덜어주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종회 관계자들도 사전 합의가 된 만큼 개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며 자신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반대가 찬성보다 10표나 많았다. 종헌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각 계파 수장들 간의 '합의'가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돼버린 것이다.

일부 종회의원은 "두 계파가 쇼를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흥분하기도 했다. 결국 종회는 '대의'와 '합의'가 통하지 않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했다.

종헌 개정안 부결은 종정스님과 원로의원 스님들의 권위에도 적지 않은 손상을 입혔다. 종정 법전스님과 원로회의에서 몇 차례씩이나 사면을 촉구했지만 결국 종회는 이를 거부했다. 제적 이하 징계자 사면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번 사면논의의 핵심이 멸빈자였다는 점에서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종회가 안게 된 가장 큰 부담은 '화합종단'의 대의를 거슬렀다는 점이다. 멸빈자 사면에 대한 반대 정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정서를 하나로 묶어내야 할 종회가 이를 외면했다는 것은 책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향후 전망=총무원 집행부는 다음 종회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회는 이번 종헌 개정안 부결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종정스님이나 원로회의가 또 다시 사면을 촉구하고 나설 경우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더 적극성을 띨 경우,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종회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수도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징계자 사면·경감 내용

▲사면복권=관행, 현대, 동하, 광석, 보연, 선광, 현호, 법일, 영하, 자고, 종언, 문수, 법철, 법기, 무관, 원범, 지근, 동출, 현진, 정현, 법민, 도견, 탄공, 부동, 도오, 무영, 명철, 만성, 덕인, 도준, 현일, 정립(이상 32명)

▲공권정지 2년=화영, 원광(이상 2명)

▲공권정지 3년=덕륜, 각운, 법열, 대우, 동성, 영한, 성초(이상 7명)

▲공권정지 5년=해관, 정빈, 혜진, 성해(이상 4명)

▲공권정지 7년=상도(이상 1명)

▲공권정지 10년=현수, 덕수, 설조(이상 3명)

임시종회 주요 발언내용

△(승려법 개정안에 대해)말없는 다수의 종회의원을 무시하고 의사표현의 길을 차단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자는 분들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효림)

△종헌개정을 통해 멸빈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징계 당사자도 참회 입장을 천명했다. 별도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하게 걸러내면 된다.(현응)

△멸빈자들이 사찰에 살고 있고 도제도 두고 있다. 그런데 10년간 종무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모양새만 사면이고 내용상으로는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종광)

△종단 화합을 하자고 멸빈자 사면을 논의하는 것이다. 경과기간을 완화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영담)

△기왕 할 바에는 10년 보다는 3년에 준해 제한 규정을 두자.(탄우)

△종회 각 모임(계파)을 충분히 설득했고, 사전에 (통과시키기로) 약속도 했었다. 그런데 부결됐다. 신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망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약속과 합의는 다 어디로 갔나.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나. 비감하다. 언제까지 (종회가)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 종도들에게 무슨 체면이 서겠나. 스스로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종헌개정 부결후, 종광)

불교음해 즉각 중단·사과하라

조계종, SK시주금 사건관련 검찰비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승가사 시주 외압혐의 사건과 관련, 조계종은 4월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권선을 뇌물수수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조계종은 총무원과 교구본사주지 일동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찰의 불사에 차질을 빚게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의 명예훼손과 피해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며 "검찰은 불교에 대한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2000만 불자들은 규탄과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불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검사를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사장에게 권선한 바는 있으나, 공직을 이용한 강압이나 승가사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로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바티칸·천주교·기독교 석탄일 봉축 메시지 발표

바티칸 교황청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바티칸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마이클 피츠제럴드 대주교는 "부처님 오신 날에 그리고 모든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도 "함께 인류평화에 기여하자"는 내용의 봉축메시지를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본사사령

강신재 김은경 오유진 이동혁 한상희
命 취재부 수습기자
2003년 4월 28일

봉 축
부처님 오신날

한나라당은 7천만 겨레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박 희 태
한나라당 불자회 회 장 하 순 봉

한나라당 불자회 국회의원
강신성일 김기배 김병호 김영일 김용갑 김용균 김윤식 김용환 김진재 김찬우 김학송 도종이
박 상 규 박헌기 서병수 손희정 양정규 엄호성 윤두환 이상배 이원형 이인기 이해봉 임진출
전 용 원 정갑윤 정문화 최돈웅 최병국

한 나 라 당 불 자 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 www.hannara.or.kr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인류평화 열쇠는 어디에

본래 부처인 중생.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지옥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사스공포와 대구지하철참사.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탐욕이다. 탐욕의 그늘을 헤쳐나갈 길은 없는가? 부처님은 이 탐욕의 세상에 어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박이문 연세대 초빙교수의 대담을 통해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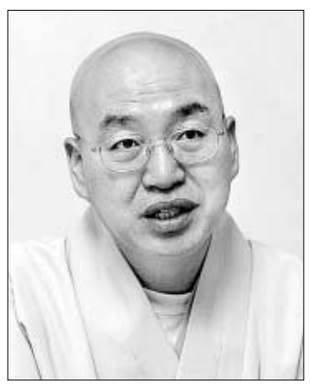
전쟁·핵개발 탐욕의 共業 무명 걷어낼 때 밝은 세상



법륜 스님 대담 박이문 교수

약력

1983년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상임 지도법사, 85년 중앙불교교육원 원장, 88년 정토회 설립. 91년 불심도문스님으로 부터 보살계 및 비구계 수지, 2002년 막사이사이상 평화상을 수상. 현재 정토회 지도법사. 대표적 저서로는 실천적 불교사상,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불교와 환경, 불교와 평화 등.





약력

1964년 프랑스 소르본대학 불문학 박사, 1970년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철학박사. 미국 시몬스대 교수를 거쳐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직. 현재 미국시몬스대 명예교수, 연세대 초빙교수. 대표적인 저서는 '자연 인간 언어' '이성 합리성 가치' '예술철' '나의 출가' 등.

어떠한 경우든 폭력사용은 안돼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이 최선

세계화 될수록 평등가치관 중요 상대방 문명 존중 인류공존 가능

법륜= 부처님 평화사상의 핵심을 '마음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들떠있고 갈등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 때문입니다. 계정혜 삼학을 닦으라고 하는 것도, 말과 행위로서 타인을 헤치지 말고 타인을 이롭게 하라는 오계의 가르침도 평화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박이문=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교리 자체가 평화적입니다. 불교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여 마음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부처님이 욕심을 버리라고 말한 것의 철학적 바탕은 평화입니다. 자비의 가르침은 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야 말로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륜= 폭력의 경우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불교는 정당방위도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더 큰 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용인됩니다. 계율보다는 원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박이문= 불교가 비폭력을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호국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국불교는 나약한 사람의 방어적 측면에 근거가 있지만 크게 보면 비불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종교를 떠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호국불교는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구실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호국불교의 경우 진리에 의거하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법륜= 호국불교는 민족애와 불교가 결합된 것입니다. 대승적인 근거로는 더 큰 화를 막고, 민중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국불교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한 채 방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불교적으로 승화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이문= 어떤 점에서 불교와 평화가 관계가 있는지요? 어느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다른 문화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그 갈등의 폭이나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갈등이 상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륜=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이용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을 지켜야지 현실이나 이익에 따라 힘을 이용한다면 더 큰 모순에 빠집니다. 1600년의 한국불교 역사를 내세워 지나치게 기복 및 권력과 결탁한다든지 배타성을 가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이문= 세계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특정한 집단이나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독점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이들은 각 나라가 지닌 문화의 특수성도 부정하려 합니다.

법륜=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후세인이 이라크에서 인권을 탄압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라크에서 반후세인 운동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원할 수는 있어도 이를 구실삼아 침공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북한 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박이문= 북한의 인권 및 난민 보호에도 나서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권과 주권의 문제가 중요한 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 주권 문제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륜= 독재자이며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후세인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은 40년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라크만 침공한 것은 잘못입니다.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대응하면 평화의 미명하에 또다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박이문= 절대적으로 평화를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가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보편성을 찾아내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정의, 공정성 등은 세계가 공유해야 할 가치입니다. 또 국가간, 문명간의 대화와 함께 상호 존중이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법륜= 우리 민족의 현안으로 남북문제가 제일 큽니다. 새로운 한국전쟁은 전면전으로의 확대가 불가피 합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폭격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기지를 보복공격 할 것이고, 한미동맹조약에 의해 한국군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이문= 세계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권력을 누리려는 일종의 심리상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같은 허망함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랄까요? 가치관에 대한 계몽이 필요한 것이지요.

법륜= 세계 인류가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무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연기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불교가 나서야 합니다.

박이문= 자기만의 좁은 세계를 벗고 넓은 가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갈등이 없으려면 서로 공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는 대처방식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륜= 이 세상은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하여 항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줄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은 과욕과 성내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은 무명입니다. 결국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쓰면 잘 사는 것을 문명 발전의 척도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질 풍요를 숭상하는 일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리=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비상종단 출범 및 유지재단 허가취소 촉구 결의문

1. 일붕 큰스님이 창종한 대한불교 일붕선교종과 유지재단 설립목적

일붕 큰스님은 1932년 불문에 귀의하신 후, 불국사주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 원로의원 등, 56년간 조계종에 봉직하시고 1974년부터 직계 은상좌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일붕선원"이라는 사찰을 창건하여 그곳에 주석 하셨던 바, 평생을 수행과 포교로 일관하셨던 국제적인 고승이십니다.

일붕 큰스님은 국내외적으로 선교양종의 종지종풍을 선양하고자, 조계종을 떠나 1988년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이라는 "불교종단"을 창종하고 초대종정에 취임하시면서 종단의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총무원 청사를 위 "일붕선원" 2층에 두었던 바, 현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국내 860여개, 해외 3개의 사찰과 국내외 1천6백여 명의 재가법사와 승려 그리고 50여만 명의 신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붕 큰스님은 자신이 입적한 이후에도 종단을 영구히 보전하고자, 1991년 "일붕선원" 을 정점으로 종단 소속사찰 중 주요사찰로 분류되는 서울 천간사 · 인천 호불사 · 제주 법성사 · 의령 일붕사 등 5개 사찰의 자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이라는 "유지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2. 일붕 큰스님의 입적한 이후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현실

본래 종단이란 창종주의 종지종풍으로부터 출발하여 법통과 정통성을 생명으로 이어가는 바, 이러한 종단의 근본이나 유지재단의 설립목적도 알지못하는 일부 무도한 유지재단의 이사들이 1996년 일붕 큰스님께서 입적하시자, 종권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종단내분을 조장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하였던 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신 초대종정 일붕큰스님의 법통과 정통성을 이어 2대 종정으로 취임한 붕해스님께서 엄연히 종단 대표자로 재직하여 오던 중, 일부 무도한 유지재단의 이사들은 종단이 자신들의 뜻대로움직이지 않자, 종단의 권위와 유지재단의 기능을 간과한 채,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붕선원에 소재하는 종단 총무원과는 별도로 서울 성북구 수유리에 소위 종단 총무원을 개설하고, 2000년 12월 11일 서울 세검정 모 중국집에서 이미 종단을 탈종했던 자를 앞세워 소위 종정을 추대하여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우리 종단의 진정한 대표자가 이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등록을 필하도록 하므로 종도들과 종단의 행정을 혼란 시켰습니다.

나) 또 유지재단은 종단의 종권을 찬탈하기 위해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 붕해스님을 비롯하여 총무원장 봉암스님 · 종회의장 현각스님 등을 상대로 사법부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확정되므로, 결국 사법부가 유지재단에게 종단의 법통과 정통성이 일붕선원 총무원에 있는 종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0카합 179, 서울고등법원 2000라 220)

사실이 이렇진대 유지재단은 마땅히 서울 성북구 수유리에 개설했던 종단 총무원 사무실을 근거지로 펼쳐온 종무행정을 즉각 철수하고,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했던 회원종단 대표자 명의도 바로잡아 그동안 종단의 법통을 무시하고 종도들을 혼란시킨 과오에 대해 깊이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유지재단 이사회는 다시 종단 소속사찰 주지임면에 대해 총무원장만이 할 수 있는 정관 및 종헌, 종법을 무시한 채, 일붕선원 주지를 함부로 임 · 면하고, 불법한 사용료를 강요하는 등, 집달관을 통해 종단 총무원을 거리로 내몰고, 일붕 큰스님 생전처소를 긴 쇠사슬로 잠금장치를 하였습니다.

라) 또 유지재단 이사장 김모 승려는 일붕 큰스님의 직계 은제자들과 대화도중 유모 승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상당의 상해를 가하여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소되어 수사중에 있는가 하면, 다시 일붕선원에서 30여 년간 일붕 큰스님을 모시고 살아온 일붕선원 주지스님을 상대로 법당과 공양간을 비우라고 상상도 못할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종단은 그동안 종명 사용에 따른 혼돈과 유지재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평소 일붕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온 많은 분들과 불자님들께 큰 실망을 안겨주기에 이르렀습니다.

3.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이 비상종단으로 출범하게 된 배경

본 종단은 불교종단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으로 출발하여 동 종단을 영구히 보전하고자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바, 작금의 유지재단은 상기의 내용과 같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난 3. 29 종정스님께서는 특별 "교시" 를 발표한데 이어 원로스님들의 뜻을 모아 "종정교시 봉행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정스님께서는 지난 4. 9 일붕선원에서 비상종단 출범에 따른 종령을 선포하는 동시에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비상종단 출범식"을 가진 바있고, 이에 우리 종단은 향후 한시적인 비상종단체제로 총무원 · 사정원 · 법제원을 운영하면서 종헌, 종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교의 본래 목적인 승가화합과 대중교화에 배전의 노력을 실천하여 여타 종단의 모범이 되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에 유지재단의 횡포에 따른 종단내분을 종식시키며 종단운영을 정상화 하는 동시에 갖은 문제점을 드러낸 유지재단의 법인허가 취소를 서울시에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4.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

본 법인의 임원자격은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의 유지재단인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무자격한 자들을 무원칙적으로 이사에 선임하여 편의에 따라 수시로 정관을 변경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을 감독관청에 제출하는 등, 더 이상 본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는 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법인의 첫 번째 목적은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소속사찰을 불교재산으로 영구히 유지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법성사 및 금강유치원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매각 또는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나) 본 법인의 두 번째 목적은 "사찰간 상부상조와 공조체제를 강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종단분규를 조장하고, 종단의 최고지도자인 종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종단 행정업무를 혼란시켰습니다.

다) 본 법인의 세 번째 목적은 "이상적인 불교공동체를 실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등을 위반하면서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주도하다가 사직당국에 적발되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지재단에 출연된 사찰들의 각종 수입금은 엄연한 유지재단의 공금인 바, 이에 대한 감사기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입금이 어디로 전용되는지 전혀 알수 없고, 일부 유지재단에 출연된 사찰들은 이미 사찰이 아닌 창건주 속세가족들의 생활터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바 지금의 유지재단은 이미 그 설립목적을 상실했고, 더 이상의 존립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단차원의 전체회의를 통해 유지재단의 법인허가 취소를 주무관청에 촉구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서울시는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에 대해 비정상적 실태를 즉각 조사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설립자인 일붕 큰스님의 유지에 따른 법인의 모든 재산을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으로 귀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7(2003)년 4월 29일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봉암
총무원장 법보 철광
사정원장 보현 각
법제원장 동일 종도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평화 만들기 그 뜨거운 현장

저 멀리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최근 이라크 전쟁까지 종교는 '성전(聖戰)'이라는 미명아래 인류에게 반목과 대립, 고통과 살육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 '자비'와 '사랑'을 가르쳐왔지만 지구촌에 평화 대신 분노와 탐욕의 기운이 만연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종교, 특히 불교는 인류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연기·화쟁의 가르침으로 '분노와 공포'를 껴안자

서구 전통 개념에서 평화란 프랑스의 정치 · 사회학자 레이몽 아롱(1924~)이 지적했듯 '정치적 단위간의 대립적 폭력형태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정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외적인 평화'를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평화'에서 출발하며, 탐욕과 분노로 표현되는 야심 · 이익 · 경쟁심 · 불안 · 공포 등과 같이 폭력을 낳는 인간의 내연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개념을 넓혀 놨다.

〈범망경〉에서는 "이익을 얻으려는 모진 마음(利養惡心) 때문에 나라의 사명을 받들고, 군진(軍陣)에서 회합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서로 치고 무량한 중생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친다. 즉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틱낫한 스님이 지적했듯 전쟁의 또 다른 원인은 '분노'와 '공포'다. 스님에 따르면 분노 이면에 공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분노와 공포가 한 뿌리가 되어 무자비한 학살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에서 유정길 정토회 공양주가 어린이들에게 방한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정토회)

불교평화운동 현황과 과제

'모든것 상호연관' 알면 갈등 사라져

분쟁 주체끼리 화합·조화통해 균형

◈불교계의 평화활동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불교계에는 반전평화 의지가 뜨겁다. 이것은 이라크 전쟁이 북한 핵 때문에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과 천태종 등 주요 종단들은 현재 이라크 난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은 4월 16일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이라크 난민 돕기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했다. 천태종도 4월 19일부터 성금 모금운동에 돌입, 5월 법회를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특별기도회'로 전환해 봉행한다.

이에 앞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 불교대책위원회는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전쟁반대 파병반대 걷기 시위'를 벌였다. 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을 비롯한 13개 불교단체는 4월 29일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범불교대책위는 현재 요르단 수도 암만에 이인기 씨를 선발대로 파견해 현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토회도 난민 구호를 위해 박지나 한국JTS 해외사업본부장을 비롯한 4명을 3일 이라크로 파견했다.

불교계의 이 같은 평화의지는 오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용인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열리는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에서 전문화 · 체계화 될 예정이다.

참여불교세계연대(INEB) 창시자인 스리랑카 아리야라트네 박사 등 국내외 스님 및 재가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는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참여불교 협력과 연대'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8개의 분과토의, 전체 심층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23일에는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불자들의 구체적 평화실천방안 등이 담긴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최근 불교 이념에 기반한 지역 단체인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창립과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의 '불교와 평화' 책 발간도 주목할 만하다.

◈평화실천 이론과 과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평화적 사고의 기본은 연기(緣起)다. 즉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절감할 때,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자연과의 반목과 투쟁을 줄일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투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보기 이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연기적 평화사상이 도출될 수 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에서도 평화 실천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비를 가려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아힘사(不害)' 정신에서도 불교적 평화사상을 읽을 수 있다. 아힘사란 단순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아힘사 정신은 자타의 입장을 이성에 의해 조화시킬 때 가능하다.

'연기'와 '화쟁사상' '아힘사' 정신이 이론적 목표라면 불자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참여불교 생활수행 캠페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정희 재가연대 국제협력팀장은 " '나와 세상을 바꾸는 300초'라는 캠페인에서 틱낫한 스님이 제안하는 12개 지침들을 하나씩 천천히 암송하면 평화로운 마음과 자비심이 충만해 세상의 많은 고통을 껴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남동우 기자

평화정착활동 펴는 불교단체들

불교평화교우회가 대표적…세계 4천여회원

국내선 정토회등 평화위해 직·간접 활동 펴

평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국외 불교단체들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불교평화교우회(www.bpf.org)다.

1979년에 설립된 불교평화교우회는 전 세계 4천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베트남, 티베트 등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지역에서 불교의 평화사상을 일깨우고 있다.

1996년부터는 미국 카이저 재단으로부터 5천달러를 지원받아 '아동 의료단'을 설치, 태국과 라오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아동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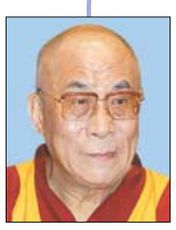
참여불교세계연대(INEB, www.igc.org/bpf/ineb.html)도 세미나와 지뢰퇴치운동, 대안교육운동 등을 통해 평화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아시아 30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불교평화회의(ABCP)에서도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티베트 여성회 친구(www.fotwa.org), 불교 빈민구제사업단(www2.gol.com/users/brelief), 사르보다야 공동체(www.sarvodaya.org), 입정교성회 등이 있다.

국내 단체로는 정토회가 단연 주목 받는다. 정토회 산하 국제기아 · 질병 · 문맹퇴치 기구인 JTS와 국제평화 · 인권 · 난민지원센터인 좋은벗들의 경우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북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진각종 JGO는 주로 대북지원 활동에 중점을 둔다. 이 외에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등이 평화 운동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화운동 이끄는 불자들













국외 달라이라마·틱낫한·고사난다 스님등

국내 법타·도안·법륜스님 등 폭넓은 참여

평화 운동을 이끄는 불자들로서는 달라이 라마 · 틱낫한 · 고사난다 스님, 아리야라트네, 아웅산 수지, 슐락 시바락사 등이 대표적이다.(사진왼쪽 위부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조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도 철저히 비폭력으로 대응했다. 달라이 라마는 1989년 세계 평화와 비폭력주의에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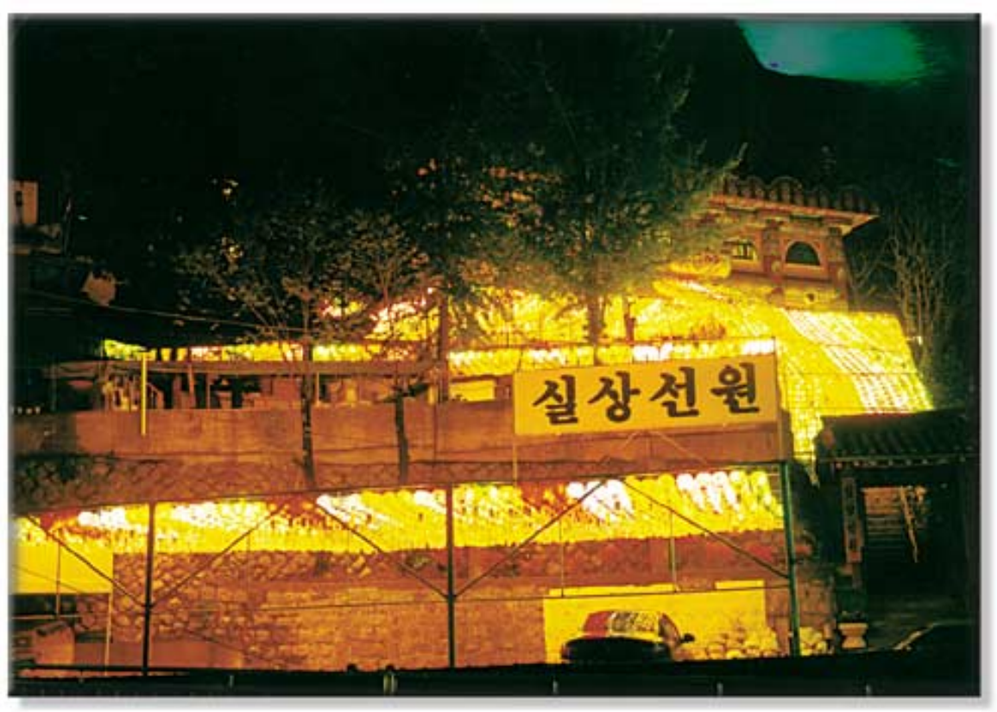
틱낫한 스님도 프랑스에서 명상공동체 '플럼빌리지'를 이끌며 평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불교 이념을 대중화한 스님은 고국 베트남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다 추방당하기도 했으며, 저술과 강연 등을 통해 평화 사상을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 불교 최고 지도자인 고사난다 스님은 국민을 전쟁의 고통에서 구해내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아버지'로 불린다. 1991년부터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평화 대행진'을 이끈 스님은 92년 세계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에서 사르보다야 공동체의 슈라마다나(노동의 선물) 운동을 이끌고 있는 아리야라트네는 평화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불교정치지도자 아웅산 수지와 태국 참여불교지도자 술락 시바락사도 평화 운동을 위해 헌신해왔다.

국내 불자들로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스님, LA 관음사 주지 도안스님, 박광서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상임대표가 있다.

어두운 곳에 연등의 불을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 축 사

선 원 장 성 환

주 지 종 일, 능 산, 지 호 총 무 곽동훈

신도회장 김동호, 서정석, 박공례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02) 745-8503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 734-2680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섭수의 서원, 끝없는 정진

불자들의 본분사인 개인적인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그 공덕을 사회적 실천을 통해 보다 많은 이웃에게 회향하는 '깨달음의 사회화'. 이는 불교적 가치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상 및 실천 체계인 '참여불교'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불교는 불교적 시민사회운동 즉, 불교NGO 활동과 복지사업, 자원봉사행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비희사 한마음으로 불국토 이루리라"

참여운동은 불자의 사명

참여불교를 가능케 하는 불교 고유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경전에서는 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고 불법으로 인도하는 보살의 자세에 대해서 사섭법(四攝法)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살은 이 사섭법을 실천함으로써 중생교화와 수행을 병행하며 불국토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네 가지 큰마음이 보살이 남을 대할 때 가져야할 정신자세라면, 사섭법은 네 가지 행동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섭법은 현실속에서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을까.

첫째 보시섭(布施攝)이란 저마다 중생이 바라는 바를 베풀어서 불법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주변을 눈여겨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음에도 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들이 많다. 사찰의 법회 진행을 돕는 것도 보시요.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보시이며,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등 자신의 전문직을 살려 봉사하는 것도 보시다. 그 베품에는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 등이 있다. 무외시란 항상 온화

시민운동·복지활동·자원봉사
행복쌓는 생활속 수행으로 승화

한 미소와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함이다.

둘째 애어섭(愛語攝)이란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사용을 말한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더없이 큰 용기가 된다. 불자들은 언제나 상냥하고 인정이 넘치는 말로서 사람을 대하고 신뢰를 쌓아 자연스럽게 불법의 바다로 그를 인도해야 한다.

셋째 이행섭(利行攝)이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삼업(三業)이 모두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행동과 말과 뜻이 모두 진심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할 때 참된 복지불사는 저절로 이뤄진다.

넷째 동사섭(同事攝)이란 중생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의 '동사(同事)'는 '참여불교'의 의미와 대동소이하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나 전쟁 난민들을 위한 '한끼 굶기운동'도 동사섭의 한 예다. 동사섭을 행함으로써 상대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동체대비도 실현된다.

이 네 가지 행동방법은 자기완성과 함께 세계의 정토화를 의미하기에, 불교시민운동과 복지사업, 자원봉사 등을 아우르는 신행의 좌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은 "보살이 중생을 위로하며 불법으로 인도하는 사섭법은 불자들이 실천을 통해 선업을 쌓고 개인과 사회의 해탈과 행복을 이루는 생활속의 수행"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NGO 현황과 과제

영역 다양화, '세상의 벽' 허물기 앞장
더많은 대중 동참 프로그램개발 시급

불교 NGO 활동은 통일과 민주화가 주요 쟁점이던 시대를 지나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영역이 다분화됐다. 또 최근 환경 문제가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됐다.

▲종교간의 대화=최근 이라크 전쟁과 관련 조계사 청년회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10대 종교 성직자들을 초청, 이웃 종교를 배우는 법회를 열고 있다.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 역시 환경을 주제로 종교간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여성=조계종 문화부장에 비구니 탁연스님 임명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종단 내 비구니부 설치도 추진중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호주제 폐지를 위해 연대 활동을 벌였고, 국제여성불자들의 모임인 사키야디타(Sakyadhita) 2004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려 불교여성운동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인권=미국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범불교대책위는 광화문 단식기도 등을 통해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즐기차게 주장했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 범불교대책위원회를 꾸려 '걷기시위'를 펼쳤으며,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해 불자 파견을 결정하기도 했다.

▲교단자정 · 개혁=참여불교재가연대는 '교단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전 과정을 감시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개혁 단체들은 '개혁을 위한 종교 NGO네트워크'를 구성, 교단개혁에 나섰다.

▲공동체 운동=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남원 실상사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인드라망은 (사)한생명을 설립해 현지에 귀농전문학교, 여성농업인센터, 지역발전센터를 열었으며, 도농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불교생협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국제사업=정토회 산하 JTS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돕는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과 불교 국가인 네팔, 이라크 등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진각복지회, 우리는선우,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티베트, 인도 등 불교 관련 국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과제=불교 NGO 발전과 내적인 건강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지적된다. 우선 소수의 상징성과 명망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의존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많은 대중이 쉽게 동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 NGO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들의 생활적 안정과 능력개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남동우 기자



◇진각복지회는 스리랑카에 직업훈련센터를 세워 현지인 직업교육에 나서는 등 국제사업으로 보시섭을 실천하고 있다.

참여불교 이끄는 우바새·우바이들



◇박광서



◇이인자



◇윤천수



◇남지심



◇김재일



◇김묘주



◇김동흔



◇노귀남

10여 년전부터 몇몇 스님과 재가자들이 시민환경운동에 동참하면서 '시대고(苦)'와 '사회고'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불교NGO 활동을 이끈 주역들 가운데는 시민운동을 하던 재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스님들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화 운동당시 성직자로서의 신분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고, 불교 신행의 특성상 스님들이 재가자를 이끌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의 도움 없이 불교NGO를 이끌고 있는 재가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않다. 98년 종단 분규를 겪으며 태동한 참여불교재가연대를 주축으로 재가자들의 자율적인 시민운동과 교단 자정 움직임은 출가 대중의 개혁과 나란히 한 축을 이루며 불교시민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참여불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재가단체는 연합단체로 출범한 참여불교재가연대다. 공동대표인 박광서 서강대 교수와 부설기관인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김태제(경기불교문화원장) NGO지원분과장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광서 대표는 인도 및 티베트 불교 지원과 함께 오는 7월 20일 개막되는 참여불교세계연대한국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국제연대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은 불교NGO 전문가 양성 및 불교사회화 연구지원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년전 본격적인 불교NGO 시대를 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대의 김동흔 운영위원장은 최근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와 이라크난민돕기범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평화운동을 벌이면

불교시민운동의 새 흐름 주도
난민구호·인권운동등 활동 활발

서, 이라크 현지 긴급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자비의집과 생협 매장을 비롯 2곳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이웃을돕는사람들을 통해 네팔에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한국어 및 영어,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94 년 발족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의 김재일 회장은 95년 UN 기구인 UNHCR(UN 국제난민대책기구)와 협약을 맺고 르완다 난민돕기에 나섰다. 99년에는 지진피해를 입은 터키에 1천만원의 구호금을 전달했으며 네팔 룸비니에 2개의 초등학교를, 포카라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무료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성 불자들의 활동도 점차 활력을 얻고 있다. 95 년부터 98년까지 캄보디아 및 미얀마 고아와 스님들을 지원해 온 우리는선우 남지심(소설가) 공동대표는 최근 몽골불교 및 티베트 난민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교NGO 활동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토론모임인 불교포럼의 노귀남 집행위원장은 불교발전위, 사회정의위, 평화통일위 등의 활동분과를 두고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열어 참여불교운동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 회장은 산하 행복한가정상담소와 이혼예방센터를 두고 이혼 예방과 올바른 가정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여성 지도자 배출을 위한 리더십 개발 교육과 수행공동체로서의 가정만들기, 비구니 권익옹호 등 불교계 남녀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봉 불기254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

회 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 법 장

부 회 장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이 운 산

부 회 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 운 덕

부 회 장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최 효 암

부 회 장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방 지 하

사무총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 홍 파

상임이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상임이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조 법 종
상임이사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최 법 륜
상임이사 불 교 총지종 통리원장 이 법 공
상임이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 무 진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혜 륜
이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박 심 월
이 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이 청 봉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최 학 산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종리원장 이 유 삼

이 사 대한불교 용 화 종 총무원장직대 임 법 영
이 사 대한불교 법 륜 종 총무원장 이 덕 산
이 사 대한불교 본 원 종 총무원장 이 대 화
이 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정 동 봉
이 사 대한불교 대 승 종 총무원장 윤 일 오
이 사 대한불교 삼 론 종 총무원장 김 혜 승
이 사 대한불교 열 반 종 총무원장 김 해 곡
이 사 대한불교 미 타 종 총무원장 이 월 정
이 사 한국불교 여 래 종 총무원장 신 명 안

이 사 대한불교 대각종 총무원장 이 만 청
상임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김 성 관
상임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장 김 미 산
상임이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부장 김 월 해
상임이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박 덕 수
상임이사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부장 손 혜 인
감 사 대한불교 법화종 사회부장 남 암 현
감 사 보국불교 염불종 사회부장 양 법 륜
감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부장 송 덕 성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2층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737-7872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나눔의 손길 행복의 발길

사섭법과 육바라밀의 첫째 덕목인 보시.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보시의 의미와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를 권하고 있다. 결국 보시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초월해 이떠한 상(相)에도 집착함이 없는 보살행이자 신행의 첫걸음인 셈이다. 보시섭의 현대화된 형태인 복지불사와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둘 아님의 도리로 피우는 상생의 꽃

복지 · 자원봉사 현주소는…

불교복지시설 468곳 … 98년보다 37% 증가

전문인력 양성 · 체계적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바람직

⊙불교복지, 얼마나 성장했나?

불교복지는 지난 98년 이후 큰 폭의 외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2003년 5월 현재 집계한 불교 사회복지시설은 총 468곳. 지난 98년 292곳에 비해 37.6%(176곳)가 늘었다. 시설별로는 자원봉사기관 75.0%(9곳), 장애인 56.7%(17곳), 아동 54.1%(73곳), 노인 45.7%(42곳), 지역복지 12.5%(5곳)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불교복지 시설 중 44.5%(208곳)를 차지하는 아동시설의 증가요인은 불교계가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여성의 육아권 보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증설했기 때문이다. 또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의 증가는 불교복지 서비스 영역이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노인복지의 경우, 지난 2000년을 고비로 65세 이상 노령층이 전체 인구대비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불교계 노인복지 시설은 총 92곳으로, 매년 소폭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시설 중 불교계 노인복지사업을 이끌고 있는 곳은 연꽃마을과 인덕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지역복지, 여성 · 노숙자 시설들은 98년과 같은 수준인 31, 5, 1곳에 각각 머물러 있고, 의료기관은 단 1곳만이 늘어났다. 오히려 줄어든 복지시설도 있다. 98년 IMF 관리체제 당시 개설된 노숙자 시설은 4곳에서 1곳이 감소했다. 이들 시설이 줄어든 원인은 여성, 노숙자 시설 등 소단위 시설운영의 외면, 스님과 신도들의 인식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풀어야할 과제는?

시급한 과제는 늘어난 몸집에 걸 맞는 '내실 다지기'다. 시설 수탁 위주의 사업 전개, 외형 갖추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초기 단계를 지난 만큼,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불교복지 프로그램 개발, 불교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후원금 모금 방법 체계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나서야 할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불교복지 전반의 편중현상 극복이다. 아동 · 노인 등 특정 분야 집중을 비롯해, 일부 지역과 도심에 몰려있는 시설들, 단순 노력봉사에 치우친 자원봉사 활동영역 등의 문제점은 불교복지가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특히 문제는 불교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다. 시대에 맞게 불교복지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 다원화 사회에 맞는 여성 · 인권 · 환경 문제 등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각 교구본사별로 소외된 분야의 시설 설립과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원 설립 등 제도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부장은 "불교복지가 단 기간에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인 만큼, 지금은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자원봉사' 시대

불교복지의 양적 팽창은 활발한 불교의 대사회 활동을 가능케 했다. 이제는 불교 자원봉사 활성화와 후원금 모금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계 참여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자원봉사의 현황은 이 같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공급 및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 · 교육하고 활용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

현재 자원봉사 양성기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태종사회복지재단, 진각종사회복지재단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등 총 12곳에 불과하다. 공식 ·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가 최소 10만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봉사활동 분야의 편중현상도 심각하다. 무료급식, 간병, 발 관리 등 몇몇 분야에 인력이 집중되다보니 이 같이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초 발표한 '자원봉사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자원봉사 활동시간 총 3만6천637 시간 가운데, 식사지원(음식조리, 밑반찬 배달) 등의 단순 노력봉사활동이 전체 봉사활동 시간의 40%(3만7천986 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호스피스, 의료지원, 한방요법 등 전문분야는 물론 자원봉사 전영역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단순 교육과 파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연꽃마을이 자원봉사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산하 시설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 자체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복지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의 '교육-파견-재교육-보상' 등의 관리순환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신행문화의 인식전환이다. 불자라면 당연히 자원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 신행풍토의 조성이다. 또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봉사 영역의 다각화 · 전문화 △자원봉사 상여보험 가입 등의 보상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중간관리자 양성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정련


◇성운


◇현각


◇상덕


◇해성

산중에서 중생계로 … 복지 불모지에 '씨앗'

복지현장을 이끄는 스님들

산 중에 머물던 한국 불교가 중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사업에 나선 것은 1990년대 초. 이 무렵부터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 복지의 토대를 일군 주인공은 바로 정련, 성운, 각현, 제원, 설웅 스님 등이다. 뒤를 이어 해성, 성덕 스님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고, 이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 불교복지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90년 이래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은 지역복지 분야. 종합복지관을 위탁해 운영하는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삼전복지관 전 관장 각우 스님, 구로복지관장 설웅 스님,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 길음복지관장 제원 스님, 송광복지관장 현고 스님 등이다.

불교복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분야는 노인복지. 여기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스님으로는 3개의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과 연꽃마을 이사장으로서 안성노인복지타운 등을 운영하는 각현 스님 등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로는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인 소쩍새마을의 원장 현각 스님, 청각 장애인 복지 선구자인 연화복지원장 해성 스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 및 장애인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몰운대복지관장 정련스님도 돋보이는 복지불사를 펼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찾아가는 자원봉사단체' 민들레 도시락 봉사단. 서울 북부지역 장애인, 결식아동, 독거노인 100여 가구에 도시락배달 봉사활동을 4년째 벌이고 있다.


◇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수해로 붕괴될 축대에 보수공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봉사 불교대 정규과정 편입"

불교복지 이론적 토대 구축 김용택 교수



"그동안 불교복지는 정말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자원봉사를 다변화하는 등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논현동에 불교복지문화연구소를 개원하고 불교복지의 이론적 토대 구축에 부심하고 있는 김용택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 사진). 김 교수는 그간 불교 복지가 일군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을 것이라며 두 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현대 복지이론에 불교사상을 접목시키자는 것. 김 교수는 "불교복지란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불교복지 이론으로 내놓을 것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며 "불교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복지이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불교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김 교수는 불자 개개인을 복지 자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자원봉사를 불교대학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복지 교육을 강화해 자원봉사자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 · 환경 · 교육 · 행정 등 자원봉사 영역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2)517-3052 강유신 기자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나라

"마음의 등불 하나가 온 우주를 밝힌다"

본 선원은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055) 345~9900


법 회 본래로 부터 밝혀져 있는 마음을 제대로 깨우쳐 부처님의 세계에 들고자 그 믿음을 공고이 하는 신행법회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법회시간 □ **화요법회** 매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넷째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법형제법회** 매주수요일 오후 7시 / **어린이법회** 매주토요일 오후 2시 30분 / **학생법회** 매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청년법회** 매주화요일 오후 7시 / **초하루 보름 정진법회** 음력 초하루보름 오전 10시 30분.


영 탑 불교의 전통적인 탑을 설치하여 조상님의 육신을 모시는게 아니라 영혼을 모심으로 조상님을 올바르게 모시는게 되고 직계 대대로 영원히 쓸 수 있어 경제적일 뿐 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바지하고, 공원형식이라 신성하고 친근감이 듭니다.

위 치 국도 25호선중에 진영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창원 I.C**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육교**에서 **금산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삼영타일 공장방면으로 300여 미터 들어오다보면 왼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자세한 참조는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약도를 참고하세요.)
URL:(http://tree.hanmaum.org/jungbu)

주소 621-8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 345~9900/342~6639 · 0 Fax 055) 346~2179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참회로 닦는 참불자의 길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족과 종교간의 분쟁은 단 한번의 반성과 화해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타락으로 인한 향락산업과 범죄의 만연, 이 속에 노출된 사회와 개인 역시 자기성찰 없이 허망한 업 놀음에 허우적 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로 세울 방법은 없는가. 불교는 '마음이 맑아야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참회로부터 사회와 국가, 인류의 평화가 기약되는 것이다.

성찰 없는 삶, 허망한 업 놀음일 뿐!

참회의 자세

호국참회기도도량 도선사를 원찰로 신행하고 있는 유인숙(36) 보살은 날마다 새로워진 자신을 만난다.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된 '자비도량 참법 100일 기도'에 매일 참석하면서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허물을 부처님전에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틈틈이 <금강경>을 한자 한자 사경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절에서는 백팔참회를 통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참회기도를 하다보니 하심공부와 함께 업장소멸이 저절로 됨을 느끼고 생활에 자신감도 생겼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는 어렵다. 문제는 잘못을 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합리화 하려는데 있다. 청정한 계행도 중요하지만, 파계를 했더라도 곧바로 그 원인을 반성하고 다시 계를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천수경>은 진실한 참회를 이렇게 설한다. "죄악은 본래없어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을 비울 때 죄악 또한 사라지네. 죄악도 마음도 모두 다 사라지면 이것을 진실한 참회라 이름하네."

기도 방법

가장 보편적인 참회법은 절 하기다. 108배, 1080배, 3천배, 1만배 등과 <예불 대참회문(108참회문)>을 외우면서 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염불하면서 절을 하는 불자들도 있다. 이와같은 방법은 대중이 함께 법회나 기도할 때 또는 혼자서 할 때 마음 속으로 참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체 내의 공개 참회법으로는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법과,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 주면 따라서 참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포살과 자자이다.

매주 금요일 <자비도량참법> 독송 및 절하기로 철야정진법회를 여는 서울 향천선원 혜림 원장은 "참회기도는 형식보다는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

틈틈이 금강경 사경하며 반성
참회문·염불하며 108배 정진
일정한 날 정해 자기 언행 살펴

을 불성이라는 거울에 반추해 보고 참자기로 돌아가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살과 자자

대표적인 참회의식에는 포살과 자자가 있다.

포살(布薩)은 보름과 그믐에 대중이 한곳에 모여 계경(戒經)조목을 들어가면서 '잘 지켰는지 못지켰는지'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다. 불자들이 하루밤, 하루 낮동안 지켜야 할 계율을 잘 지켰는지 육재일(8, 14, 15, 23, 29, 30)에 계를 잘 지켰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살이라 할 수 있다.

자자(自恣)는 선원에서 안거를 끝내는 마지막날 함께 공부하던 스님들이 모여 서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동안에 지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꾸중듣기를 청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갈등과 불화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자자와 포살은 더없이 필요한, 자기를 점검하는 수행법이 아닐 수 없다.

조계사 상임지도법사 연담 스님은 "일정한 날을 정해 가족 구성원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신심고취는 물론 가정 화목에도 큰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포살 법회를 적극 권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포살법회 여는 사찰
조계사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02)732-2183
도선사	매월 첫째 주말(철야) 그믐 (02)993-3161
불광사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02)413-6060
봉은사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30분 (02)511-6070
법주사	매월 음력 30일 오전 10시 (043)543-3615
법안정사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02)653-4888
혜원정사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051)866-7771
보광사	매주 토 오후 10시-일 오전 4시 (02)790-3325
불회사	매월 음력 초하루~초삼일 (061)337-3440



◇7년째 매달 3천배 참회정진 법회를 열고 있는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절 삼매'에 빠진 불자들.

화계사 철야 3천배 현장

100여 불자들 "참된 나 찾자" 법당내 열기
"몸·마음 건강해지고 업장소멸 큰 도움"

4월 26일 밤 11시 외국인 스님들의 근본도량인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 일주문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서늘한 산사의 공기를 뚫고 간절한 정근 소리가 들려온다.

3층 대적광전으로 올라가 법당 안을 들여다 보니 후끈거리는 공기가 느껴진다. 철야 3천배 정진에 나선 불자들의 몸에서 발산된 열기가 법당 안을 이렇게 데운 것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0여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절 삼매에 빠져 있었다. 죽비 소리에 맞춰 끊임없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린다. 불자들의 법복은 이미 흥건하게 젖어 있다. 2시간이 넘는 정진으로 땀이 샘솟듯 흐른다.

일어서려다 비틀거리는 불자들도 간혹 눈에 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대중들의 관세음보살 정근소리가 커진다.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도반을 도우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세를 바로 잡은 불자가 곧바로 절을 다시 시작하면서 정진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철야정진에 동참한 100여 불자들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3천배를 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나를 낮추는 하심을 배운다. 특히 이날 5명의 외국인 스님들도 참석해 한국 스님들 못지 않은 원력을 보여주었다.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인 현각 스님도 3천배에 동참했다. 모두들 열성적으로 관음정근에 맞춰 절을 하다보니 7시간의 정진이 너무 짧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화계사 3천배 정진법회 지도법사인 연태 스님은 "3천배 정진은 진정한 참회를 통해 나약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용맹정진하는 발심의 계기가 된다"며 이를 통해 "탐진치 삼독심을 끊고 계정혜 삼학을 닦는 기반이 다져진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매달 3천배 참회정진을 해온 강문주(38·대원행) 보살은 "3천배 정진을 하다보면 참회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업장이 소멸되는 것 같다"며 "3천배 정진은 장애를 극복하는 용기를 샘솟게 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화계사의 3천배 철야정진은 7년 전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열리며 50분 절 수행, 10분 휴식으로 진행된다. 밤 12시에는 30분 휴식과 함께 깨죽 등을 먹으며 기운을 북돋우고, 지도법사 스님을 통해 절 수행의 기본적인 방법도 배울 수 있다. (02)902-2663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자기반성 통해 새 삶을"

관음대참회수련회 여는 정연 스님



"참회 없는 수행이나 참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91년 관음대참회수련원을 개원한 불회사 주지 정연 스님(사진)은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거나 발심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참회수련원을 열었다"면서 "수행은 참회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참회를 통해 근본 무명 즉 업식이 녹아야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업식의 정화 없이는 어떤 수행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연 스님이 참회수련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은 94년부터 3년간 해외 불교를 접하면서부터였다. 인도와 동남아 불교국가의 수행법을 체험하면서 참회를 강조하는 우리 불교가 그 어느 나라의 불교보다 좋은 이념체계와 수행환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 97년부터 다시 수련원을 연 정연 스님은 '성찰,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지혜 밝힘' 등 세가지 법회 상설

일구는 법회'란 기조아래 세 가지 법회를 상설화했다.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참회기도하는 '참회발원 법회', 매월 음력15일 경전과 교리를 배우는 '지혜밝힘 법회', 매월 음력 24일(관음재일)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행하는 '자비실천 법회' 등이다. 특히 관음재일에 나주 영산포에 있는 중증장애자 시설인 계산원에 가서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 법회는 참회발원의 사회적 회향의 모델이 될만하다.

정연 스님은 "며칠간의 참회수련회나 정기 법회를 통해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체험한 불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회발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일상속의 참회를 권유했다.

김재경 기자

2547 BUDDHA'S BIRTHDAY

金剛신심! 金剛진각!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겠습니다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孝 庵

教育院長 惠 淨

宗議會長 鎭 山

查監院長 仗 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宗師

宗正司書室長 南宮道載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教育部長 金勇岩
總務部長 朴德水 社會部長 金務元
教務部長 邊春光 糾正部長 趙珍德
財務部長 李門德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張道正 副議長 朴魯昇

監查院

監查院長 朱正山 監查委員 金景遷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金剛佛教大學 學長 李載昌
金剛大學校 總長 朴奉植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忠北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132-1
☎ 043) 423-7100~8 / FAX : 043) 420-7399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효의 가르침 어떻게 받들까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야 사회도 밝아진다. 효(孝)에 대한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체되기 시작한 가정의 질서는 이제 사회의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 효 정신을 선양함으로 가정과 사회, 국가, 인류의 건강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30여 년 간 <부모은중경>을 강의 해 온 정무스님(석남사 주지)에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효의 정신과 실천 과제를 들었다.

孝 자식 아끼듯 부모 섬겨라

30년간 '부모은중경' 강의 정무 스님께 듣는다

▲스님께서는 어느 법회에서든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법문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효에 대한 가르침을 펴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부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합니까? 효에 대한 교육은 무슨 사상이나 교육의 테마로 공식화 될 필요도 없는 인간 삶의 기본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세상이 밝아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죠. 사실 우리 사회는 붕괴의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 용주사 주지를 맡으면서부터 효행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부모은중경탑'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정조대왕과 관련한 효행의 역사적 배경을 부각 시켜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효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선양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이란 바로 자기 자리를 찾아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반듯하게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의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효의 정신이란 바로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시키는 일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깨달음과 효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까요?

"불교는 부처가 되길 바라는 종교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길 염원하고 노력하는 종교죠. 그런데 부처가 되기 위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간교육이 먼저 되고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되어서 중생계로 확산되어 나가야 깨달음의 세상이 열립니다. 혼자 깨달아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효의 가르침은 바로 인간의 본성 즉, 불성을 발현하는 근원을 챙기는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와 국가의 고마움, 함께 사는 이웃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불자들은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불성의 자리가 효도를 다하는 겸허하고 숭고한 생각에서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은중경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발견한다. 그리고 경건하게 다가가 그 뼈에 절을 한다. 동행 하던 제자 아난이 그 까닭을 묻자 부처님은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는 동안의 육도중생이 다 나의 부모형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불설대 부모은중경>은 인간의 근원이 무엇이고 지금의 몸이 얼마나 귀한 인연들의 집합체인가를 일깨우는 경전이다.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어 출생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효행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전이지만 사람의 출생과정과 부모의 양육 과정, 자식의 부모 섬기기 어려운 점 등을 낱낱이 기록했다. 아무리 큰 노력을 하여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의 은혜에는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효도에 끝도 완성도 없음을 가르친다.

효행강조한 대표적인 불교경전

'부모님 10가지 은혜' 큰 감동

특히 부모님의 열 가지 은혜(十種大恩)를 설하는 부분에서는 폐부를 찌르는 감동을 준다. 그 열 가지 속에는 자식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효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도 설명하고 있으며 불효한 자가 지옥에서 어떻게 과보를 받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정무스님 약력

· 1931년 군산 출생
· 전북대 졸업
· 58년 전강스님 은사로 봉은사서 득도
· 직지사 강원 졸업
· 삼척 영은사서 탄허스님에게 대교과 수료
· 71~82년 용주사 주지, 83년 신륵사 주지, 이천 영월암 주지, 현재 안성 석남사 주지

효도에 대한 교육 인간삶의 기본

효도 할때 불성의 자리 더 빛나

▲현대 교육에 있어서 효 정신의 강조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힘(정신)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은중경>에서는 강조하는 부모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열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어버이날 부르는 '어버이 은혜'란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가 다 <부모은중경>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잉태하여 지켜 주신 은혜, 해산 할 때 고생하신 은혜, 무사히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신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먹여 주신 은혜, 마른자리 진자리 갈아 주신 은혜, 젖 먹여 길러 주신 은혜, 더러운 것 씻어 주신 은혜, 자식 걱정 하시는 은혜, 자식 위해 몹쓸 일도 마다 않으신 은혜,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나는 이 열 가지 가르침이 다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간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열 가지 어버이 은혜는 가장 숭고한 보살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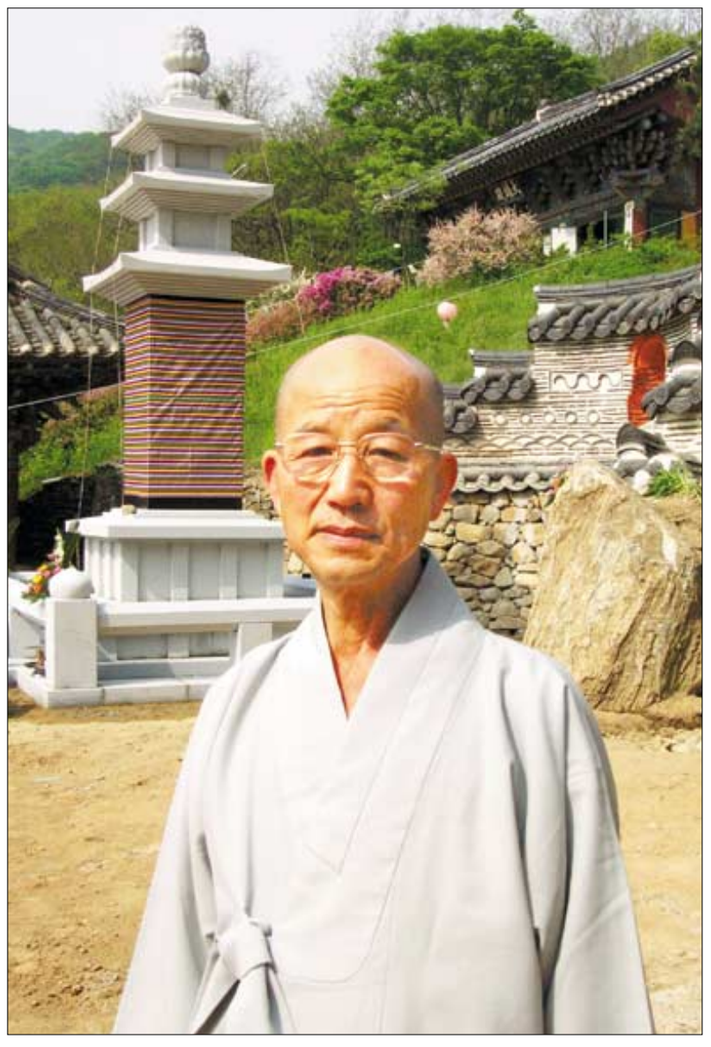
▲스님께서 법문을 할 때 효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시는데 어떤 것입니까?

"요새는 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효도입니다. 다들 양로원으로 보내고 자기들 끼리 살려고 하죠. 자기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엄청난데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식 아끼듯 부모 섬겨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인데 잘못된 뜻도 일단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면전에서 잘못을 따지지 말고 밖에 나와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자기의 뜻을 반영시키고 나중에 그걸 잘 말씀드리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음은 큰 방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큰 방(기왕이면 화장실이 붙어 있는)에 모셔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드리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용돈을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가 병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자식이 직접 간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가 불인(不仁, 치매 망령 등) 할 때는 자식이 먼저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멸시하거나 꾸지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임종할 때에는 '울고불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임종 앞에서는 불효자식이 더 크게 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 입니다. 편안하게 임종해야 하는데 크게 울부짖고 몸을 뒤흔들어 버리면 그 영가는 불안한 그대로 떠돌게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고 효도를 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끝없이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개선도 발전도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 최선의 노력으로 잘 모셔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나 살피면서 참회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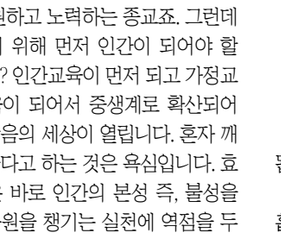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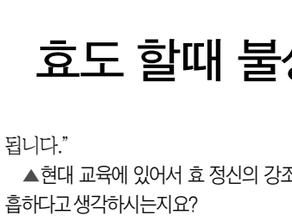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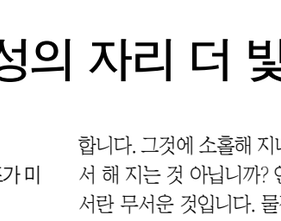
'효심이 중심·본심·천심' …석남사에 부모은중탑 조성

30년 이상 대중법회에서 <부모은중경>의 가르침을 법문해 온 정무스님은 효도가 참사람을 만드는 기본이므로 효도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란 점을 강조한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안성 석남사에 부모은중탑을 조성한 스님은 탑 글 말미에 "효심이 중심 본심 천심/이 경탑에 공양 예배 찬탄 하는 이/바로 그가 공양 예배 찬탄 받는 이/아름다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여/무궁토록 건강하고 행복할 지로다"라는 게송을 지어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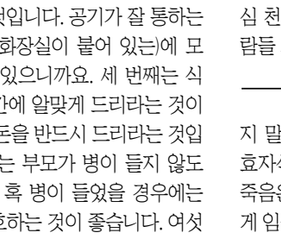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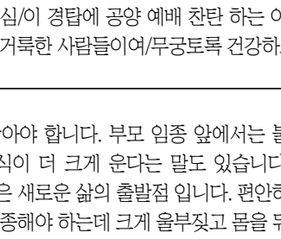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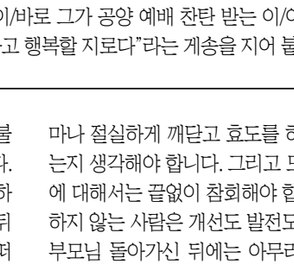
"봉" 부처님이 오신 길을 저희도 가렵니다 "축"

거룩한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사월 초파일을 맞아 조계사 사부대중은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크신 뜻을 되새기며 부처님이 오신 길을 따르려 합니다.
항상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자비심과 내 삶과 이 세상에 등불을 켜겠다는 발원으로 참회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온 세상이 폭력과 전쟁 없이 평화롭고, 남북이 통일되어 분단의 아픔과 불행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조계사 사부대중은 맑고 아름다운 서울을 위해 인왕산에 나무를 심고, 병든 이웃을 돕기 위해 "자비의 등"을 밝혔습니다.
불우한 이웃과 군장병을 위해 자비의 선물을 만들고, 사스로 고통받는 온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발원하며
인천국제공항에 연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신 길을 따르기 위해 밤새도록 3,000배를 올렸습니다.

5월 봉축행사 5월 4일 오후 3시 연등축제 / 5월 6일 오전 10시 노인잔치 오후 7시 30분 초청강연회(장회익) / 5월 7일 오후 9시 봉축전야철야정진 / 5월 8일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오후 3시 봉축문화마당 오후 7시 점등식 및 회향기도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전화 732-2183.4 / www.jogyesa.org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한국불교, 불교다운가?

불교는 불교다워야 한다. 그것이 정법이다. 한국불교가 거듭 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나아가 인류의 삶과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불교는 불교다운가.

불교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10명, 재가자 10명 등 20명에게 불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방식은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을 택했다. 네 질문에 대한 20명의 견해와 종합분석을 차례로 정리했다.



◇한국불교의 불교다움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전국의 선원과 강원 등에서 수행정진하는 승가의 모습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불교답지 않다" 다수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20명의 진단

<도움 말씀 주신 분들(승 · 재가 가나다순)>

법타(은해사 주지)	김동흔(경불련 운영위원장)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송도근(건교부 불자회장)
성운(은평노인복지관장)	왕선자(불교여성개발원 이사)
지암(나주 사암련 회장)	윤창화(민족사 대표)
지홍(조계사 주지)	윤천수(불교아카데미 이사장)
철우(파계사 영산율원장)	이 만(동국대 교수)
청화(실천승가회 상임고문)	임완숙(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해월(동화사 강주)	정상옥(대한불교청년회장)
현각(조계종 법규위원회 위원)	최명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혜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황진수(한성대 교수)

정체성 확립 가장 급한 문제

승가 본연의 모습 상실 아쉬워

우수한 가르침 사회회향도 미흡

'부처님 법' 대로 살때 존경받아

수행정신 회복 · 승려 자질 향상

승가화합 · 교단민주화 등 서둘 때

◐ 한국불교, 과연 불교다운가

응답자 상당수가 "상당히 모호한 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불교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 모호한 질문을 던진 것은 '불교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 그 개념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또 특정한 시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불교다운 것은 무엇일까. 한 응답자는 이런 말을 했다. "인도의 고타마 싯다르타의 일생이 바로 불교다운 것 아니냐"고. 또 몇몇 응답자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에서 불교의 참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대부분도 이런 취지에서 이 질문에 답변하겠다며 의견을 내놓았다.

그 결과 이들 20명의 응답자들 중 1명을 제외한 19명이 '불교답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문제가 있다' '불교답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 중 반수에 가까운 8명은 '불교답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불교가 오랜 역사와 뛰어난 사상적 ·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상에 회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승가가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의 한국불교 모습은 부처님 법에 비춰 부족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수행풍토, 승려 자질, 불교정신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제는 대부분 승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세부적으로는 '승가가 본분을 잃고 있다' '승가가 정치판으로 변질됐다' '사명감이 없다' '스님들이 신도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 는 등의 신랄한 비판이 많았다. 이런 요인들이 바로 수행풍토를 확립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행풍토와 승려자질 문제를 거론한 사람 가운데 스님이 재가자보다 두 배 가량 많아 승가 스스로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질만능주의가 승가에 파고들고 있다는 점도 많이 지적됐다. 선거과정에서 금권이 판을 치고, 또 이로 인해 승가 내부가 분열과 타락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시급히 고쳐야 할 한국불교 문제점은?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다양했다. 승려자질, 수행풍토, 지계정신 부족, 승 · 재가 교육, 문중 · 파벌주의, 승 · 속간 괴리감, 승가 권위주의, 물질만능주의, 기복신앙 등 불교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대부분 꼽혔다.

◐ 한국불교가 정법의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행정신 회복, 승려자질 향상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불교 정체성 확립'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불교가 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불교 정체성 확립은 불교가 무엇을 하더라도 불교의 근본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할 때 가능하다"며 "불교를 그늘로 삼아 교육이나 사회복지 등의 모든 행위를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어떤 응답자는 "원칙을 지켜야 불교가 바로 설 수 있으며, 그것이 곧 불교의 이념"이라고 했다.

"불교에 대한 몰이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승단 내부 문제는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수행체계 확립, 승가 화합, 교단민주화, 지계정신 확립, 인재양성시스템 확보, 승가교육, 시대에 맞는 포교, 승려 노후복지 확립, 도덕성 회복 등이 필요 요건으로 제시됐다.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거론된 항목들과 비교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이 제시됐음을 알 수 있다.

◐ 한국불교 속에 불교다운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한 응답자는 "한국에도 틱낫한 스님 같은 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한국불교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웅변한다. 말없이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의 모습, 응답자의 3분의2 이상이 선원과 강원, 그리고 수행자를 꼽았다. 이들에게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보았고, 또 이들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존재가치와 역사를 잇는 자존심이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대답도 많았다. '제도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불자들'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스님들' 이 그렇다는 것이다.

사회참여 속에서 '불교다운 불교'를 느꼈다는 응답도 많았다. 사회복지, 환경, 사회문제 등에서 불교가 제목소리를 낼 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도법, 수경, 지율스님의 말없는 고행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모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처님 오신 날 거리에 달린 '은은한 등불'을 보며 이 땅에 불교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다.

◐ 불교다워야 불교가 산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 마디로 '불교답게 불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강하게 지적했듯이 불교가 탁월한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불교적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제시한 견해가 불교계 전체의 의견일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교다운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 정법의 당간을 우뚝 세우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다. "불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명력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한명우 · 여수령 기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TV안에 있습니다"

- SkyLife와 함께하는 불교TV시청 캠페인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난시청지역에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합니다

SkyLife란? 국내 유일의 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으로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만 갖추시면 전국 어디서나 종교(불교TV 등), 영화, 음악, 청소년, 여성, 스포츠, 뉴스 등 150여개 다채널을 고화질, 고음질로 시청하실 수 있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 입니다

패키지명/채널명	채널수	채널구성
SkyFamily	112 채널 (불교TV 포함)	일반채널 : 불교TV, KBS1, KBS2, EBS, 홈쇼핑 등 영화 및 드라마 : OCN, MGM, 드라마 3개 포함 12개채널 스포츠 : KBS, MBC-ESPN, SBS, SBS골프 등 5개채널 증권 및 뉴스 : CNN, HNK, YTN, 한경와우 등 어린이 : 대교, 재능스스로 / 디즈니, 니켈로디온 (원어방송)
EDU 1,2,3	초/중/고등학생들의 내신성적 향상과 수험생을 위한 채널	
SKY수능1,2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채널 (접시타고 대학가자!)	

부처님 오신 날 맞이 가입혜택

■ 장비료 : 3,660원 × 24개월 (24개월 의무가입)

■ 월 수신료 : 12,600원 (1년간 30%할인가) / 12개월 의무시청 (SkyFamily기준)

■ 납부방법 :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월 장비료 + 수신료 합산 청구)

■ 특전 : 1개월 수신료 및 설치비, 가입비 면제
(단, 가입조건은 월별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최 : 불교TV(btn), MBNet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 SkyLife 가입문의 및 신청 : 080)997-4949

SkyLife 내 식 대 로 즐 기 는 T V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국경없는 전법, 세계화의 화두

한국불교는 그간 해외 포교의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왔다. 미주 · 유럽 등지에 200여 한국 사찰이 세워졌고 한국을 찾아와 삭발염의하고 수행하는 외국인 스님도 80명을 넘는다. 그러나 전법에 대한 원력만큼이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크다. 해외 전법을 담당할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고, 조직적인 해외 포교 계획도 드물기 때문이다. 해외 포교 40년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점검해 본다.

가르침 속 인류가 한가족 될때까지…

해외포교 40년, 성과와 비전

개인원력 한계…제도적 뒷받침 필요

한국불교 알릴 영문불서 인력양성 절실

▧해외로 뻗는 한국불교

한국불교가 '세계화'라는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 조계종에만 해도 정식으로 수계를 받은 외국인 스님이 비구(니) · 사미(니)를 합해 8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80%는 숭산 스님의 제자들. 1966년 일본에 홍법원을 설립하면서 해외 포교를 시작한 숭산 스님은 전 세계 32개국에 120여 곳의 홍법원을 설립, 60여 명을 출가시켰다. 조계종에 승적이 등록되어 있는 스님만도 10여 명에 이른다.

지난 40년간 한국불교의 해외 진출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64년 서경보 스님이 미국 버클리 대학 근처에 선원을 열면서 시작된 해외포교는 70년대 구산 스님과 숭산 스님이 미국에 포교원을 개척하면서 본격화됐고, 현재 조계종에 소속된 150여 곳을 포함해 전 세계에 200여 개의 한국사찰이 건립돼 있다.

▧해외포교의 전환기

한국불교 세계화는 해외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이나 단체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숭산 스님과 구산 스님 외에도 원명 스님이 대표적이다. 1989년 구소련을 시작으로 해외에 6개의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원명 스님은 1997년 강화도에 연등국제선원을 건립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스님들을 길러내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 또한 미국, 독일 등 9개 지역의 해외 지원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몇몇 스님의 적극적 활동에 기대온 해외 포교도 이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개인의 원력에 의존한 해외 포교만으론 진정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73년 문을 연 송광사 국제선원이 그것을 말해준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0여 명의 외국인 수행자가 몰려들었던 송광사 국제선원은 남다른 열의를 가졌던 구산 스님이 입적한 후 국제선원으로서의 위상이 많이 위축돼 있다. 관심 갖고 이끌 '어른'이 없는 탓이다.

해외에 건립된 한국 사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스님들 개인의 원력과 노력으로 세워진 한국 사찰은 현지 교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사찰 운영은 의욕에 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스님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세계화를 위한 과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외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해외포교를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의례나 신행 · 수행 체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영문책자가 필수적이고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개인 원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들어와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의 확보나 제도적 지원도 종단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조계종이 외국인 기초선원을 지정하고 교과안거 실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영문 교재 발간 등을 통해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나서는 것은 이 같은 필요성을 종단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교구 신설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포교와 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정착을 종단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에서 실시한 외국인 스님 집전 및 의식 교육 모습.

외국인스님 국내 수행처는?

대부분 화계사·연등국제선원서 송광사 국제선원 한국어 가능 스님만

외국인 스님들의 대다수는 숭산 스님이 문을 연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과 원명 스님이 건립한 강화 연등국제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조계종의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거 때마다 20여 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두 곳은 행자교육(1년 과정)을 겸하고 있는데 연등국제선원의 경우 사미(니)계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한국어 습득과 한문 교육을 받은 후 강원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알리는 경우와 국내에 남아 선방에서 수행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2000년 충남 논산의 무상사 국제선원도 숭산 스님이 건립한 곳이다.

구산 스님이 1973년 시작한 송광사 국제선원은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기본 습의를 익힌 스님에 한해서만 입방을 허락하고 있다. 통도사, 대원사, 도선사, 금정암, 도선사, 광명선원 등에서도 수행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있으며 강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도 있다.

"한국 선불교, 세계화 확실한 힘"

미 육조사 주지 현웅스님의 전법비결



20여년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웅 스님은 미국 내에서도 '전국구 스님'으로 통한다. 시애틀(돈오선원)과 버클리(육조사), 두 곳에 사찰을 열고 있지만 등록된 신자 수는 전국적으로 3만여 명. 이 때문에 지역별로 수련 센터를 만들어 순회 지도를 해야 한다. 해외의 한국 사찰이 대부분 현지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등록 신자의 99%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해외포교를 하면서 한 법문과 기고, 시와 편지를 한데 묶은 <묻지 않는 질문>(민족사)의 국내 출간을 계기로 최근 고국을 찾은 스님은 "선불교야말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 미국인들은 물질 속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정신을 찾기를 원한다. 티베트 불교나 일본 불교는 신앙불교나 문화적 측면으로 고착화돼 그럴 만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반면 깨달음의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 불교는 철저하게 체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러나 해외 포교의 현실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찰이 손에 꼽을 정도다. 스님은 "해외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의 경우도 확실한 뜻과 원력을 지닌 분들이 드물고, 무엇보다 준비 안 된 스님들이 많기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준비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외국에 나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된다는 것은 출가할 때만큼이나 큰 변화다. 인생의 행자 생활을 다시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5년 만에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봐야 한다."

—실제로 언어 때문에 현지인 포교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나도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몇 년 지나서는 법문과 신자 상담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됐다. 숭산 스님은 문법과 어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어 나열식 서툰 영어로도 성공했다. 언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수행에 철저해야 하고, 원력이 있어야 한다. 근본이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를 잘 해도 통하지 않는다. 언어나 문화의 이해는 그 다음이다"

—해외포교를 개인의 원력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선불교가 힘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사회화 되어 있지 않다. '선 따로 불교 따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불교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의 교육이나 선방 스님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스님들 스스로도 산철에는 적극적으로 교양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수행 철저·언어장벽 극복이 관건

공부하며 실천하는 생활불교 강조

송광사 1 · 2대 방장 구산(1909~1983) 스님의 제자인 현웅 스님이 해외 포교에 나선 것은 1984년. 송광사 포교당인 스위스 제네바 불승사로 갔다가 2년 뒤 미국 포교에 뛰어들었다. 시애틀에 '돈오선원'을 개원한 데 이어 1990년 초 버클리에 '육조사'를 창건했다. 지금은 육조사 선원에서 서양인들에게 한국 선불교를 지도하고 있다. 육조사(510-486-1762)

권형진 기자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가족을 부처님처럼...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불교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 여여정사

선원장 정여

신도회장 변성창

거사림회,청년회,여여회,자비회,
선림회,다도회,합창단,복지회,금빛모임,
푸른샘, 화요법회,수요법회,
목요법회,금요법회

부산시 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전화 051)853-5486~7

대한불교 종단진흥회

회 장 능허당 김혜정 (사)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부회장 원 덕 성순경 통일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부회장 동 해 이송산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수 봉 정회암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홍보위원장 손혜인 대한불교조계율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만 암 윤송정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회 원 송법장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송보인 대한불교신인종
최법륜 (사)대한불교원융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번지 전화 02)3446-1819 팩스 02)511-2028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환경운동 또다른 수행

1970년 전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찰에는 산감(山監)이란 소임이 있었다. 산을 돌보는 일은 수행, 포교와 함께 사찰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의 실천이었다. 91년 사찰환경 훼손으로 시작된 불교환경 운동은 어느덧 들불로 타올라 사회를 밝히고 있다. 북한산 · 수락산 · 불암산 관통 문제, 새만금 간척사업 등과 직면해 있는 불교환경운동을 진단하고 과제를 알아본다.

불자세요? '환경보살' 되세요



◇불교계 환경운동은 수행환경 수호의 차원을 넘어 생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교환경운동 진단과 과제

▦사찰의 담장을 넘어 사회로

1991년 시작된 해인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립 반대운동은 12년이 지난 2003년 2월 대법원의 백지화 판결로 끝을 맺었다. 해인골프장 건설 저지 운동은 불교계가 환경문제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95년부터 96년까지 전개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 도심 통과 반대운동은 불교 환경운동이 '사찰'이라는 담장을 뛰어 넘는 분수령이었다. 결국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외곽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관철시켰다. 이후 사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에는 지리산댐 건설을 막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서울외곽고속도로의 북한산 · 수락산 · 불암산 관통 문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 금정산 통과 등 개발논리를 앞세운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한 환경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수경스님, 지율스님 등은 불교 환경운동을 이끄는 환경운동가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환경훼손에 자조적 목소리

1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교 환경운동이 이렇게 확산된 것은 사찰이 국립공원이나 지역개발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찰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성보와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환경운동은 다소 제한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 무분별한 개발서 생명 · 수행환경 보호
>
> 반환경적 대형불사 · 오폐수 해결 과제

불교계 스스로도 반환경적인 대형불사와 무분별한 오폐수 방출, 저조한 참여도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001년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 문제는 환경에 대한 불교계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불을 건립, 사회의 비난섞인 눈초리를 받았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대형불사와 같은 반환경적인 행위가 불교계 내부에서 지속된다면 불교 환경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불사를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불교 환경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부터 환경보살 돼야

최근 환경운동은 환경오염의 정화에 관심을 쏟는 환경주의 운동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킨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태주의 운동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 만으로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은 불교 환경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리산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벌이고 있는 생태공동체 운동도 생태주의 운동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불교 환경운동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구조와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불교계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불사를 지양하고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불교 환경운동은 불교의 생명사상을 사회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불교 환경운동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불교 환경운동은 나와 사찰부터 환경보살이 되겠다는 서원과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 환경운동 약사

91년 불교환경교육원이 효시

30여 단체 95년부터 연대활동

불교 환경운동의 태동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창립된 91년이라는게 교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불교적 이념을 갖춘 조직이 지속성을 갖고 환경운동에 나선 것은 불교환경교육원이 처음이다. 92년 공해추방운동 불교인모임 그리고 93년 맑고향기롭게가 창립되면서 교법사와 청소년, 대중이 전개한 각종 환경 심포지움과 캠페인은 각 사찰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 불교 환경운동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불교계 단체들의 연대활동은 95년부터 시작됐다. 95년 6월, 조계사에서 열린 '95 청정국토한마당'을 계기로 30여 불교단체들은 불교 환경운동의 확산을 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재가불자들의 환경운동 동참이라는 성과도 일궈냈다. 이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조계종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 이념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직들이 연이어 구성됐다.

환경운동 이끄는 단체들

네트워크 형성해 생명운동 전개

귀농운동 · 대안교육 등 역할 분담

한국불교환경교육원과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청정국토살리기운동본부, 맑고향기롭게, 두레생태기행,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불교계 내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역할 분담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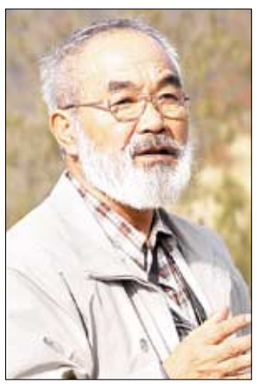
불교환경교육원은 불교사상과 환경운동, 나아가 생명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이념적 토대를 만들어내고, 환경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도농 · 지역공동체 운동과 대안공동체운동, 귀농운동, 대안교육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벌이면서 환경운동의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우리꽃 가꾸기, 생태기행 등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바꾸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북한산 · 수락산 · 불암산 살리기와 천성산 · 금정산 살리기 등 굵직한 환경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교 환경운동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켰다.

이들 단체들은 사상 연구와 개발, 공동체 운동, 사회화 운동 등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도 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의 활동은 사회를 불국토로 바꿔 나가려는 적극적인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문정현 신부가 본 불교 환경운동

"종교와 현실 연결 교육 필요"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생명존중 사상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정현 신부(사진)는 환경운동에 있어서 불교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만금 갯벌에서 조계사까지 3보1배를 하며 새만금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현장을 매일 찾고 있는 문 신부는 "새만금이나 북한산,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교계의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불교계 내부에서 그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환경적인 불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문 신부는 "종교와 현실을 연결하는 교육을 종단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회를 바라보는 신도들의 시각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들은 불교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출간 1년 만에 깨어있는 지성인의 필독서가 된 현대경전!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있는 것보다는 없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을 하나 들라면,
첫째로 '종교'를 들어야 할 것 같다. 모든 종교집단이 한결같이 표방하는 것이
'사랑'과 '자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개 그것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보통의 경우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는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다만 새로운 분규의 시작일 뿐이다."

大愚 지음 | 값 15,000원

화엄(華嚴), 양자역학, 절창 禪詩와 선문답이 어우러져 완성한 마음의 유전자 지도!

- 300,000km/sec의 절대속도는 정지 상태와 다르지 않다
- 모든 수이 0을 곱하면 왜 0이 되는가?
-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위치'만 있다니?
- 이 우주에는 '지금'도, '먼저'도, '나중'도 없다
-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 항상 반쪽이면서 동시에 늘 꽉 차 있다.
- 불보살을 공경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121-86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3동 627-5 전화 02-365-5051 팩스 02-313-2729 E-mail editor@hyeonamsa.com 사이버 철학 카페 www.sophie.co.kr 사이버 법정 www.i-solomon.co.kr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꽃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8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화보 1



환희의 빛으로 물든세상…

손에는 연등 마음에는 평화 꽃 피우며 '얼~쑤'
외국인 불자 관광객 성황 어엿한 세계인 축제

5월 4일 서울 동대문 운동장과 종로, 우정국 일대에서 펼쳐진 불기 2547년 봉축법요식 및 연등축제에는 지난해보다 5만여 명이 늘어난 20만 명이 참가했다. '사스(급성호흡기 증후군)'로 참가인원이 적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는 달리 외국인 불자, 관광객이 2만여명이나 참석해 어느 해보다 성황을 이뤘다. 연등축제는 이제 어엿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연등축제는 이라크 전쟁의 아픔을 씻고 평화와 자유를 발원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란 테마와 평화의 염원이 어우러져 훈훈한 속에도 엄숙함과 인간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돋보인 축제였다. 제등행진에서 선보인 장엄물들도 평화와 상생의 '빛'을 전했고, 축제 참가자들은 부처님의 자비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길 기원했다. 5월 4일 전국을 자비와 환희의 물결로 수놓은 연등축제 현장을 사진과 뒷얘기로 엮었다.

연등축제 이모저모

내빈, 탑골공원서 제등 행렬에 환호

○…봉축행사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등 주요종단 대표를 비롯 조계종 총무부장 성관, 전 총무부장 원택, 조계사 주지 지홍,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김광삼 현대불교사장,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 등은 제등행렬 참가자들이 단상 앞을 지나가자 시종일관 박수를 보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원주 소재 새마을에서 온 장애인들과 솜분 상이암붓 주한 태국대사 행렬이 지나가자 직접 거리로 나가 손을 맞잡았다.

대구 지하철 참사 딛고 새출발 기원

○…올해 대구지역 연등축제는 예년과 달리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등 불교종단이 모두 참석, 한마음 한 뜻으로 지하철 화재 참사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기원하는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연등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두류운동장에 모인 1만 5천여 명의 사부대중에게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만인만발 무차공양'을 베풀어 주목 받았다.

태국, 연등축제 첫 참가 황실마차 눈길

○…올해 처음 연등축제에 참가한 태국대사관은 2~4일 우정국공원에 자리를 잡고 각종 공연과 먹거리를 제공,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등행진 때에는 황실마차를 앞세우고 3000여명이 행렬에 동참,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돋웠다. 직접 행렬에 참가한 쏨분 주한 태국대사는 "대표단의 선두에서 참가자들을 이끄는 정상을 보였다.

첫 선보인 줌마민족네트워크 한국지부

○…"연등축제에 처음 참가해 너무 기쁩니다. 행사 진행보다 구경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올 연등축제에 첫 선을 보인 줌마민족네트워크 한국지부, 구성원 90% 이상이 불자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치 · 종교적으로 박해 받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참가한 이들은 축제에서 줌마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전과 자치권 보장 및 난민 허가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서명서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

구룡사 5년만에 감격의 외출

○…서울 구룡사는 주지 정우스님이 1998년 종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후 5년간 연등축제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 축제에는 사면에 대한 종단적 노력에 힘입어 1천 5백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동대문운동장으로 출발하기 전 정우스님은 신도들에게 "5년만의 외출이라 눈이 부시다. 여러분이 일산의 역할을 해 주시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신도들 보다 늦게 동대문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신도들은 입제히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우리가 스님의 일산입니다!" 그리고 몇 신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젊은 불심모은 댄스 경연대회

○…젊은 불심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역시 제3회 파라미타 청소년 경연대회가 열린 밀레니엄 플라자 특설무대. 대부분 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18개 팀이 예선에 참가, 12개 팀이 본선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문화관광부장관상이었던 최고상(금상)이 '입시에 영향을 주는 행사를 지원 못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국학원 이사장상으로 한 단계 격하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사스' 우려속에 국제불교마당 성황

○…'사스' 공포로 참석자 수가 적을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불교문화마당이, 태국 불교 등 '국제불교마당'으로 인기몰이에 나서면서 예년과 비교해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참가했다. 우정국 마당에 자리를 잡은 태국 연등축제 마당과 불교 전통춤, 황금마차는 단연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한 외국인 등 만들기, 템플 라이프 소개, Club25 및 WFBY Korea 안내 코너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외국인이 참석했다. 네팔 민속춤, 대만 무용 공연, 티베트 삶의 현장, 인도 문화 체험 코너에는 내국인들의 동참이 늘었다.

프로그램 식상, 공연문화 발굴 아쉬워

○…불교문화마당에서 펼쳐진 두 군데의 공연마당 프로그램이 태국 및 대만 무용 등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식상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타악 퍼포먼스, 봉산탈춤, 풍물공연 등 전통 불교문화가 아닌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프로그램 등은 제외하고 천불가, 불교무용 등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연문화를 선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라크 침략, 북핵 관련 행사 큰 호응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북한 핵 위기 탓인지 올해 불교문화마당에는 '평화'를 주제로 한 행사들이 눈에 띄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기아와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라크 어린이들의 참상을 모은 사진을 전시하며 '이라크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벌였고, (사)좋은벗들은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촛불'과 한반도 평일을 염원하는 '평일솟대' 만들기 행사를,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북한이탈주민 돕기 바자회를 벌여 불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보다 즐거울순 없다
연등축제는 남녀노소도, 종교적 편견도 뛰어넘는 국내 최대의 잔치마당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너와 나의 벽을 허물고 인간 본래의 청정함으로 살기를 염원하며 내 가족이 부처이고 내 이웃이 부처이며 이 땅이 극락임을 확인하는 연등축제. 환희하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극락의 꽃이다.

반야심경반지
국내 최초로 제작된 반야심경반지
18K Gold 폭 8mm
반지 내부에는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정밀하게 각인(양각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반야심경 270자가 각인된 반지를 변천 보승
■ 입금계좌 131-01-368761 예금주:(주) 엑스피아 금액: 198,000원 ■ 인터넷주문 http://www.xpialand.com으로 오시면 제품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엑스피아 문의및신청전화 ☎031-382-3719, 080-382-3719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무문전약 : 02)720-8829 / 유통불 : www.sanchon.com

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1)724-1185~6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화보 2

"이제 이땅은 불국토입니다"

전쟁의 아픔 씻고 평화·상생의 '빛' 전해
참가자들 부처님의 자비로 갈등해소 기원



한몸·한생명의 서원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온 인류가 한 몸이며 한 생명임을 상징하는 동자승이 연꽃에서 탄생하는 순간 4만여 불자들은 환호를 아끼지 않으며 인류의 상생과 깨침을 서원했다.

지부, 구성원 90% 이상이 불자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치 · 종교적으로 박해 받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참가한 이들은 축제에서 줌마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전과 자치권 보장 및 난민 허가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서명서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

"5년만의 외출이라 눈이 부시다. 여러분이 일산의 역할을 해 주시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신도들 보다 늦게 동대문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신도들은 입제히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우리가 스님의 일산입니다!" 그리고 몇 신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essential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빠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가관지천식, 춘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봉축법어(요약) 오늘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탄생되는 날

한마음 밝게 가지면 정토의 길



법전 조계종 종정

모든 생명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을 갖추고 있고 만물은 일심(一心)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모든 진리의 원천입니다. 마음에서 만유가 비롯되어 우주법계를 이루었고 범부는 마음을 깨달아 각지(覺地)에 올라 성인이 되었으니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본이며 만 가지 악행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세간을 뛰어넘는 문도 마음에서 열리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도 마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 생명은 제각기 아름다움을 빚어내고 법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원불변합니다.

자성은 밝고 신령스러워 미혹도 깨달음도 없으며 마음은 본래 이루어져 있어 생멸이 없으며 우주의 본원이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고 진속(眞俗)은 평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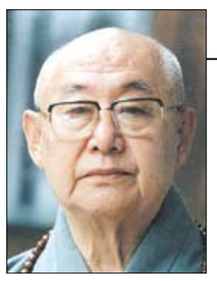
부처님은 생멸이 있는 곳에서 법신(法身)을 이루어 다시 만물 속에 그 모습을 나투고 있으니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시방법계가 보리의 도량입니다.

마음 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산하대지(山河大地)와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삼천대천 세계가 우리들의 본래면목이며 법신체(法身體)입니다.

한 생각 어둡게 가지면 전도(顚倒)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한 마음 밝게 가지면 정토의 길이 열려 눈 먼 거북이는 종(鍾)을 쳐서 천안(千眼)을 이루고 앞산 뻐꾸기는 겁외가(劫外歌)를 부를 것입니다.

참생명 되찾아 너와 나 하나되길



덕암 태고종 종정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일체중생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함안환희(咸安歡喜)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것은 중생의 무명과 미혹을 없애고 명정(明淨)하고 무애자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의 미혹은 사물이 실재하고 구원하다고 믿는 전도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전도된 생각을 통해서 망집이 생기고 망집과 번뇌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유컨대 요즘사람들은 쉽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서도 행복을 바라고 타인의 불행은 못 본체 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그릇된 사조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인행을 닦지 않고 과덕을 얻으려는 것은 심지않은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자신의 안일과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고통과 처지를 간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삶의 태도는 일체만물이 상의상존적 연기의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여의고 인류의 숙제인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지나친 욕망과 집착을 조복하여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누구나 청정무구한 본래의 참생명을 되찾고 나와 너, 자연과 우주가 하나되는 범아일여의 삶을 사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평화·상생의 세상 하루 속히 오길



법장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명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확산되어가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남북간의 평화공존 문제, 환경오염, 집단간의 이기심, 세대간의 괴리 등 이러한 오늘의 현상들은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체중생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물코처럼 얽혀 있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존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임을 알고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 몸같이 여기면서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스런 부처님 오신날 우리 모두는 미혹의 어두운 무명을 걷어내고 오늘 밝힌 연등 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족은 화목하고 사회는 안정되며,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가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밝고 맑은 세상되게 등불을



홍파 관음종 종정대행

부처님은 룸비니 꽃동산 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은 온갖 번뇌와 고통을 몸소 실천하시며 도를 이루시어 한평생을 중생제도에 몸바쳐 오셨습니다.

생노병사의 인간적 고뇌와 고통을 벗어나는 길과 생명의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업력으로 더럽혀지고 물들어 있습니다. 본래의 한생명의 마음을 찾으라 하신 크신 뜻을 알아야 맑고 청정한 법신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본래마음을 회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요 정진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것은 사바에 물든 온갖 번뇌와 업장을 가볍게 하고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나를 비롯해 주변과 세상을 밝고 맑은 세상되게 등불을 밝히는 서원의 날입니다.

지혜의 등불, 자비의 등불, 생명의 등불을 밝혀 온 세상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갑시다.

수행의 삶 다짐하는 날



혜안 보문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께서 인류 정신문명사의 대전환의 개벽의 문을 여신 날입니다. 과거 연등불로부터의 수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올려퍼졌던 탄생게는 깨달음과 자비행의 두 가지 이념적 축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일관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우리의 어버이요 우리는 부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 즉 여래의 씨앗으로서의 불자의 참 모습을 열어 보여주고, 깨달아 증득시켜 주고자 하는 일대사인연으로 몸을 나투셨던 것입니다.

불자란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가르침의 교화로부터 태어나 불법의 몫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자녀에게 어른으로 장성하는 기나긴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불자들은 '나'라는 에고(Ego)의 중생지견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정념으로 지켜보는 회광반조의 기나긴 수행의 삶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날로 이 날을 맞이합시다.

불법펴는데 일심으로 노력하라



동광 총화종 종정

세존출세(世尊出世) 대광명(大光明)

비여일출(比如日出) 대천계(大天界)

세존이 이 세상에 오시니 천지가 다 밝아 마치 해가 돋는 것과 같고 온 세계를 비추네.

구제중생(救濟衆生) 만인락(萬人樂)

불법홍포(佛法弘布) 일념력(一念力)

중생을 다 구제하면 만사람이 즐거우니

불법을 펴는데 일심으로 노력할 지어다.

은혜갚는 마음·보리심 갖자



록정 총지종 종령

"무릇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키고, 은혜를 갚는 자는 마땅히 일체중생을 가르쳐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보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응당 은혜 갚는 행동을 실천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제일의 일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 불자들이 쉬임 없이 실천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크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설한대로 행하는 자는 능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불제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연기적 공존의 지혜 배워야 할때

도용 천태종 종정



생명은 존엄하며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정보'가 존재를 압도하는 인간 존엄의 상실은 이 시대의 새로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생존 의지와 개인의 자유라는 허울을 둘러쓴 무한대의 욕망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충돌하는 문명의 탁류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기적 생존의 욕구에서 연기적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으며 전체는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나누어 가질 때, 부처님의 거룩한 탄생은 지금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꽃은 산 앞에서 웃으며 천기를 누설하고
새는 숲 밖에서 지저귀며 진리를 노래하네.
낱낱이 다 스스로 무궁한 뜻이 있으니,
알고 나면 그 근원을 만나지 못할 곳이 없으리라.
화소산전설천기(花笑山前洩天機) 조가림외화무생(鳥歌林外話無生)
두두자유무궁의(頭頭自有無窮意) 득래무처불봉원(得來無處不逢原)

자성불 밝혀 맑은 세상 이룸이라

혜일 진각종 총인



법신불의 광명은 온 누리에 변함 없건만
탐진치에 물든 마음 광명을 덮는도다
녹야원에 석가모니 오신 뜻은
자성불을 밝혀 맑은 세상 이룸이라.

오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의 화신으로 세상에 나투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성불을 밝혀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갈등의 세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 대원력과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을 발휘합시다. 본래의 자리, 자성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가 안락과 평화가 깃든 세계를 맞이합시다.

우리 모두 내 안의 부처를 자각하고 너 안의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슬기로운 자비심을 가집시다.

꽃비 내리는 부처님 오신날! 지난날의 탐진치를 눈물로 참회하고 내 안의 부처를 대오각성하여 새롭게 부처님 오심을 온 인류와 함께 맞이합시다.

지혜와 자비광명 온 누리에 드러내니
나뭇잎도 꽃잎도 모두가 광명이로다.

법어전문은 buddhnews.com에서 읽을 수 있으며 나머지 종단지도자 법어는 421호에 싣습니다.





8일 길상음악회 열어

법정 서울 길상사 회주는 8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5회 길상음악회를 개최한다. (02)3672-5945

일주문



옥조근정훈장 받아

이원주 전 명성여고 교장은 4월 24일 교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정각원 개원법회서 법문

현성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는 6일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정각원 점안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삼광 효행상 시상 · 경로잔치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4월 28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제9회 삼광효행상 시상식 및 제13회 삼광경로 잔치를 개최했다.



세종문화회관 사업본부장에

이강렬 불교인권위원회 국제분과위원장은 1일자로 세종문화회관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원

각현 (사)연꽃마을 대표이사는 1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서울광명의원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천안경찰서, 봉축법회

법혜 충남 천안경찰서 경승실장은 4월 30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蓮차 그릇 도예전 열어

김기택 대구공업대학 교수는 4월 28~3일까지 연(蓮) 차 그릇 도예전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주최로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서 열었다.



2003년도 강원 경승총회

원행 강원지방경찰청 경승단장은 4월 25일 춘천 베어스타운 대연회장에서 2003년도 경승총회를 개최했다.



불교방송 개국 13주년 법회

김규칠 불교방송국 사장은 4월 30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개국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용연사서 신수회 수련회

이남숙 신수회장은 17~18일 1박2일간 대구 용연사에서 정기 수련회를 개최한다. 016-265-6258

"문화재 정책 종단 적극 참여"

문화재위원에 위촉 현고 스님



지난 4월 26일 문화재 보존관리 등 주요 정책을 심의 · 결정하는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에 새로 위촉된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의 첫 마디는 "숫자적인 측면(스님 2명)에서는 아쉽다"는 것이었다. 때문이다.

현고 스님은 "그동안 문화재 정책과 관련해 불교문화재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종단 내에서 많았다"며 "문화재 정책 수립 과정에 종단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님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에 참여하려면 아무리 스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 그만한 분을 찾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스님

스님들 문화재 전문지식 갖춰야

국가지정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이고 조계종이 국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불교문화재 특히 건조물문화재나 동산문화재의 경우 스님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신앙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재와는 구별 되는데, 문화재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들 스스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먼저 해나가야 한다."

현고 스님은 지난 2000년 전남문화재연구원을 발족해 이끌어오는 등 불교건축과 미술 분야에서도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문화재위원 임기는 2005년 4월 25일까지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아! 큰스님 자수展

구산 스님 23년만에 친견한 감동



전시회 둘러본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장

"저도 평생 자수만 해온 사람이라 이번 전시회를 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지난 79년 '팔상도'를 자수로 제작해 전시회를 가졌을 때 가장 큰 격려를 해 주신 前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의 진영 자수를 보고 23년만에 직접 친견한 것 같아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수연구가 남상민 씨(69 · 한국예절문화원장 · 사진)는 전시회를 본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수는 규방공예로부터 시작해 십자수와 생활자수가 많은데 북한은 기초가 튼실한 전문가들이 만들기 때문에 색채의 조화와 기법이 매우 섬세하다고 남 원장은 평가한다.

"인물을 자수로 놓는 초상자수는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기법입니다. 작품의 구도와 밑그림 등이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투철한 장인정신이 엿보입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남북한 예술가 교역 큰 보람



전시회 주관 이용주 핸드코리아 대표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핸드코리아 이용주 대표(47 · 사진)는 4월 29일 전시회가 끝난 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전시작품 모두 북한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복잡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한 불교와 북한 예술이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대표 자신도 북경에서 작품들을 처음 본 순간 섬세함과 화려함에 매료됐다고 밝혔다. " 언뜻 보니 붓으로 그린 것 같더군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전시회 기간동안 관람객들도 제 마음과 같을 것이란 생각에 그동안 고생이 눈 녹 듯이 사라지더군요."

이 대표는 올해 안으로 문화를 통해 남북한의 불교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민족문화정책연 부산지부 개소



민족문화정책연구소 부산지부(지부장 김종길)는 4월 28일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소식과 함께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성래 변호사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후원회장 대성스님,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여익구 이사장, 여여선원 정여스님을 비롯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통일 · 대구시민 위한 기원법회



대구봉축위원회는 4월 30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남북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조해녕 대구시장을 비롯 지역 신행 · 기관단체장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위원장 지성스님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과 내가 한 뿌리, 한 생명이라는 동체대비심을 발하자"고 말했다.

여불련, 여성지도자 연수교육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4월 21일~22일 전남 송광사에서 '제7회 전국여성지도자 연수교육 및 집단상담교육'을 개최했다. 여불련 각 지부 임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 주제 강의와 집단상담교육, 여성불교 활동을 위한 실무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 여래사 거리연등 점등식



대한불교 원효종 경주 여래사 주지 법경스님(경북종무원 원로원장)은 4월 27일 경주 서천 장군교 390여 미터를 연등으로 장엄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종단 원로스님을 비롯해 신도, 경주시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

성북구청 법륜회 수계법회



서울 성북구청 법륜회(회장 정후시)는 4월 28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수)와 합동으로 '부처님오신날 성북구민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경국사 주지 지관 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을 갖고, 5명의 경찰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법종사 불교대학 1기 수강생 모집

오대산 월정사 서울포교원인 도봉구 법종사가 불자가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터득하는 참여불교의 불자교육을 시작합니다. 간경형식의 기초교리, 발성을 통한 염불교육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 차별화된 불교교육으로 퇴화된 의식을 일깨워 불자 스스로가 진일보하는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 **개 강** : 2003년 5월 23일(금) 오후 2시 / 법종사 천불전 (4층)
- **강의시간 및 내용**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강의내용 : 전반1시간 - 일반기초 불교교리 (간경형식의 교육)
  후반1시간 - 재가불자 염불 연수교육
- **교 수 진**
  ●일반기초 불교교리 : 무주 스님 (법종사 주지)
  ●재가불자 염불 연수교육 : 성마 스님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교수)
- **준비물** : 필기구 - **수강료** : 월별 자율시주
- **대 상** : 불교를 알고자 하는 재가불자, 각 사찰 신도
  ※ 법종사 신도는 의무 수강 (신도 재 교육 의무 수강)
- **접 수** : 수시접수

※ 전 3개월 과정으로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1년에 2기 배출
매 기수 마지막 강의는 오대산 월정사 현해 큰스님의 경전 법회로 마무리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 종 사**

회주 **현해** 주지 **무주**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525-3호 전화 02-905-6666, 995-6777 팩스 02-902-6777

觀 쉴 줄 아는 지혜

禪은 觀行이다.

이 책 "관은 쉴 줄 아는 지혜"는 반야심경을 수행의 관점에서 해설한 것으로 기존 반야심경들이 문자의 뜻만을 해석하 것과는 다르다. 이책에서는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써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내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쓰는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했다.
정신적 방황을 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보다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밝혀서 넉넉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조화로운 삶을 통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지침서이다.

반야의 새는
조견의 법을 머리로 삼고
각성의 법을 몸통으로 삼으며
오온의 법과 개공의 법을 양 날개로 삼아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날아간다.

도서출판 **연화**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1리 887-2 (054)682-1042. (054)682-8145
이책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성실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김춘기(054)682-1042 (http://www.kwan.or.kr)

조계종 중앙·전국신도회

4월29일 통합선언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사단법인 전국신도회가 4월 29일 통합을 선언했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통합 선언문을 통해 "전국신도회의 역사와 전통을 중앙신도회의 조직과 사업 속에 구현하는 조직통합으로, 자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한국불교 신도의 구심체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백창기 중앙신도회장과 선진규 전국신도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추진위는 향후 △신도회 위상과 역할 강화 △양 신도회의 역량 극대화 △지도역량 강화 등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양 신도회는 6월부터 각 단위별 간담회와 조직 개편작업에 들어가며, 9월 중앙종회에서 관련 종법령 개정안을 상정한다. 9월에는 양 신도회 대의원들이 참가하는 통합대의원 연수가 열리며, 10~11월중 공식 통합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하루세번 공양게 암송을

불교여성개발원, 캠페인

'부처님, 이 음식에 깃든 공덕을 감사히 받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이하 개발원)이 음식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공양게를 간결하게 다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캠페인을 펼친다.

4월 7~27일까지 공양게를 공모한 개발원은 공모된 문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양게를 지었다. 개발원은 새로운 공양게를 식탁에 붙여 놓을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해 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불자들에게 나눠줬다. 공양게 홍보물은 경기대 시각디자인학부 교수이기도 한 이인자 원장이 직접 디자인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 밑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보드가야=남동우 기자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 死境

유황램프 가스가 광합성 방해

영양실조·해충감염 피해까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었던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인도 파트나 농업리서치센터는 최근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에 있는 보리수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실험테스트를 거친 결과 유황램프로부터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나뭇잎에 얇은 층을 형성, 광합성 작용이 저하돼 영양실조에 가까운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무가 연약해지면서 해충의 감염도 심해져 나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파트나 농업리서치센터 지역국장 아닐 쿠마싱은 "지난해 6월 마하보디 사원의 보리수 잎이 까맣게 변한 뒤 문제를 알게 됐다"며 "나무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파트나 농업리서치센터는 마하보디 사찰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오염과 감염으로부터 나무를 구하기 위한 치유 조치로 △정기적인 가지치기 △유황램프 사용금지 △2주에 한번 살충제 사용 △로션 사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리수 수령은 110년으로 2500여년 전 나무가 6번째 재생된 것이다. 인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세운 아쇼카 대왕(기원전 268-232)이 보리수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기도 했지만 이후 힌두교 광신도들에 의해 여러 번 잘리고 태워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자랐다. 현재 보리수는 3세기경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로 옮겨진 것을 100여년 전 마하보디 사원 측이 묘목을 가져와 심은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2002년 6월 마하보디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 도굴·훼손

올들어 두번째 발생, 탑신 크게 부서져

보물 188호인 경북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이 도굴 미수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4월 26일 관덕동 삼층석탑의 2~3층 몸돌(탑신)이 해체돼 땅에 내려져 있고 1층 지붕돌(옥개석)이 3분의 1가량 밀려나온 것을 한 마을주민이 발견, 의성군청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도굴꾼이 도굴을 시도하다 탑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도굴 미수로 훼손된 것은 지난 3월 전남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57호)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관덕동 삼층석탑은 이층기단 위에 세운 삼층석탑으로 아래쪽 기단에는 비천상이, 위쪽 기단에는 보살상과 사천왕상이, 1층 몸돌에는 보살상이 새겨져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이다. 지난 2000~2001년 해체 보수할 당시 탑 내부의 사리공(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몸돌에 파 놓은 구멍)을 확인했으나 유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형진 기자



◇훼손되기 전 관덕동 3층석탑.



◇탑신이 크게 부서진 모습.

새만금 생명 평화의 날

덩닥기공연 등 행사 펼쳐져

새만금 삼보일배 32일째인 3일 충남 천안역에서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천안지역 길놀이 '덩닥기'의 공연,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의 시낭송 등으로 이뤄졌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노선재검토위는 면피용?

남동우 (취재1부 기자)

릴레이 단식기도 회향식이 있었던 4월 30일.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 내원사 산감 지율스님 등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현고스님은 문 수석에게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 시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 가치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문 수석은 "북한산 관통도로 등은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된 만큼 청와대가 쉽게 개입해서 조정하기 어렵다. 불교계 요구로 공사 중단과 노선재검토위원회 설치가 이뤄진 만큼 재검토위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얼핏 들으면 타당한 말이기도 하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청와대가 함부로 결정할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문 수석이 청와대 회의가 있다며 만난 지 15분 만에 자리를 뜨자 현고스님은 대통령 비서실 남영주 국장에게 "당선 전 공약은 차치하더라도 당선 후 1300여 스님들 앞에서 한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스님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산 관통도로 등의 문제가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자칫 '용두사미' 또는 '면피'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속철도 백지화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원로회의 유시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공약이라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 마음에 늘 푸른 소나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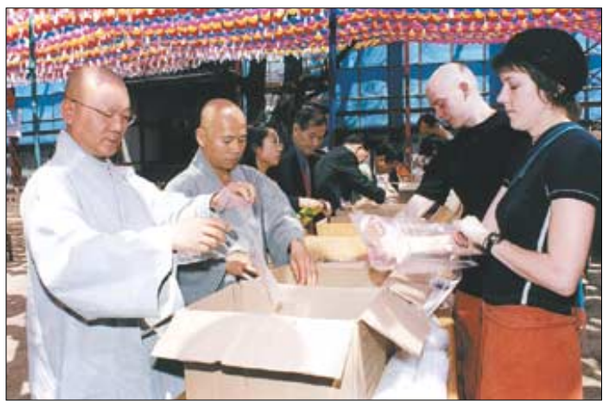
"아이들 마음에 늘 푸른 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바로 지금 환경을 살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릴레이 단식기도 회향

노무현 정부의 환경친화 정책 추진과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 조계사 앞 천막에서 진행됐던 릴레이 단식기도에 참여한 성훈스님(동학사 학인)의 동참 소감이다.

지율스님(내원사 산감)의 38일간 단식에 이어 3월 14일부터 원택스님(녹색연합 공동대표)등 총 68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릴레이 단식기도가 70일째인 4월30일 회향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의 선물 받으세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법당과 교도소 등에 자비의 선물을 보낸다. 사진은 4월 29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템플라이프 참가자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禪
참 선 교 육 (선수행입문서)
♪♬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裁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시 음식, 선사 백문 백답, 진제선사 수행문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신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선사 백문 백답, 원담선사, 정일선사, 영명선사]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1대 ~ 80대까지 스님 일대기 (415쪽)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 1질 4만 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禪) 낱권 판매 가능 (15,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 선방안내 : 하안거 5월 15일(음 4월 15일) 부터 90일 ◆ 안거비 : 9만원

육 법 등 (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총지종

도제양성·사회복지 강화

교화활성화 위한 종단발전책 수립나서

승직자·종무원·교도자녀 교육비 지원

괴산소재 수련원 양로시설로 개조

불교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이 도제 양성과 사회복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종단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선다.

총지종은 4월 25일 승단총회를 열고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종단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종단 승직자(스승)와 종무원의 박사과정까지의 교육비 지원을 결의했다. 또 의제 변경, 시설 개보수 등 종단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내실 다지기에도 진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총지종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안 마련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확충, 복지재단 지원금 확대, 후원회원 모집활동 강화 등에 나선다.

이의 첫 사업으로 현재 종단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북 괴산 소재의 수련원을 교도들을 위한 양로시설로 운영한다. 80여명의 교도를 수용할 수 있는 괴산 수련원은 오는 7월경 지진불사(기공식)를 열어 시설 개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단 사찰 내 유휴 종교시설의 사회복지 시설 전용도 추진된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사회복지재단의 종단 전입금 확대와 재단의 수익사업, 후원회원 모집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단의 인재 양성을 위해 종단 귀의를 조건으로 승직자(스승), 종무원, 교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대학, 대학원 등 일반교육기관에서의 받는 교육의 경우 박사과정까지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종단내 교육기관은 전액 장학금으로 대치된다. 도제양성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교육비 지원은 원의회(종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승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사회복지활동 강화와 도제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설문결과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사회참여 활동 부진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종단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총지종 관계자는 "사회복지재단의 역할 부족 등으로인해 종단의 대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종단 위상이 현저히 낮아진데다가, 종단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면서 "통리원과 사회복지재단에서 인재양성과 사회복지활동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일붕선교종도 4월29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종단 비상특별조치 종령을 선포했다.

법인기능정지, 비상종단 출범

일붕선교종, 서울시에 허가취소 요청키로

일붕선교종(총무원장 법췌)은 29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의 모든 기능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종단비상특별조치 종령을 선포하고 비상종단을 출범시켰다.

종정 봉암스님 명의의 비상조치 종령에 따르면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의 모든 종무행정 중지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의 총무원장 및 각 원장 등 직책 면직 △총무원내 비상종단을 개원, 비상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붕선교종은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은 설립목적을 상실했다"면서 서울시 재단법인 허가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53사단 신교대 법당 낙성

천태종은 4월 30일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대 군법당인 호국흥국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 한민구 53사단장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천태종이 건립 비용 전액을 출연해 건립된 호국흥국사는 330평 2층 규모로, 대웅전과 요사, 장병 휴게실 등을 갖추고 53사단 신병교육대대 입대 장병과 기간병의 신행,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동종, 법계품수·금란가사 고불법회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4월 25일 서울 평창동 청련사에서 법계품수 및 금란가사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종정 지명스님에게 대선사 법계가, 총무원장 심월스님 등 5명에게 선사 법계가, 법공스님 등 8명에게 종덕 법계가 품수됐다. 이어 조동종은 이날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수할 금란가사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양복서 한복으로 총지종 의제 바꿔

사감원장 법성종사 인준

종의회부의장 원송대정사

총지종은 4월 25일 서울 총지사에서 정기 중앙종의회를 열고 의제법 개정안과 사감원장 및 위원 인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의제법은 승직자들의 정복을 양복에서 한복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중앙종의회는 또 새 사감원장에 법성 종사(사진 위)를, 사감위원에 지공 정사, 지광 정사를 위촉했다. 그동안 결원 중이던 종의회 의원에 수증원 지수, 원송 대정사, 수현 정사를 선출하고, 원송 대정사(사진 아래)를 종의회 부의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사감원장 법성 종사는 85년 법사 법계를 품수한 이래 중앙종의원, 총지사 주교, 사감위원, 통리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원송 대정사는 90년 총지종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했으며, 중앙종의원, 전당건설위원, 서울경인교구장, 통리원 총무부장, 통리원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포교원장 지덕·기획실장 법공스님

조동종 인사 단행

대한불교조동종은 4월 25일 포교원장에 지덕스님(화성 연화사 · 사진 위)을 임명했다. 또 신설된 총무원 기획실 초대 실장에는 전 포교원장 법공스님(서울 금룡사 · 사진 아래)이 임명됐다.

지덕스님은 1957년생으로, 75년 천태종 대충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대구 대성사 주지, 화성 연화사 주지,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법공스님은 40년생으로, 76년 경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총무원 사무총장, 포교원장, 서울교구 종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포교원장 지덕스님은 "종단의 이념과 사상을 널리 구현할 수 있도록 포교정책 개발과 소속 사찰 주지의 포교 마인드 교육 등 종합적인 포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게시판

행사 ▲(사)우리는 선우는 5월 10일까지 서울 장충단 공원과 동국대학교 입구에서 자비의 등 행사를 벌인다. 또 환경과 평화, 인권 등을 주제로 한 사진전도 곁들여진다. 수익금 일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02)2278-8672~3

▲광주불교교육원은 25일 제64차 불교문화 유적 답사를 대구 팔공산 일대로 떠난다. 답사지는 동화사, 환성사, 신월동3층석탑 등. (062)228-9098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 서울 은평구 갈현1동 어버이회관에서 지역경로당 효도잔치를 벌인다. 또 12일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4거리와 물빛공원에서 '가족 사랑! 어르신 공경!'이란 주제로 거리캠페인도 벌인다. (02)385-1351

▲자양사회종합복지관은 17일 한강뚝섬유원지에서 제2회 가족과 함께 행복 찾기 행사를 벌인다. 사생대회, 이색 커플마라톤, 도예 및 전통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 5천원. (02)458-1664

모집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이 · 미용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시간은 주 1회,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02)929-7950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물리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용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대상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02)571-2988

▲문화답사 모임 '터 사랑'이 11일 경기도 축령산 들꽃기행을 떠난다. 안내는 한국수생식물연구소 오병훈 소장이 맡는다. 출발은 당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양재역. (02)725-1284

구인 ▲서울 삼성동 봉은사는 신입 종무원을 모집한다. 분야는 사회복지(대사회사업 포함) 및 문화 사업이며, 응시 자격은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졸이상 학력자, 사찰 종무행정 유경험자 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우대한다. 접수는 15일까지며, 제출방법은 우편 또는 직접 내사. (02)511~6070-4

이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동북아평화연대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혜명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4-7070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진각종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비로자나 청소년협회(회장 혜명)는 17일 오후 3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댄스경연대회는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대구지부가 주최하고 심인중 · 고등학교가 주관해 열린다.

총화종

보살계 수계법회 개최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29일 홍천 연화사에서 전국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전국 소속 사찰 주지 및 신도들이 참여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는 영산재와 수계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031)591-7710

원융종

평화통일 기원 수륙재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29일 오후 1시 여주 신륵사 남한강변에서 남북 평화통일 기원 및 영가 천도 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창종 23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수륙대재는 전통 영산재 의식으로 진행된다. 종정 일공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송산스님, 총무원장 법륜스님 등 종단 간부와 중진스님 등 신도 5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02)853-0431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명예대통정 신인왕 대종사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대 통 종 배일공 대종사 (대한불교원융종 종정)
부 통 정 김무찰 대종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유법수 대종사 (한국불교미륵선종 종정)
하청하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종 종정)
부 의 장 전석봉 대종사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박정암 대종사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총 정 석가산 대종사 (삼보조계종 종정)
감 사 김지산 대종사 (한국불교정토종)
이 사 강법광 대종사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천혜지 대종사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정덕산 대종사 (대한불교천지종 종정)
석일강 대종사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김범렬 대종사 (용화불교 교령)
이혜철 대종사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최의천 대종사 (대한불교선화종 종정)
강월인 대종사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박청원 대종사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송 산 대종사 (대한불교해동종 종정 직대)
김총태 대종사 (진언불교 주교)
석지일 대종사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종정 직대)
사무총장 서병렬 총무부장 윤법성

서울시 중구 순화동 6-17 혜명빌딩 6층
Tel 02)756-1227 Fax 02)774-1487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 재 안덕암
이사장 강혜원
임 원 호암, 대명, 전란, 권용득, 최유수, 강화순, 한연선, 한동국, 이홍표, 정미경
주 지 법성
나란다삼장불학원 · 기로의집 활안(한정섭)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장 김호암
한국불교예술대학장 김해강

계간 세계불교
사 장 보현 편집인 한수갑

월간 금강법보
사 장 김기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Tel 02)969-2410, 4891 Fax 02)969-2433

성남불교 총연합회

회 장 윤록봉
수석부회장 이지관
부 회 장 강시용
박성현
차기월
사무총장 지 웅
총 무 무진법사
감 사 김도은 법사

회원일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산 85-1
TEL 031)734-7809(삼보사) 031)751-7997(총무)

성북구 사암연합회

회 장 정 수
간 사 정덕행

성북구사암연합회
회원일동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5가 411번지
TEL 02)927-1232

강원지역 사찰 44% '6·25 피해'



◇한국전쟁 직후 월정사 모습. 전체 22동 가운데 21동의 건물이 불타버리고 팔각구층석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조계종, 조사보고서

불교문화재도 절반이상 멸실

한국전쟁 당시 강원지역 사찰의 44%가 직접적 피해를 입었으며 불교문화재도 절반 이상이 멸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Ⅰ-강원도편>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한국전쟁 당시 불교문화재의 피해 과정과 형태, 내용, 가해 주체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지역 38개 사찰과 7개 폐사지가 한국전쟁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일제시대 때 나온 본·말사지와 조선총독부 관보와 비교해 볼 때 강원지역 전체 사찰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구나 건봉사, 월정사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큰 사찰들이 모두 전소되거나 폐허화된 사실에 비춰볼 때 문화재 점수로는 절반에서 최대 3분의 2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사를 맡은 문화부 이상규 과장의 설명이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가해 주체가 확인된 20곳이 국군의 소각(14곳)이나 미군 폭격(6곳)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월정사는 국군1군단 사령부의 명령을 받은 민간인들에 의해 소각됐으며 건봉사, 낙산사, 영월 보덕사 등은 미 공군 폭격으로 소실됐다.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한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형태별로 보면 건봉사, 낙산사, 월정사 등 31개 사찰(81%)이 전소됐으며 신흥사, 백담사 등 5개 사찰(13%)은 폐허가 돼 조사대상의 94%가 재생불능의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은 2001년부터 한국전쟁 불교문화재 피해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2003년 경기도와 제주, 2004년 전라남북도, 2005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건봉사·월정사 등 31개 사찰 전소
폭격·소각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충주 숭선사지 사적지정
강릉 굴산사지 지정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주 숭선사지를 국가사적 445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강원도 기념물 11호인 강릉 굴산사지를 사적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하고 관보에 이를 예고했다. 굴산사지는 30일간의 지정예고를 거쳐 사적으로 정식 지정된다.

충주 숭선사지는 고려 광종이 어머니 신명순성왕후를 위해 세운 사찰로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확인된 고려시대 창건 사찰이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금동연봉장식이 출토된 바 있다.

강릉 굴산사지는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인한 긴급 발굴조사 때 법당터와 승방터, 탑터 등이 발견됨으로써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았다.

한편 국내에선 거의 유일한 일본식 사찰인 군산 금강사 대웅전(1913년 조성)은 4월 24일 등록문화재 63호로 지정 예고됐다. 등록문화재란 사라져가는 근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지난 2001년 도입한 제도이다.

권형진 기자



◇경산대는 4월 29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원효 설총 일연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산시, 세분 성현 기념관 설립

원효·설총·일연 스님 업적 추모

경산지역에 원효, 설총, 일연 삼성현 기념관 설립을 위한 고증 학술대회가 열렸다.

경산대는 4월 29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경산지역 삼성현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열고, 삼성현 기념관 설립과 유적보존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성현 현창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경산문화연구소장 조춘호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원효, 설총, 일연 스님의 생애와 경산지역의 관계에 대해 각각 동국대 김상현, 서울대 안병희, 부산대 채상식 교수가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춘호 교수는 삼성현 현창시설은 원효와 설총, 일연스님을 추모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연구와 문화, 체험 등 부가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불교회화 진수 80점 공개
통도사, 10월 19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문화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후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전을 연다.

'통도사의 불화'를 주제로 열리는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전은 1일 개막식을 갖고, 10월 19일까지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사찰소장 불교 회화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보물 13점을 비롯해 경남 지방유형문화재 52점 등 80여 점의 후불탱, 신중 각부탱, 조사탱 등으로 꾸며질 특별전은 불화명품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특히 보물 1041호인 영산전 팔상탱과 보물 1042호인 대광명전 삼신불탱 등은 조선후기의 통도사 불화의 대표작들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장 범하스님은 "종교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조선후기 통도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다양한 모습을 조명해 보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청년회원이 대형 지구등을 채색하고 있다.

대형 지구장엄물·우주등 선보여
지수화풍의 소중·감사뜻 담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지구 온난화, 심각한 환경파괴, 전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사람의 이기심을 돌아보고, 사람과 지구의 관계를 청년회원들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청년회는 대형지구장엄물, 우주등을 만들며 생명의 근본을 이루는 지수화풍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되새겼다. 수채화 기법으로 채색되어 연꽃 위에 올려진 대형지구 장엄물은 지구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전세계 인류의 평온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전했다.

신진희 회장은 "지구의 문제는 결국 나에게서 출발하는 만큼 생활속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지장발심 점찰기도 법회
대구지장선원 7일동안

대구 지장선원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주지 지공스님이 직접 개발한 간자를 대나무통에 넣어 흔들어 점치는 지장발심 점찰기도법회를 열었다.

점찰기도는 신라의 원광법사가 처음 시작해, 삼국통일 후 진표율사에 의해 정착된 것으로 '지장경'에서 나오는 말법시대 중생교화 및 제도를 위한 기도의 한 방편이다.

박원구 기자

"연등 만드니 부처님 마음 된것 같아요"
미·일·캐나다서 온 외국인 60명 참가

"너무 아름다워요. 연등 만들면서 부처님 마음된 것 같아요."

4월 27일 부산 신창농장내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열린 외국인을 위한 연꽃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팔각등과 연등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사)한나래문화재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의 의미와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연등을 만들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60여명의 외국인이 참석한 이번 연등만들기에서는 연등과 팔각등 하나씩을 만들어 자신이 만든 작품을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심산스님은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을 만나는 인연을 심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울산시, 법회·음악제 봉행
'가족을 부처님처럼' 주제

울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눌암)는 4월 29일 KBS 울산홀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봉축대법회 및 불교음악제를 봉행했다. 불교음악제는 국악인 김성녀씨의 사회로 울산지역 봉축연합합창단의 찬불가, 운문사 승가합창단 지휘자 정율 스님의 공연이 이어졌다.

천미희 기자

'생명에 대안 없다' 주제 토론회

고속철 등 무분별 개발 피해 부각
지율 스님 활동 본격화

단식 이후 한동안 뜸했던 지율스님이 20일경 '생명에 대안은 없다(가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간과되고 있는 생명문제을 부각시켜 생명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다. 간단한 주제발표 뒤에 이어질 난상토론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속철 건설을 비롯 생명의 문제를 등한시한 무분별한 개발이 부르는 폐해와 문제 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율스님은 일주일에 한번 부산시청 앞에서 서명운동, 삼보일배 등 지속적으로 생명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행사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단식 이후 지율스님의 최대 화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토록 하는 것'이다. '초록의 공명' 모임을 만들고 매월 한차례 천성산 산행을 이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님과 뜻을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은 4일, 내원사를 출발, 은방울 군락지를 지나 화엄벌로 이어진 초록의 공명 산행으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천미희 기자

지장발심 점찰기도 법회
대구지장선원 7일동안

대구 지장선원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주지 지공스님이 직접 개발한 간자를 대나무통에 넣어 흔들어 점치는 지장발심 점찰기도법회를 열었다.

점찰기도는 신라의 원광법사가 처음 시작해, 삼국통일 후 진표율사에 의해 정착된 것으로 '지장경'에서 나오는 말법시대 중생교화 및 제도를 위한 기도의 한 방편이다.

박원구 기자

특색있는 경로당 만들기
대구 햇빛시니어클럽

대구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 대구햇빛시니어클럽은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특색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햇빛시니어클럽은 대구시 남구 지역 3개 경로당을 선정, 공동작업장, 뜨게방, 도서관, 건강센타 등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박원구 기자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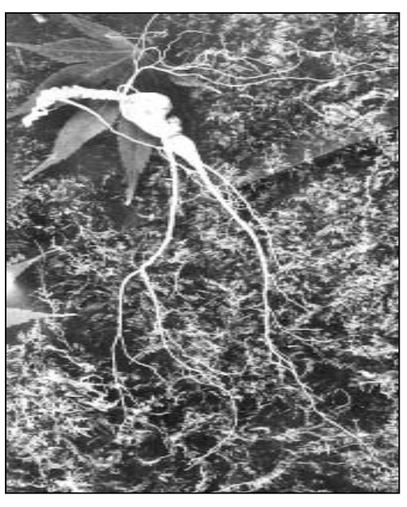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53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산문밖의 선

‘삼귀의’ ‘사홍서원’

작곡가 **최영철** 씨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최영철 씨는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에도 직접 피아노를 치며 13개의 사찰합창단을 지도하는 등 지역의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다. 4월 2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점등식에서 찬불가를 연주하는 최영철 씨와 합창단.



◇언제나 ‘현역’ 이기를 고집하는 ‘찬불가의 개척자’ 최영철 씨. 요즘도 틈만 나면 좋은 찬불가를 만들기 위한 구상에 여념이 없다. 사진= 박재완 기자

“찬불가 열심히 부르면 날마다 좋은날입니다”

24일 충남도청 건물앞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 점등식. 다른 불교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점등식도 삼귀의로 시작해 사홍서원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찬불가로 행사장의 합창단을 이끈 이가 바로 ‘삼귀의’와 ‘사홍서원’의 작곡가 최영철씨(79)다.

찬불가 중의 찬불가랄 수 있는 ‘삼귀의’와 ‘사홍서원’. 이 두곡을 모르는 불자는 없지만 이곡을 작곡한 이가 최영철씨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본인이 작곡한 유명한 찬불가를 듣는 기분은 어떠할까. 32년동안 들어왔지만 매번 ‘신비로운 느낌’이 든다는 것이 최씨의 고백이다.

30년 외길 … 1백여곡 발표

1971년 불교연합회에서 전 불교계가 공통으로 부를수 있는 삼귀의와 사홍서원에 대한 작곡을 현상 공모했을때 최영철 씨는 대전 보문고의 음악교사로 재직중이었다. 종립학교인 보문고의 이재복 교장의 권유로 평소 틈틈이 찬불가를 작곡해 온 그는 두곡을 응모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는, 유명한 작곡가 김동진 선생을 비롯 음악인들과 스님들, 불교학자 등이 골고루 있었다. 응모된 곡을 직접 듣게 하고 투표를 했는데 최영철씨 곡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선후 최영철씨의 찬불가 작곡은 탄력이 붙었다. ‘찬불가’ 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여서 부르는 사람도 없고 곡을 알리기조차 힘들었지만, ‘황무지를 개간하는 마음으로’ 찬불가를 만들었다. 피나는 노력으로 한곡한곡 세상에 선을 보였지만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음악인 범패와 국악, 민요 선율도 응용하는 등 ‘한국적 찬불가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다. 그동안 발표한 찬불가가 1백여곡.

최영철씨는 192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 일본 도쿄 도요음악대학(현 동경음악대)에서 작곡을 공부했다. 54년부터 90년 정년때까지 대전 보문고에 재직했으며 대전관현악단 · 충남대 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를 맡는 등 지역의 음악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4월 24일 가진 음악회에서 연주한 ‘부처님이야기’가 최씨의 대표작.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20분짜리 교성곡이다. ‘부처님 이야기’를 비롯, ‘당신의 미소’ ‘나무 관세음보살’ ‘마음’ ‘목탁소리’ ‘삼각산 마루터에’ 등이 대중에게 널리 애창되고 있다.

최영철씨는 지난 87년과 91년 각각 불교계 최초로 개인 찬불가집을 출판한 기록도 세웠으며 지역에서는 열리기 쉽지않은 불교음악회도 꾸준히 열어왔다.

최영철씨는 평소에는 말이 거의 없다. 그의 찬불가가 곳곳에서 그의 감정을 표현해 주기 때문일까. 그가 만든 찬불가는 그의 성격처럼 간결하고 부르기 쉽다는 평이다.

팔순을 바라보는 요즘도 시간만 나면 오선지를 붙잡고 골똘히 상념에 잠긴다.

“찬불가는 열린 마음, 바르게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들어야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나는 찬불가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찬불가만 열심히 불러도 나쁜 짓 감히 못할 거예요. 저절로 청정해지는 거지요.”

음악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찬불가를 작곡 의도대로 잘 연주해 주고, 듣는 사람도 일체감을 느낄때 참다운 음성공양이 된다. 그럴 때 느끼게 되는 작곡한 사람으로서의 뿌듯함과 가슴에 차오르는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구(警句)도 있잖아요. 작곡이란 혼자서 해야 하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이 노래를 불자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며 예배올리는 정갈한 마음으로 부른다고 생각할 때 조금의 태만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음악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지나치면 그 집착이 곡에 그대로 드러나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오로지 음(音)과 하나될 때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지요. 그것이 불자들에 의해 불려질때 그렇게 기쁠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악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화두로 삼아 밤낮으로 매달린다는 그는 작품을 고치고 또 고치고 마음에 들때까지 손질을 계속한다. 어떤 곡은 6개월 내지 1년을 묵히다가 다시 꺼내 완성한 것도 있다.

최영철씨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을 지향한다. 찬불가를 작곡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자기도취에 말려들어가는 일이다. 듣기 편하고 어디서나 부르기 좋은 노래로써, 부를수록 즐겁고 마음의 때까지 씻긴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좋은 찬불가 많이 나와 생활화되길”

79세면 오래전에 은퇴를 하고 소일거리를 찾을 나이지만 그는 현재 13곳의 사찰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다. 서울같은 대도시와 다르게 음악적 감각이 부족한 점 등 여건이 척박하지만, 그렇기에 쏟는 정성은 더욱 간절하다. 합창단원 대부분이 중년주부이며 아마추어들이라 제대로 된 화음을 뽑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살들이 찬불가 부르는 일을 좋아하고, 지역의 불교음악을 발전시키는 일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즐겁게 하고 있다.

내년 4월, 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최영철 음악회’가 열린다. 30년 넘게 찬불가 작곡의 한 길을 걷고, 누구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최영철씨의 외길 한평생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씨는 이날 발표되는 자신의 곡 연주전체를 직접 지휘할 생각이다.

“불교합창단은 예전에 비해 많아졌어요. 그러나 찬불가 짓는 사람은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능있는 작곡가들이 좋은 찬불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불교계가 적극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도 죽을 때까지 좋은 찬불가 작곡에 정진하겠어요.”

대전=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선객, 영원한 대자유인'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TV 등에서 다양한 봉축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올해 봉축방송은 최근 틱낫한 스님의 방한 열풍 때문인지 국내외 스님들의 수행과 대 사회활동을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불교관련 영화는 그동안 방영됐던 것들을 재편성해 아쉬움을 남긴다.

공중파·케이블TV, 봉축프로 다양

눈에 띄는 다큐 프로그램은 KBS 1TV의 '선객, 영원한 대자유인'과 MBC TV의 '틱낫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 등이다.

KBS 1TV가 준비한 '선객, 영원한 대자유인(8일 밤 10:00~11:00)'에서는 1997년 서울대 출신으로 동시에 출가한 세 명의 스님을 찾아가 이들이 수행자의 삶을 택한 동기와 출가 후의 생활을 조명한다.

까지 매일 아침 7시 40분부터 25분간 방영한다. 또 8일 오후 12시 20분부터는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공연을, 오후 2시 25분에는 지난해 달라이 라마가 주관한 칼라차크라 법회를 다큐 형식으로 재구성해 방송한다.

또한 케이블 채널인 중앙방송 Q채널에서는 '세계로 간 부처(8일 오전 9시)'와 '베스트 다큐멘터리-큰 스승 달라이라마(8일 오후 5시)'를 준비했고, 중앙방송의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티벳의 혼, 달라이라마(8일 오전 9시)'를 방영한다.

한편 11일 오전 6시부터 방송되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만공·한암·성철 스님 등 한국 고승 20명의 진영을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손자수로 형상화한 '아! 큰스님' 전시회를 화면에 담았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다큐 '틱낫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 MBC TV

어린이 '만화 삼국유사' 6일간 방영 불교 TV

MBC TV는 8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특집 다큐멘터리 '틱낫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을 방영한다.

이 프로에서는 지난 4월 방한한 틱낫한 스님의 활동모습과 스님이 이끄는 프랑스의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의 생활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불교TV는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삼국유사'를 5일부터 10일

눈길 세 스님의 출가동기·삶 조명 KBS 1TV



◇서울대 출신의 세 스님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KBS 1TV의 '선객,…'이 봉축 특집으로 8일 방송된다.

★ 방송프로그램 ★

방송사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불교TV	7~10일(07:40~08:20)	만화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나오는 불교관련 설화를 만화로 꾸몄다.
	7일(16:50~18:25)	도올 김용옥 특강	도올 김용옥 씨가 '동북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불교'를 주제로 한 강의 녹화방송.
	8일(12:30~14:20)	특집공연 야단법석	목탁, 목어, 발우 등을 이용한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 공연.
	8일(14:25~16:25)	칼라차크라 1, 2부	2002년 달라이 라마가 주관한 칼라차크라 법회 소개.
	10일(12:20~14:20)	한강연등제 1, 2부	6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불교TV문화원 주최 한강연등제 행사 방송.
KBS 1TV	8일(11:00~12:00)	일요스페셜-법정, 산에서 그를 만나다(재)	강원도 화전민촌에서 은둔 수행하는 법정 스님의 모습을 3년에 걸쳐 카메라에 담았다.
	8일(22:00~23:00)	선객, 영원한 대자유인	서울대 출신 스님 3명의 구도의 길과 가르침을 들어보는 시간.
	8일(10:00~11: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KBS 2TV	11일(06:00~07:00)	뿌리깊은 나무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손자수로 형상화한 고승 진영 20점을 전시한 '아! 큰스님' 전 조명.
KBS 위성	8일(09:00~10:00)	니르바나 실내악단 공연 녹화중계	4월 24일 KBS홀에서 열린 니르바나 실내악단 제6회 정기연주회 녹화방송.
MBC	8일(10: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8일(19:00~20:20)	틱낫한의 평화를 이루는 길	지난 4월 방한한 틱낫한 스님의 방한활동과 스님이 이끄는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의 생활 소개.
경인방송 (iTV)	8일(12:00~)	특선영화 우담바라	소설 '우담바라'를 원작으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치열한 구도 과정을 그린 영화.
EBS	8일(12:00~)	특선영화 사명당	사명당 유정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원음방송	7~8일(16:05~17:00)	부처님 오심을 경축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인터뷰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들려준다.
케이블 중앙방송 Q채널	8일(09:00~10:00)	세계로 간 부처	부처의 가르침이 서구 사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케이블 중앙방송 히스토리 채널	8일(09:00)	티벳의 혼,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스승 달라이라마의 삶을 조명한다.

니르바나 실내악단 연주를 보고



장사익씨 무대 열광의 도가니

교성곡 '부처님이야기'서 절정

4월 24일 KBS홀에서 열렸던 '제 6회 니르바나 실내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진행을 맡았다. 오프닝 때와 곡 연주 사이마다 나가서 음악회의 취지와 연주될 곡을 소개하고는 줄곧 무대 뒤에서 귀를 쫑긋 세웠다. 불교계의 유일한 클래식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의 반주에 맞춰 사물놀이팀인 '한울림'이 들려준 협주곡 '마당'이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강은일씨의 해금 협연으로 연주된 '얼'을 들으면서 원인모를 한(恨)과 흥이 교차됐다. 짧은 휴식뒤에 이은 무대는 열광의 도가니였다. 온 몸으로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씨는 무대와 청중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장씨 특유의 가슴속에서 끌어올려 내질러 대는 풍만한 가창력은 관객들의 끝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왈츠로 열기를 식힌 뒤 연주됐던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성곡 '부처님 이야기'는 이번 음악회의 클라이막스였다. 부처님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이진구씨가 관현악 편성으로 편곡을 했다. 하지만 국악관현악단의 곡을 관현악으로 편성해서인지 합창부분이 약해져 가사의 전달력이 다소 떨어진 것이 옥의 티로 남았다. 물론 연주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곡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합창과 오케스트라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화음을 만들어 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연주자와 관객들이 모두 다 성숙돼 있었다. 특히 객석에서 보내는 아낌없는 박수 소리는 좋은 연주를 이끌게 해 주는데 큰 몫을 했다. 연주회장을 빠져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을 꿋꿋이 인내하며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강형진 단장에게 마음속으로 많은 박수를 보냈다.

<진명스님·BBS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김용윤씨의 '구선동설화'

김용윤씨 도예 초대전

20일까지 불일미술관

작품은 작가의 성격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20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용윤 도예초대전'에서 만나는 김씨의 작품들은 더욱 작가 특유의 뚝배기같은 친근감이 느껴진다.

작품 대부분이 흙과 현대적인 유약이 버무려져 탄생됐다. 특히 유약은

가볼만한 전시회

굵은 소금을 사용했다. 도자기에 직접 바르는 것이 아니라 초벌구이 후 1200도에서 15분 간격으로 가마에 7회정도 뿌린다. 이런 과정을 거친 완성품들이 가마밖으로 나오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다. 투박하지만 오히려 정겹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선동설화'를 비롯해 분청사기, 다기 등 작품과 생활용품 5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항아리모양의 도자기 '구선동설화'는 삼끈으로 양쪽에 손잡이까지 만들어 이채롭다. 또 분청사기는 투명 유약을 발라 구워 속살까지 선명하게 드러난다.(02)733-5322.

조형전 '선으로 가는길'

작품마다 불교내음 물씬

원정 차대완씨의 조형전 '선(禪)으로 가는길'이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7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염주를 든 스님의 뒷모습, 짚신 한짝 오롯이 걸린 아득히 높은 솟대, 목탁, 연꽃,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 등이 소박하고 꾸밈없이 빚어져 있다. (02)724-2236.



◇차대완 作 '스님의 뒷모습'.



◇보광선원장 법인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지도하고 있다.

내 밥그릇 내손으로 빚어요

대불청, '만해 도자문화체험' 행사

"내 밥그릇은 내가 만들어서 쓸 거예요."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이천 걸은 도자체험학교(교장 이성덕) 작업장. 부모와 자녀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천연 염색을 하며 가족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가 개최한 '만해 도자문화 체험' 행사는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맞춰 바람직한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도자기 제작 방법 배우기. 강의는 도자기 전문 제작자인 문병식(31)·이용인(32) 씨가 맡았다. 설명에 따라 박라영(11), 충렬이(13) 남매가 따라 해 본다. 적당양의 진흙 반죽을 떼내어 입자를 고르게 하고 찰흙 가락을 만든다. "어,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뱀 꼬리네." 라영이가 슬그머니 장난을 친다. 눈을 흘기지만 충렬이도 즐겁기만 하다.

다음은 물레로 도자기를 만드는 순서. "반드시 만들기 전에 무얼 만들 것인가 먼저 생각하세요." 이용인 씨가 물레로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지도한다.

난생 처음 물레 앞에 서는 문금옥(51)씨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모처럼 진흙을 만지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소중한 체험을 했다.

여주=강유신기자
사진=박재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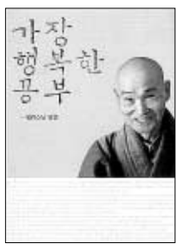


초파일 선물로 좋은 불서들

부처님 가르침·향훈의 감동을…

부처님오신날 이웃, 친지, 벗에게 좋은 불서 한권을 선물하면 어떨까? 그런데 막상 불서를 사려해도 어떤 책을 고를지 망설여진다. 부처님오신날 선물하기 좋은 불서를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추천했다. 교리와 법문, 수필집 등 다양한 종류의 불서들이다. <편집자주>

이시대 선지식의 감로법문



'가장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지음

시공사 / 9천원

40여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지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선지식 청화 스님(곡성 성륜사 조실 · 조계종 원로의원)의 감로 법문을 묶은 책이다.

스님은 감수(感受), 상상(想像), 의지(意志), 의식하는 것 모두가 다 비었다고 분명히 느껴야 참다운 반야지혜가 생겨 올바른 참선공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스님은 '조사선(祖師禪)과 염불선(念佛禪)'이 돼야 올바른 참선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김시열 운주사 대표)

3개월간 결제과정 그려



'선방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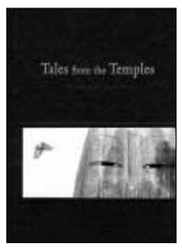
지허 스님 지음

여시아문 / 5천원

선방은 일반인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이다. 선방의 속내를 비공개로 함은 불가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다. 선방의 일과가 솔직 담백하게 실려 있는 <선방일기>는 결제 수행을 마치고 용맹정진하는 선객들의 모습에서부터 소임, 선방의 생태와 풍속, 포살, 해제 등은 물론 3개월 동안의 결제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지허스님이 털어 놓은 선방의 뒷이야기도 이 책의 또다른 맛. 조실스님과 주지스님의 시자(올깨기, 늦깨기)들의 서열다툼, 원주스님 몰래 숯불에 감자를 구워먹는 이야기 등은 책을 읽는 솔솔한 재미를 불러일으킨다.

(박중서 씨앗을 뿌리는사람들 편집과장)

외국인에 절 소개하기 좋은 책



'Tales from the Temples (절집 옛이야기)'

커뮤니케이션 와우 엮음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축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등제가 최고 아름답다고 한다.

산사마다 펼쳐진 심등연화(心燈蓮花)의 장관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면 원더풀을 외친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이 책은 그에 대한 답이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절을 찾으며 자신있게 이 책에 실린 절 이야기를 들려주자. 엮은이의 정성으로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이 책을 선물하는 이의 마음은 훈훈해진다. 전국 주요사찰의 역사와 건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박호상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출판인 추천 자사 불서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선방이야기, 토굴이야기	능인스님	운주사
산문,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우봉규	씨앗을뿌리는사람들
고승열전	윤청광	우리출판사
금강경강의	남회근	문예출판사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김재경	마당넓은집
감산자전	감산스님	여시아문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재스님	디자인하우스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스님	우리출판사
달마 서양으로 가다	진우기	불교시대사

어린이 인기 만화 불서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가격
미소짓는 두 스님	틱낫한	파랑새어린이	8천원
어린이 팔만대장경	신현득	현암사	6천원
어린이천수경	김호성	불광출판부	5천5백원
만화로 배우는 부처님의 지혜	강병호	화남출판사	8천원
법정스님의 슬기로운 동화	법정스님	동쪽나라	8천5백원
내 짝꿍은 빡빡이	박관희	행복한 세상	7천원
왕눈이 스님	정수일	운주사	7천8백원
호랑이 꼬리에 지은절	이준연	대원사	4천5백원
석가모니지혜동화	허순봉	은하수 미디어	8천5백원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양태석	능인	6천원

자기 경험 토대 불교 설명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윤청광 지음

지식산업사 / 8천원

윤청광씨는 이 책을 통해 불교에 대한 무지를 호소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한다.

소설가이며 극작가이기도 한 저자는 자신의 주변 이야기부터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하는 경험을 토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친근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불교를 알면 누구나 욕심도 성냄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 원망도 사라질 것이라면서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라고 목청높여 주장한다. 물론 이 책은 저자의 힘찬 외침에 박수를 보내게 한다. 불교교리가 에세이 식으로 쉽게 설명돼 있다. (안정희 문예출판사 편집장)

한국 선지식 33명 인터뷰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글/ 서화동 · 사진/ 김형주

은행나무 / 1만5천원

한국경제신문사 서화동 기자가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선지식' 33명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前 종정 서옹 · 서암 스님, 해외포교의 선구자 숭산 스님,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 한글대장경 간행의 주역 월운 스님, 석주 스님, 고산 스님 등을 두루 만났다.

평생을 산중에서 수행에 몰두해 온 고승들의 눈에 비친 요즘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무엇보다 자기 그릇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천룡 스님) "자기 목을 뚝 떼어 나무에 걸어놓고 덤비는 용기와 기백, 노력을 가져야 한다"(성수 스님)고 일깨운다. (최희정 마당넓은집 사장)

초기불교 이해에 큰 도움



'한글아함경'

고익진 편역

동국대 출판부 / 1만5천원

<한글 아함경>은 출가 수행자 이상으로 평생 수행에 매진해 온 고익진 박사가 강의자료를 엮어 발간한 경전입문서다. 불교입문서나 불교학개론이 안내서와 같은 것이라면 이 책은 여행을 시작해서 불교경전이라는 길에 들어섰을 때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아함경>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아직까지 불교계에 초기불교나 근본불교를 논한 텍스트가 부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시 대중불교를 이해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원시불교시대의 교리와 설법이 가득 담겨 있어 초기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조동규 책방 여시아문 부장)

마음 다스려 평화얻기



'화(Anger)'

틱낫한 지음 / 최민수 옮김

명진출판 / 8천9백원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 시인이기도 한 틱낫한 스님의 <화(원제:Anger)>는 화내기 쉬운 세상에 어떻게 화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먼저 화를 내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 보라고 한다. 화는 남이 내게 주는 것이지만, 화를 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 화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더라도 내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용서도 화풀이의 방법이다' 등을 구절구절 마음에 새겨둘만 하지 않은가. (최창엽 디자인하우스 광고부장)

시·옛날이야기 같은 법문



'절간이야기'

오현 스님 지음

고요아침 / 9천원

백담사 무금선원 회주 오현 스님이 펴낸 <절간이야기>는 시력 35년에 걸친 스님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독특한 시세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에는 시 같기도 하고, 옛날이야기 같기도 하며, 법문 같기도 한 32편 '절간이야기'연작 시와 구도자로서의 삶과 깨달음을 노래한 30여편의 시가 설악산의 3사인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특히 연작시 '절간이야기'에서 오현 스님은 일상에서 만나는 절 주변 이야기를 산문시를 통해 담담하게, 조금은 능청스러운 화법으로 들려준다.

(심길자 우리출판사 부장)

깨달음 담은 자전적 법문



'묻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지음

민족사 / 1만2천원

<묻지 않는 질문>은 물질과 기계문명의 정점인 미국 한복판에서 정신문명의 요체인 한국 선불교를 가르치며 겪었던 경험과 깨달음을 성찰의 목소리에 담은 자전적 법문이다. 핵심은 동자승이 불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선(禪)의 언어에 담은 '소타고 소를 찾네'(尋牛)라는 가르침에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소화가 안되면 소화가 안되는 줄 알고,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알고, 이렇게 분명히 개인마다 본성이 있다. 그런데 어디서 찾는다는 말인가! 찾는 데서 그르친다"고 일갈한다.

(고광영 불교시대사 편집부장)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3	힘	틱낫한	명진출판사
4	통일법요집	편집부	조계종출판부
5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	나무심는사람
6	묻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민족사
7	능엄주해의	전수태	운주사
8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9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달라이라마	무우수
10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이청	아침나라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좋은 책 한 권이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www.chungabook.co.kr
전화 337-3485(대) FAX 336-2381 청아출판사

풋내기 수도승의 기억
"나의 수계식은 이튿날 오전 네 시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당신의 방에서 깜빡거리는 촛불을 곁에 둔 채
방석에 앉아 계신 스승님을 찾아뵈었다.
스승님 곁에 자리잡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경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스승님께서는 낡은 갈색 승복의 해진 곳을 꼼꼼하게 깁고 계셨다.
만 사제(師弟)와 나는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천히 바느질을 하고 계신 스승님의 모습은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 있는 보살을 보는 듯했다…."
틱낫한
내 스승의 옷자락
틱낫한 지음 | 진현종 옮김 | 김담 그림 | 값 8,500원

어느 곳에서든 자유로울 수 있다면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그리고 자유로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승이며 평화 운동가인 틱낫한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다.
감옥 밖에 있어도 구속된 존재일 수가 있고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틱낫한
어디에 있든 자유로우라
틱낫한 지음 | 류시화 옮김 | 값 9,000원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헌 옮김 | 값 8,500원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국내 최초 큰스님들의 일대기 집대성

제1차 40분 탄생

한국 현대 고승 대전집

이제 당신 곁에 큰스님을 모십시오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 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내 마음의 부처님이신 큰스님들!

그 분들이 나누어주시는 마음과 마음, 정과 정,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혼이 되어 스며듭니다.

지난 5년여 동안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큰스님을 찾아 뵙고자 산사를 수십 차례 방문에 방문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멸되어 가는 귀중한 사료를 모아 한분한분 소중하고 정성을 다해 엮었습니다. 또한 큰스님들의 모습과 법문을 가까이서 일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동영상 CD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분들의 은덕이라 믿습니다.
2003년 4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집에 참여하신 큰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께 봉헌식을 성대히 올렸습니다. 이 또한 여러 불자님들의 은덕 덕택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익낫한 스님이 다녀가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너무나도 많은 영험하시고 훌륭하신 큰스님들이 계신데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곁에 큰스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궁전 같은 집에서 황금으로 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잠까지 편안할까요.

큰스님께서는

"돈을 주고 그럴듯한 잠자리는 살 수 있을지언정
달콤하고 안락한 잠은 살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먼발치서라도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행운이 깃드는 큰스님들… 그분들의 생생한 생애와 법문을 가정에 모시면 가족들의 평화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행운과 마음의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A 그룹
- 서옹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당장)
- 성철 스님 (비슬산 도성암 조실)
- 자운 스님 (도익산 불갑사 조실)
- 종성 스님 (임제선원 조실)
- 대성 스님 (금정산 범어사 선객)
- 진제 스님 (팔공산 동화사 조실)
- 천운 스님 (두륜산 대흥사 조실)
- 혜정 스님 (속리산 법주사 율주)
- 정관 스님 (경주읍 화주)
- 지섭 스님 (팔공산 동화사 주지)



B 그룹
- 화산 스님 (보광원 조실)
- 일운 스님 (김악산 백운사 주지)
- 인환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 현해 스님 (오대산 월정사 주지)
- 혜성 스님 (삼각산 도선사 회주)
- 각성 스님 (화엄학회 초주)
- 원도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 혜거 스님 (금강선학장)
- 도업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원장)
- 지안 스님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C 그룹
- 설산 스님 (삼각산 점도사 회주)
- 효곤 스님 (오봉산 오봉사 회주)
- 청소 스님 (칠보산 석탄사 조실)
- 도우 스님 (삼각산 도선사 염불선원장)
- 성공 스님 (은양사 조실)
- 현탑 스님 (문사수법회 초주)
- 성우 스님 (시운산 석남사 주지)
- 일휴 스님 (원주 약수암 주지)
- 혜총 스님 (김포사 주지)
- 원광 스님 (김포 선경원 원주)



D 그룹
- 서암 스님 (희양산 봉암사 조실)
- 법성 스님 (전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 도성 스님 (태종사 법주)
- 목산 스님 (보령사 회주)
- 구암 스님 (전 법화종 종정)
- 지하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 범주 스님 (속리산 날대선원장)
- 법타 스님 (조국통일범불교협의장)
- 진관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법현 스님 (자현사 '동지적소년의 집' 원장)

※ 생존해 계시는 큰스님들의 생생한 대담을 통해 당신은 부처님의 영험한 생을 체험할 것입니다.

구입문의
YES24.COM 문의전화 : 02-446-0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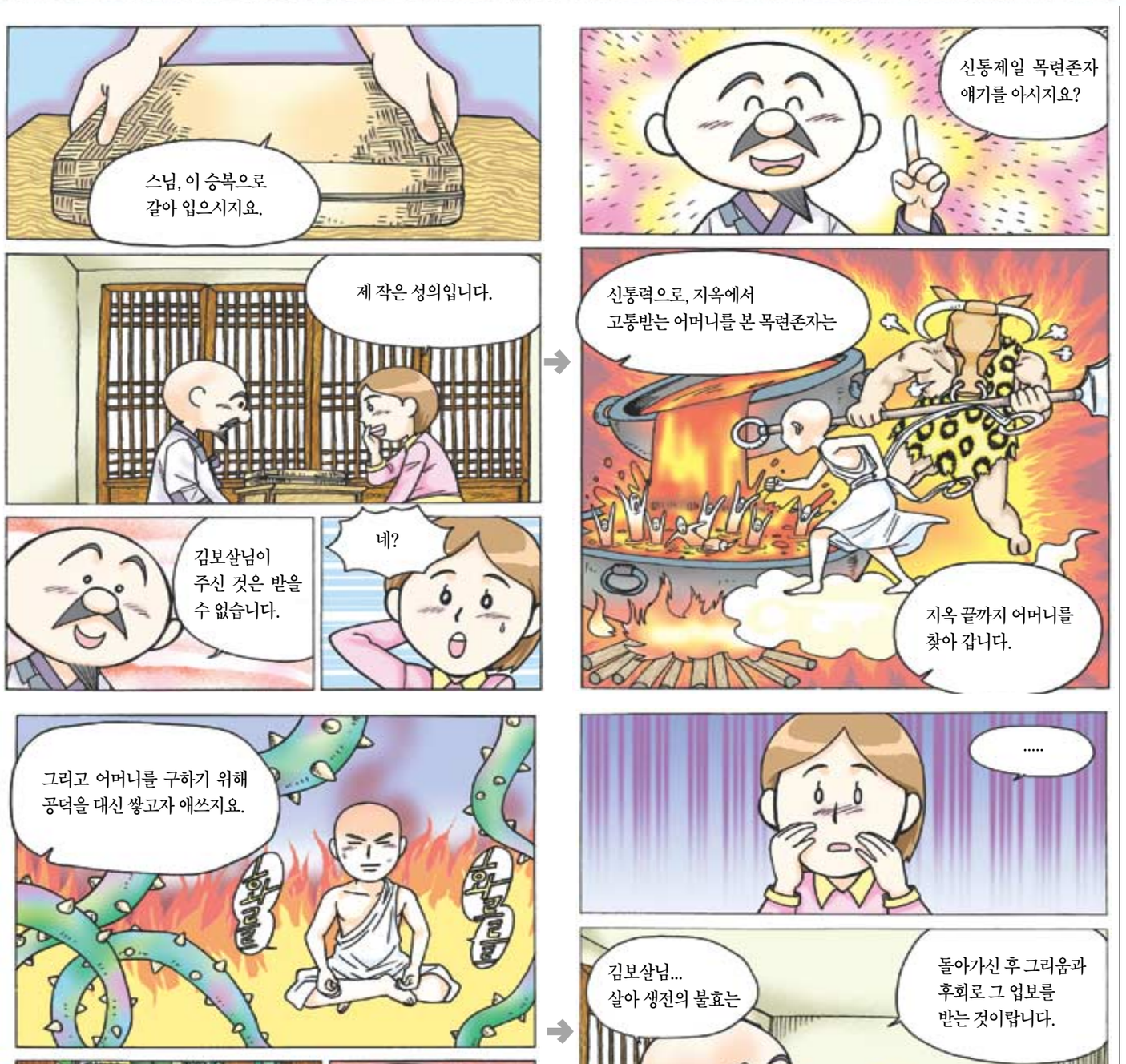
출판 및 영업사원 모집 : 담당 황치연 과장 (02-446-0393)
홈페이지:www.samgakhyung.com 주소:(143-190)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60-2 전화:(대표)02-446-0393 팩스:02-446-0392 삼각형프레스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8화)

"불효자의 공양은 거절하라"

〈출전 : 사분율 제53권: 22-959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사스 공포

자신을 지키는 등불

사스라는 이름의 괴질 때문에 전세계가 떨고 있다. 그것의 본래 이름이 급성호흡기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영문 약자인 'SARS'라고 불리다 보니 더욱 괴질처럼 보여서 공포감이 더한 것 같다. 4월 28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5천 5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321명이 사망하였다. 약 6%의 치사율이다. 일부에서는 마치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에서 등장하는 세기말적 징후를 떠벌리며 곧 종말이라도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여기에는 언론도 한 몫을 한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연일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론이 선재는 조금 의심스럽다.

200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2%, 음주사고의 경우는 2.3%이다. 곧 전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공포를 느끼게 했던 에이즈의 경우, 국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수는 2003년 1월 현재 2,008명, 총 421명의 감염자가 사망했다. 사망률이 20%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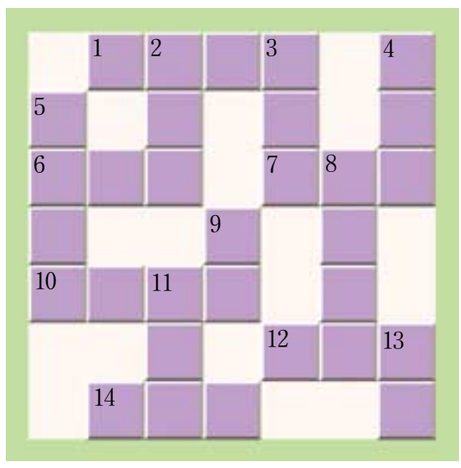
물론 사스를 에이즈라는 질병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재의 생각으로는 최근의 분위기는 너무 지나치다. 국내에서 감염자로 확인된 사람이 이제 겨우 1명이다. 15명 정도는 아직도 의심스런 상태이다. 한술 더 뜨는 것은 위험한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을 향해 귀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다.

<불본행집경>에서는 신구의(身口意) 3업이 청정하지 않고 탐욕과 애욕이 가득 차 있으며 미움을 품고 악의에 차 있는 등 13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속에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중아함경>에서는 "마음 속에 의심하는 병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사스는 두려운 전염병임에 틀림없지만 무턱대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포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두려운 선재는 부처님오신날에 자신을 지키는 마음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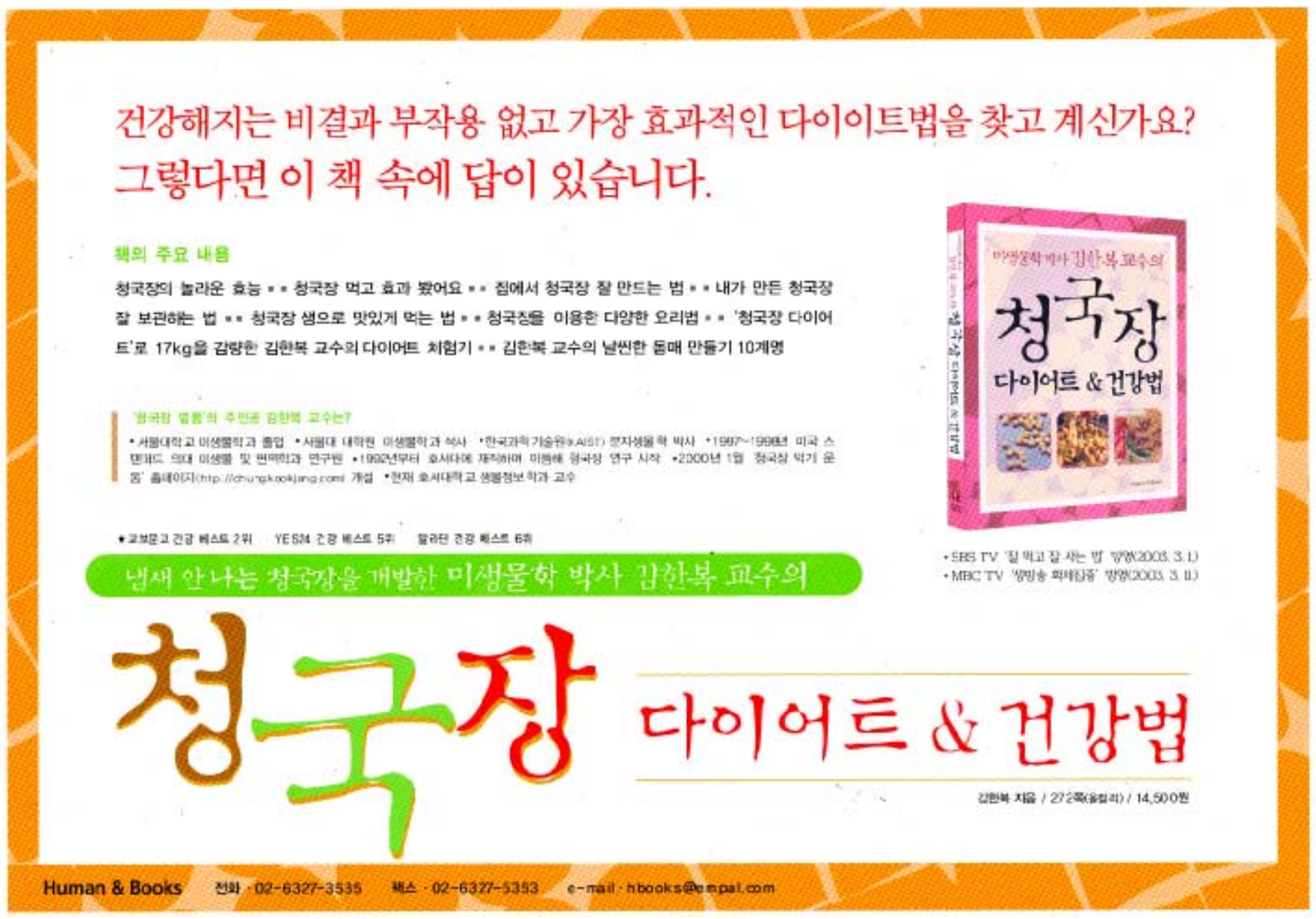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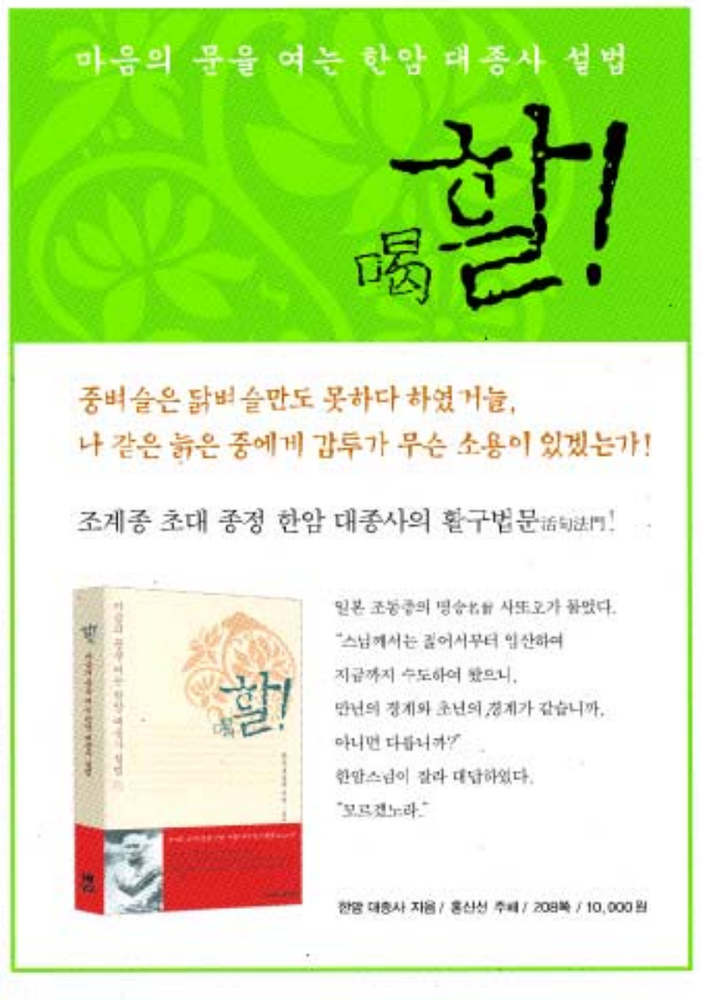
가로 1.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수계의식을 집행하는 장소(金剛戒壇). 6. 잡힌 물고기와 새를 연못, 늪, 산야에 놓아주는 법회. 7. 삼신(三身)의 하나. 법의 성품인 만유제법의 본체를 뜻함(法身佛). 10. 선종의 종지로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 12. 악인이나 여인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 경. <묘법연화경>을 약칭해 부르는 이름. 14. <법화경> <금광명경>과 함께 호국삼부경의 하나로 <인왕반야바라밀경>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인왕반야경>으로도 불리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仁王經).

〈419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2.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여 행하는 법회(降誕會). 3. 수행승이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 것(斷肉法). 4.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출현했던 부처님들. 5. <화엄경>의 본존인 대방광(大方廣)의 이치를 증득한 부처님(大方廣佛). 8. 신장을 그림으로 그려 벽에 거는 족자. 9. 중국 고대의 사상가 · 유교의 개조(開祖). 11. 신라의 제30대 왕. 681년 왕이 죽자, 유언에 따라 화장한 뒤 경주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 대왕암에 안장(安葬)함. 13. 경책(警策), 타이르는 것, 좌선할 때, 나타해지는 마음이나 졸음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를 말함.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남근 숭배와 여인불성불

부처님의 전기에 의하면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태몽 중에 이빨이 여섯 개인 흰 코끼리가 태반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에 정반왕이 점성술사를 불러 꿈의 해몽을 부탁했다. 그러자 점성술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임금의 대부인께서는 반드시 남자 아이를 생산할 것입니다. 32가지의 대장부 모습을 구족하여 그 몸을 장엄할 것입니다. 만일 왕위를 계승한다면 마땅히 황금 수레를 타고 천하를 항복시킬 것이며, ...만일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면 법왕의 경지를 깨달아 이름이 시방에 알려질 것이며, 중생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틀른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32상을 갖추었다는 것이 경전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한 제자들의 존경심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태어남과 동시에 32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천부적이란 의미이며,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구비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불교에서 32상을 말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인도 사회에서는 최대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32상을 구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인도인의 일반적인 상식이자 대중들의 보편적인 신앙이기도 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제왕이 아들을 낳아서 32상을 갖추게 되면 마땅히 황제의 지위로 남아가 4천하의 으뜸이 되어 선법(善法)으로 다스려 교화할 것이며, 자연히 일곱 가지 보배를 갖추게 되리라"고 말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인도인의 신앙이 비슈누 신화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이것이 당시 불교사상 속에 수용된 것이다. 전륜성왕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철위산 지방의 지배자이다. 부처님이 활동하기 훨씬 이전에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상적인 통일의 완성자로 동경되고 있었다. 그러다 통일세계의 이상적인 임금의 명칭이 되었다. 비슈누의 상징인 바퀴를 얻는 것으로 제왕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전륜성왕의 위력에 의해 세계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된다.

부처님이 전륜성왕과 같이 32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수용된 것일까? 아마도 세계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 얻게 되는 대중들의 평화로운 삶, 전쟁 없는 인생이 전제되었을 것이라 본다. 평화적인 세계의 통일과 인간 정토의 염원은 전륜성왕과 동일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32상이란 남성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여성은 32상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성불할 수도, 전륜성왕이 될 수도 없다는 사고가 은연 중 불교 안에 스며들어온 것이다.

32상 가운데는 마음장상이 있다. 마음장상은 말의 생식기처럼 남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 틀른 32상 자체는 모두 상징이다. 섬법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허가 깁다고 말한다든가 전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평발이라하는 것 등 신성과 권위와 현실적 역동성을 32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장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것을 생산과 결부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즉 여성들이 가족사회의 주축이었던 시대에는 여근숭배사상이 있었다. 그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드러나는 문화유형이다. 여근숭배사상은 특히 농본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 역시 아직 그러한 문화의 유형이 남아 있다. 원불교 법당 안에 있는 쇠로 만든 시루형의 법구나 중국 사원의 법당 안에서 흔히 목격하게 되는 불단 앞에 놓인 놋쇠로 만든 시루 등은 모두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이며,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시대가 남성본위로 바뀌면 기존의 신앙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여성숭배와 함께 남성을 숭배하는 것이다. 링가신앙이 그것이다. 이어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인간과 세상이 열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남근숭배 역시 풍요 내지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왕성한 생식력이 풍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상적 인간상인 32상 속에 풍요를 상징하는 남근숭배사상이 빠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파불교시대의 이론서인 <대비바사론>에서는 32상이 성불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만 백복을 장엄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성일지라도 선업을 닦을 것 같으면 대장부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것이 변성성불의 이론적 단초가 되는 것이지만 완고했던 남성위주의 사고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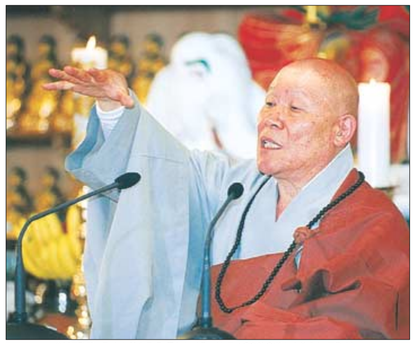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생각 생각에 마음 비우면 어딜가나 극락세상"

지상 백고좌

도 원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교텔레비전 신사옥 이전 및 무상사 개원기념 고승초청법회에서 설법하는 도원스님.

깨달음 위한 방편 무수하지만 하나만 선택해 수행 잘 하면 돼

오늘 제가 이 법좌에 앉아 여러분에서 하는 말은 모두 제 말이 아닌 부처님과 역대조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간 중생교화를 위해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부처님이 45년동안 설법하신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법문들을 다 알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근기에 따라 법문을 하시다 보니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된 것 뿐입니다.

불교를 믿을려고 했더니 경전만도 수백, 수천권에 달해 어떻게 불교를 믿겠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은 무수하지만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한가지만 골라잡으면 됩니다.

심해를 들어보셨습니다. 절에 염심이 다니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보살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너른 생각땀고 관세음보살만 지극정성으로 염송하시면 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염심히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염불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스님이 와서 "관세음보살 염불도 좋지만 참선을 해야해"라고 충고를 해 주었답니다. 참선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가정도 평화로와 진다고. 그래서 참선을 염심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스님이 "우리같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염불이나 참선보다는 참회를 하는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보살은 다소 혼돈스러웠지만 참선을 그만두고 다시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불철주야 관세음보살 염송만 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염불가지고 성불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참선도 하고, 참회도 하는 등 갈팡질팡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바른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경전을 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다보니 얻어진 결론입니다.

부처님의 45년에 걸친 법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설법 중에 약 70%정도는 실상을 알려주는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실상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이 육신이 우리의 실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육신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잠시 누군가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상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면 실다운 모양, 실상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떠나 있는 진여, 실상입니다.

심상이란 붉기에 비유하자면 해나 달과 같습니다. 해와 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추듯이 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실상의 묘체(妙體)라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는 삼세, 공간적으로는 시방세계를 뛰덮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것이 실상의 묘체
시간적으로 삼세에 걸쳐 있고
공간적으로 시방세계 뒤덮어

아직도 실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실상은 바로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바로 자기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자신이 스스로 내면에 우주가 있고, 우리 자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며 빌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은 너 자신이 곧 부처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너는 왜 그렇게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빌고 있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이 45년간 설법하신 것 가운데 약 15%는 실상을 바로 알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거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들어 봅시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쁜 음행을 짓지 말라, 마음을 아지럽힐 정도로 술을 먹지 말라, 바로 오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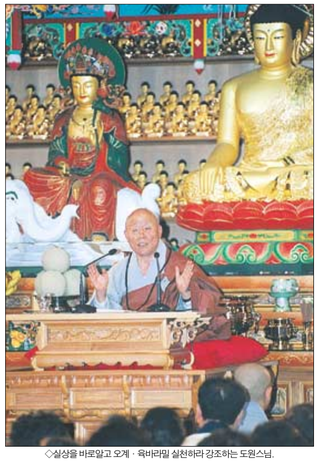
아마 절에 조금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오계를 수없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계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오계를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여기 60, 70되신 노보살님들도 평생 오계를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계를 잘 지키면 행복해 질수 있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한번 염심히 실천해 보세요. 정말 행복해지는지, 영원한 삶을 얻는 수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리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해라 하는 부분이 15%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것 역시 실천이 문제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그 경전도 아니요 부처님의 법도 아닙니다. 염필히 말하면 바로 실천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보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하고, 저것이 좋다고 해서 저것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오늘 제가 너무 큰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일까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적은 그릇에 많은 것을 담으면 넘치기 마련이지만 여러분은 이제 실상을 간파했으니 모두 다 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합장



◇실상을 바로알고 오계 · 육바라밀 실천하라 강조하는 도원스님.

45년간 부처님 법문 3가지로 요약

설법의 70% '실상' 알리기 연관
오계지키면 영원한 삶 얻는다
육바라밀의 꾸준한 실천 강조

법회 동참자가 본 도원 스님

4월 21일 불교텔레비전 신사옥 1층 무상사. 100평 남짓한 법당안에는 300백여명의 불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들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도원스님의 법문에 대해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좋다는데 공감했다.

구월사 신도인 류경훈(63 · 경기도 부평)씨는 "속이 후련하다, 부처님의 45년간의 설법을 3가지로 요약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채공음원(68 · 서울 연희동) 보살도 "과거에도 많은 큰스님의 법문을 들었지만 오늘처럼 명확하게 그 뜻이 이해되기는 처음이다"며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오계와 육바라밀이 이렇게 중요한지, 또 내가 부처의 성품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이제서야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처님 설법 3가지 요약 법문 인상적

이번 법회를 통해 스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원일님행(61 · 서울 청량리)보살은 "법고 재미있는 법문을 듣고 나니 스님이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법력이 얼마나 높으신지 간접적으로 느낄수 있었다"며 "무언가 알았을 때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 법문 도중에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 하는 탄성을 질렀는지 모른다"고 법회 감회를 털어놓았다.

1941년 파계사에서 고송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도원스님은 51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68년 월정사 주지, 72년 파계사 주지, 81년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84년 조계종 선관위원장, 85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90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97년~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파계사 대비암에 주석하고 있다.

은혜의 향기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호명 스님



10여 년전 팝송을 바리보는 작고 깡마른 노스님을 한 분 만났다. 봉도사의 한주로 계시는 호명노스님이시다. 구십을 바라보는 요즘에도 목소리는 힘이 있고 눈빛이 하얗게 세어서 산신령 같은 모습이다. 방에서는 언제나 책을 놓지 않고 항상 스님들의 수행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서, 제방 선원을 다니며 젊은 수좌들의 수행을 통해 당신의 이상을 확인하시는 철저한 분이시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스님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혀를 차기도 하고 불교의 미래를 내부도 점점이 걱정하시는 모습은 후학으로서 본 받을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노스님은 불자들의 바른 불교공부가 못내 걱정 되셔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는 간곡한 심정으로 하시곤 했다. 그래서 89세의 고령에도 법문을 청하는 곳에는 어디든 가신다. 그렇게라도 부처님 법 먹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노구를 이끌고 당신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건



그림 · 문병성

가신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도 화려하거나 넓이 나는 큰 법회도 아니고, 다만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열의만 있는 곳이면 아무 말하지 않고 흔쾌히 가시는 것이다.

한번은 반야심경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설법시간에 '마하'라는 단어를 설명하시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오로지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토해내는 노스님의 법문은 그대로 절규였다. "커야 한다, 작은 마음, 작은 생각, 작은 소견으로는 진리와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은 진리의 법등을 이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호소 그 자체였다. 그러나 정작 법문을 듣는 청중들은 알팍한 머리로 쉽게 이해하고는 뻘리 진도가 넘어갔으면 하는 눈치들이다. 그러나 어떤 눈치에도 페넘치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싶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오히려 마안할 정도로 집요 하시다.

진리가 말을 여의지 않았으나 말은 진리가 아니듯이, 당신이 깨닫고 이해한 내용과 막상 표현해 내는 형편 측에는 뭔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것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마음으로 반야심경 해설서를 집필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존경심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의 법문 중에는 음식의 간에 대한 비유가 유달리 많다. 짤 때 짜야 하고 싱거울 때 싱거워야 하는데,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 맛이 없듯이 인생에도 간이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인생에 간을 맞춘다는 것은 해야 할 때를 가려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본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면에 대한 법문이다. 즉 세상은 모든 것이 양면이 있다는 뜻인데 시계추도 옆으로 간만큼 반대로 가야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먹은 것만큼 배설이 되어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데, 우리는 먹는 것에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배설에는 소홀하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부나 수행에도 적절한 양면성의 조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 좋은 것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감당도 생각해야 행복이 맞지 않는가. 그런 조화가 실현이 되면 사회의 밝은 곳은 물론 어두운 부분에까지 원하는 곳 어디든 찾아가 설법

"인생살이도 간이 맞아야" 강조

지 관심이 미치게 되는데, 그것이 불자의 온전한 수행이라는 것이다.

스님의 수행관은 종교적인 확고한 믿음과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심과 교리와 실천의 원만한 삼위일체를 통해서만이 수행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고,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결코 맺진 수행의 결과를 성취할 수 없음을 가르쳐 셨다. 이런 당신의 지론에 언제나 자신만만 하시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신다. 그리고 덧붙이는 후렴 한마디 "어이구…, 안타까워…, 염심히 해봐요."

노스님에 대한 강한 인상 중에 또 하나는 포교가 많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절에 나와야 불교가 발전 한다는 소신을 들 수 있다. 그런 간절함 만큼이나 말로 뛰는 분이 노스님이시다. 그 열정은 오히려 젊은 우리가 뛰따라갈 정도이다. 언제나 찾아 뵙 때면 포교 많이 하라고 격려하시고, 올바른 불자 많이 만들어서 이 세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되게 하라는 염원을 잊지 않으신다. 스님의 숙제가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열정으로 살아오신 스님의 뜻이 많은 후학들에게 이어지기를 발원한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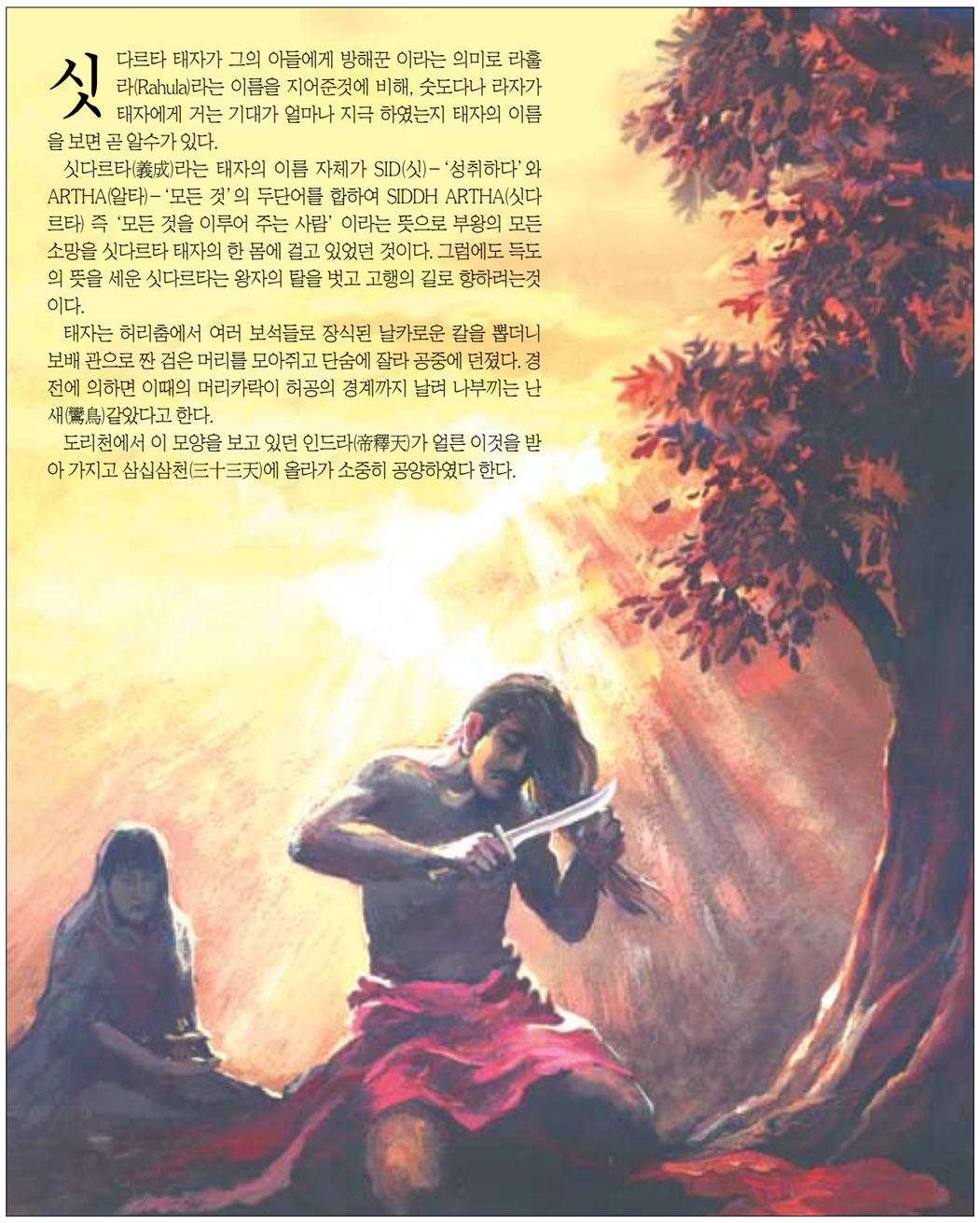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제 9화 삭발





싯다르타 태자가 그의 아들에게 방해꾼 이라는 의미로 라훌라(Rahula)라는 이름을 지어준것에 비해, 숫도다나 라자가 태자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지극 하였는지 태자의 이름을 보면 곧 알수가 있다.

싯다르타(義成)라는 태자의 이름 자체가 SID(싯)-'성취하다'와 ARTHA(알타)-'모든 것'의 두단어를 합하여 SIDDH ARTHA(싯다르타) 즉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부왕의 모든 소망을 싯다르타 태자의 한 몸에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득도의 뜻을 세운 싯다르타는 왕자의 탈을 벗고 고행의 길로 향하려는것이다.

태자는 허리춤에서 여러 보석들로 장식된 날카로운 칼을 뽑더니 보배 관으로 짠 검은 머리를 모아쥐고 단숨에 잘라 공중에 던졌다. 경전에 의하면 이때의 머리카락이 허공의 경계까지 날려 나부끼는 난새(鸞鳥)같았다고 한다.

도리천에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인드라(帝釋天)가 얼른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삼십삼천(三十三天)에 올라가 소중히 공양하였다 한다.

"찬타카, 끝까지 나의 시중을 들겠다는 너의 뜻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그러나 나는 이제 일국의 태자도 아니어서 더 이상 시중을 받을 이유가 없도다. 만약 네가 내 주위에서 맴돌면 오히려 나의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될 뿐임을 알아야한다. 지금까지 나를 보필하느라고 참으로 수고하였다. 여기 내가 그동안 간직했던 보배영락들을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으로 나와의 작별을 위로하라."

태자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강을 건너 멀리 사라져 버렸다. 뒤에 남아 있는 찬타카는 허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나 강가에 앉아 슬피 울면서 태자의 가버린 환영만 응시하고 있었다.

싯다르타는 이제 홀로 걷고 있었다. 울창한 밀림속에 자신을 보호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슬그머니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우선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예고 없이 달려드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여러 가지 독충들은 어떻게 피할것인가…. 이 모든 것은 생전처음 경험하는 일들로써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따위 일로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혼자, 그리고 죽을 때도 혼자인데 모든 것을 그저 운명에 맡긴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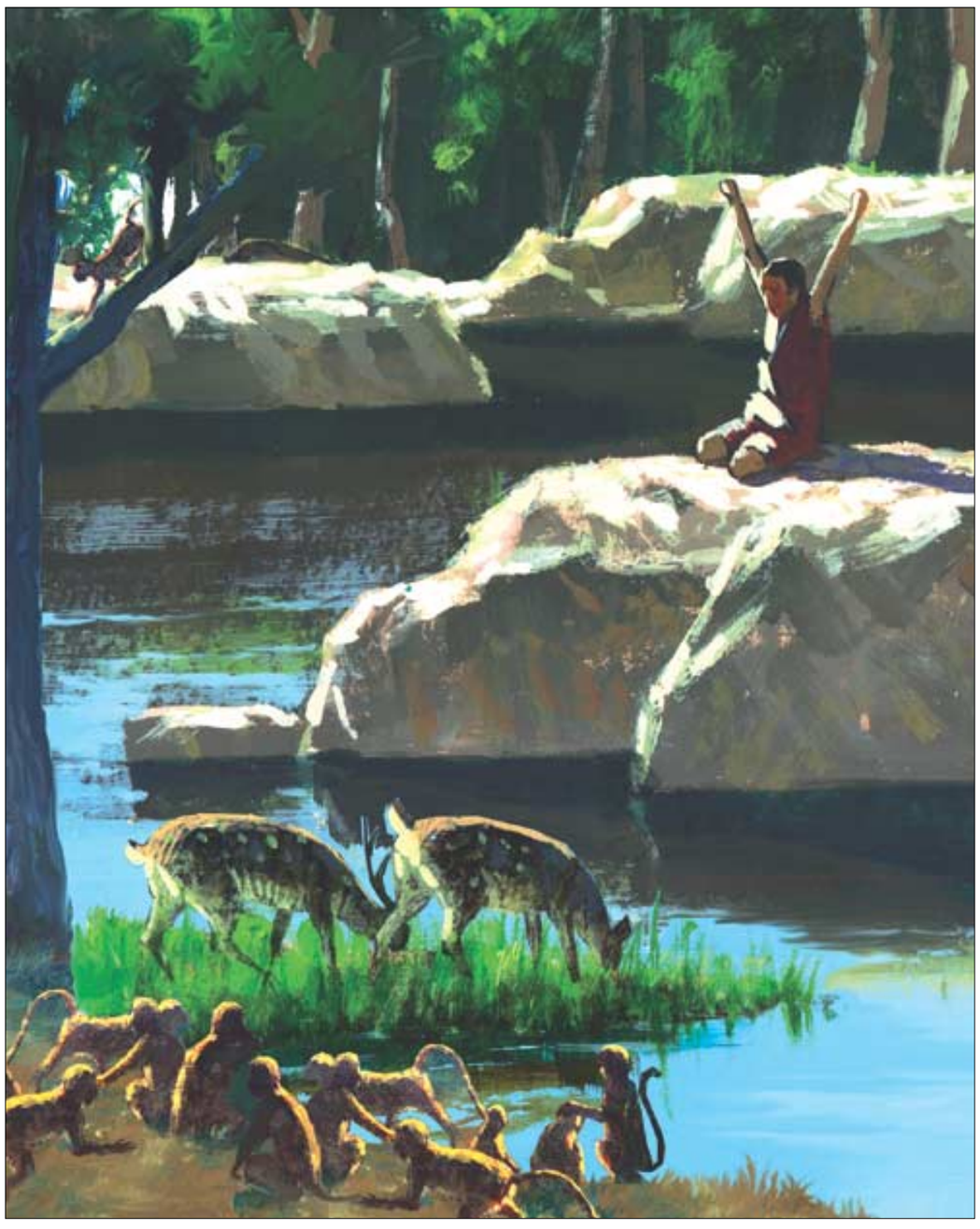


밤이 되었다. 한순간에 숲의 아름다움이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곳 저곳에서 이름모를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소름끼치게 들려왔다. 싯다르타는 자신도 모르게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삼매(Samadhi)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울창한 숲속의 나뭇가지들을 헤치고 밝은 달이 둥실 떠올랐다. 달빛이 흐르는 냇물을 비추자 물결이 반짝 반짝 빛나며 마치 하늘의 은하수를 냇물에 흘려보내고 있는 듯 보였다. 한 순간에 짙은 어둠이 물러갔고 야행성 동물들도 몸을 숨기니 이젠 숲 속에서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되었다.

일단 두려움이 가시자 마음이 평온상태로 되돌아 왔다. 싯다르타는 탸저눈 숲속에 흐르는 시냇가 변의 커다란 나무밑에 가부좌하고 본격적인 좌선에 돌입하였다. 이곳에서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최초의 싸움에 임한 것이다. 더 이상 맹수의 울음소리도 몸으로 기어오르는 독충들의 독침에도 두려워하던 마음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싯다르타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삼매의 경지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싯다르타는 모든 것이 다 처음 겪는 경험이어서 정신적인 피곤을 어쩌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싯다르타의 행동을 끈질기게 감시하던 맹수들은 서서히 새로운 침입자 곁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찬찬히 침입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 모습이 하도 깨끗하고 편안하여 두려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싯다르타의 모습에 맹수들은 오히려 기가 꺾여 더 이상 그를 해칠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신비로운 숲속의 밤이 꺼지고 멀리서 밝은 빛이 숲 속으로 찾아 들었다. 싯다르타도 긴장에서 깨어나 평화로운 숲속의 정취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연등 밝게 밝히듯 마음의 불 밝혀서 공식으로 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처님이 정말 계신지요?

문 스님,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부처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계시다면 어디에 계십니까?

답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것이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소? 여러분이 하는 대로 도(道)가 되기도 하고 사(邪)가 되기도 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깐 따지고 보면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없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꽉 찼다 이겁니다. 만약에 부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꽉 찼지 만약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꽉 찼을 수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넘나들면서 그대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름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세계의 왕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허공에 꽉 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허공에 꽉 찼다는 거죠. 그러니 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계신 바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타력신앙으로서 산신을 따로 찾는다거나 칠성을 따로 찾는다거나 지장을 따로 찾는다거나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어서 미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업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또 귀신으로 등장을 해야 하니 그 업식을 또 갖고 나와서 수억겁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수만 부처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요, 내 주인공 안에 다 계시니 그 몸은 내 몸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니 어찌 둘이겠느냐는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그 자리가 내 자리요, 내 자리가 그 자리인데 어디 딴 자리가 따로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의 길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중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벌레도 중생이니까요. 그러니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억겁을 통해도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퇴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식들을 그냥 그렇게, 부모들이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끄달렸기 때문에 죽어도 끄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해(害)를 주지 않나, 그렇게 위하던 자식들한테 해를 주고 머리가 돌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거든요.

자기가 신경을 써서 오는 병이 있고, 영계성으로 오는 병이 있고, 또는 세균성으로 오는 병이 있고, 여러 가지로 오니까 그 여러 가지로 오는 것을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 관하는 공부는 천체 심성 물리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심성 빼놓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시기 이전에도 길을 가르치셨고, 그 길에서 가셔서 다시 그 길로 모습을 가지고 왕자로서 태어나셔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만 부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부처님이 모습을 가지고 등장해서 계십니다.

그러니 일체만물은 부처님한테 배우고 부처님은 일체만물한테 배워서 모든 게 구비되고 한마음 한뜻으로서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체로서 공식화하고 있으니 모든 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다면 부처님도 계신 거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타력신앙이 아니라 자력신앙으로 항상 밝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로 봐서는 이 지구에 바람과 뜨거운 기운과 물 속에서, 사람이 잘 못 먹으면 체하듯이 모두 체해서 정상적으로 물이 고르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가 참 어렵고 머리 돌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연등을 밝게 밝히듯이 항상 마음의 불을 밝히면서, 공식(共食)으로 관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에너지로 화하는 도리

문 선원 달력 법어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생각 되돌리면 에너지로 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정말 내 한생각 되돌려 놓는 것에 그러한 에너지가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림 · 최주현

답 애당초 조그만 씨앗에서 싹이 나오듯, 물에서 조그만 생물체가 나오듯이, 즉 말하자면 그것이 자기의 에너지입니다. 자기의 주인공이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을 때는 반드시 정신계의 자기라는, 애당초에 태어난 그 존재가 거기에 같이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자 난자와 같이 합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그 에너지가 뭐냐? 불성이라는 겁니다, 불성. 그 불성이 즉 말하자면 에너지로 화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에너지가 자기한테 있고, 부처님 말씀대로 불성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항시 자기를 먼저 믿고 그 뜻을 알아서 거기에 관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관해서 애당초부터 끝까지 살아나가는데 거기를 믿고 거기다 일거수 일투족을 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관하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당신만이 나 아닌 나니깐 내가 아닌 당신이 모든 걸 해 나가니까 주인공 당신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심장과 소장 대장 눈 귀 코가 모두 열려야 됩니다. 눈도 떠져야 되고 귀도 뜨여서 들려야 되고 모두 둘 아니게 함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둘 아니게 돼야만이 그때 가서는 물질적인 나의 모습과 정신계의 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둘 아니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 버리니깐 그 때는 거칠 게 없고, 말하자면 공생이나 공심이나 또 공체나 공용이나 전부 걸림 없이 둘 아니게 되니까 모두가 보이지 않는 데도 보이는 데도 둘 아니게 온화하게 한 도량을 지켜나갈 수 있단 얘기입니다. 한 도량 하면은 전체 쓰임하셨지 않았습니까?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가 만약 주장자가 없다면 너의 주장자를 뺏을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임제스님이 주장자를 줘도 형체가 없기 때문에 준 사이가 없이 주는 겁니다. 준 사이가 없이 주었으니 받은 사이가 없이 받았다 이거죠. 둘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오히려 뺏어 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 주장자를,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생리적으로 따져 볼 때도 모든 일체 의식이 더불어 한데 합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체다 이겁니다, 공체(共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관이 다 한데 합쳐서 한 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정수리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들고 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 놔버리고 쉬라
그대로 돌아가면서 여여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를 믿고 잡아나가요. 진실로 믿는다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즉 말하자면 밤이 돼서 날이 캄캄하면 에너지 창고가 되고 날이 밝으면 그 에너지로 인해서 밝음이 온다 이겁니다. 태양도 에너지로 인해서 또 밝아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각자 생명체가 있다 하면 그건 에너지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주고 거름을 조금만 줘도 꽃이 살아나잖아요. 그것도 에너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참선이고 섰다 앉았는 것도 참선이고 일하는 것도 참선이니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걸림이 없다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내면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에너지가 따로 있어서 나오겠지 이러지만 따로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한생각에 의해서 그냥 에너지로 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 삶이 따로 있다 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자유로 자유스럽게 에너지고 뭐고 어떤 모습이든 자기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게 바로 마음공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는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중심이 즉 부처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중심이 주장자요 중심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생각나기 이전의 그 마음 중심이 바로 기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둥이다. 그러면 그 기둥은 전체적인 기둥이지 개별적인 기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기둥은 뭐든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불을 켠다든가 라디오를 켠다든가 물을 끓인다든가 밥을 짓는다든가 또는 발전기를 돌린다든가, 하여간 어떤 경우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기능의 주장자는 전체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내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은 첨단의 언덕을 넘고도 남음이 있고 내 한생각을 용도에 따라서 지혜롭게 되돌리면 불성이, 즉 말하자면 에너지로 화해서 나가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려면…

문 우매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어느 스님의 "항상 깨어 있어라."는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 항상 깨어 있으려고 더욱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해주다가도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 얘기가 끊기기도 하고, 워드를 치다가도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 빠르게 워드를 못 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착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에 모두 놓고 지켜보는 거와 깨어있으라는 뜻과 집중하는 것, 삼매에 드는 것 그리고 집착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 그래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타의의 신을 믿으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느니라." 하신 것도 여러분 자신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니 '자는 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자와 부가 둘이 아니게끔 서로 상응하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서 이렇게도 나투고 저렇게도 나투면서 그렇게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지켜보라.' 이런 말이죠. 무겁게 짐 진 거를 다 놔 버려라. 네 마음으로써 짐을 지어 놓고 무겁게 왜 짊어지고 다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쉬라. 그대로 돌아가면서 여여하니라." 이런 말의 뜻을 우리가 새겨서 거름으로 알고 주춧돌로 알고 기둥으로 알고 참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바로 생활이 종교요, 종교가 생활이라는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높다 저 가르침이 높다 한들 높은 게 따로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고에 허덕이고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누가 물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보는 순간 손을 잡아서 끌어주고 건져주는 그게 부처님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가만히 있어야만 부처님이냐 이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일수록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예수님 법이 따로 있다고 가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지금 그대로 행을 하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라 이겁니다. 한생각을 잘 내라는 겁니다. 부적을 안 붙여서 요거 잘못 돼 돌아가면 어쩌나. 이사를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요렇게 갔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 끄달리고, 자기 마음 자체를 그렇게 못 믿으면 안 돼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공했는데, 우주법계가 공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무시하고서는 아니, 조금만 어디가 이상해도 방방방 뛰면서 병원으로 어디로 닦달하듯 달려간다면 자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처인 것이고, 법신인 것이고, 여러분의 한생각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본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하지만, 난 그렇게 어렵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름에 끄달리고, 남의 육에 끄달리고, 허공에 끄달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의 주인이 제일인 것이죠. 마음의 주인이 모든 일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겠거든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누가 하는가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알 바가 있을 테니까요. 누가 똥을 싸고 누가 잠을 자고, 누가 말을 하고, 누가 생각을 하고, 누가 생각을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우는가를 한번 잘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급한 일이 닥칠수록 마음의 주인한테 일임시켜 탁 놔버리면 그대로 편안하고 일은 일대로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몸을 가만히 두라는 게 아닙니다. 몸은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주인이 하는 거니까. 그냥 주인에 따라서 함이 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는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요, 자기 마음의 그림자. 그래 시자라고 하는 거죠, 시자! 심부름하는 시자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까딱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문 걸어 잠그고 지켜보라는 게 아니에요. 방 안이나 방 바깥이나, 들이나 산이나 똑같은 자리예요. 자기가 앉은 자리가 바로 법당이니까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해서 꼭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는 거 푸장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소리예요. 산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고 들로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나요? 자기 몸이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거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움죽거려라 이거지요. 믿지 못하면 편안하지 않을 것이고 믿으면 편안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재차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 누가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라 이거예요. '주처, 주인공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웃으면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상을 찌푸리고 그냥 고달프게 하고 찾아요? 웃으면서 즐겁게 하면서 찾아요. '야! 이거 웃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구나. 주인공!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일체를 다 주인공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지금 일을 죽도록 하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아, 이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여직껏 한 것도 바로 당신이, 주처에서 한 거로구나.' 하고선 자꾸 하나만 불들고 늘어져요. '하나에서 이렇게 모두 하고 있구나. 하나로 모든 게, 일체만법이 하나로 드는 구나. 하나에서 모든 것 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웃는 것도 '허허, 이거 주인공이 또 웃게 하는군.' 이렇게 웃으면서도 나의 주인, 주처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놔버리는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로만 사는 겁니다

김영사

TEL: 02)741-1990 www.gimmyoung.com

서점에 신간이 없을 때는 김영사 책은 고객님 곁을 떠났습니다

초의 艸衣 신간

차, 사상, 예술을 선으로 승화시킨 풀옷의 선승



한승원 장편소설 | 392쪽 | 값 9,500원

화엄의 바다에 살고 있는 작가 한승원이 수년간의 취재와 집필로 복원해낸 대자유인 초의 선사의 일대기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선(禪)과 유학, 학문과 예술,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대자유인 초의 선사. 수미산(須彌山)과 사해(四海)를 들이마시는 겨자씨처럼, 쪽빛 하늘로 떠가는 흰 구름처럼 유현하고 텅 빈 선사의 삶이 작가 한승원의 손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춤추는 소매 길어 곤륜산에 걸릴라



한승원 〈불의 땅〉 〈아제아제 바라아제〉 〈봉학제〉 등 굵직한 주제로 한국문학사의 한 기둥으로 우뚝 서 있는 그는 묵직한 필치로 최근에도 〈꿈〉 〈사랑〉 〈명월부자재〉 〈화사〉 〈물보라〉 등의 작품을 부지런히 선보이며 한국문학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정한 장인으로 평가받는다. 초의스님의 흔적을 찾아다닌 동안 해남과 강진, 무안 등을 답사하고,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자하 신위·소치 허련 등 당대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시문집들을 뒤적이면서 그윽하고 향기로운 선종에 젖어들었으며, 그동안 가려져 있던 초의스님의 유년과 출가 직후의 행적을 비롯한 진영대를 치밀하게 취재·조사해 문학지도로 복원하고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큰스님 책 나왔심니더...이 놈아 참선이나 잘 하그라"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상권 1 2

웃음처럼 문득 찾아오는 깨달음 그리고 벅찬 감동!
이십년 동안 그분을 모신 시자 원택스님의 눈을 통해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온 큰스님.
그분을 만나는 동안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는 감동이 그리고 가슴에는 큰 깨달음이 올립니다. 지금 큰스님을 만나십시오!

원택 지음 | 각권 270쪽 내외 | 값 각 8,500원



몽롱한 세상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큰스님의 장군죽비

이뭐꼬 상권

마음을 바로세우는 깨달음과 지혜의 정수를 담은 성철큰스님의 금쪽같은 법문 모음집
눈감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먼지 없는 거울이 어떻게 사물을 바로 비출 수 있겠는가? 왕시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셨던 큰스님의 가공할만 존재스런 세상 살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성철 법문 | 원택 엮음 | 값 8,500원

생사를 초월해 영원한 청춘을 얻고자 한 일엽 스님의 명저 재출간!

청춘을 불사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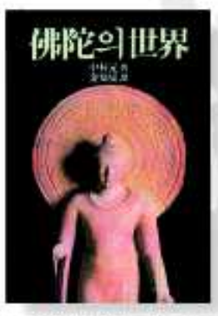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젊은 아무래도 청춘을 사르지 못하면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청춘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신여성으로서 명성과 명예를 뒤로 하고 어느 산사의 비구니가 된 일엽 스님 생사를 초월해 영원한 청춘을 얻고자 했던 그분의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치열했던 구도의 편린들이 이 책의 행간마다 도톰이 담겨 있다.

김일엽 스님 지음 | 424쪽 | 값 11,000원

진리의 빛 행복의 샘 김영사 불교 총서

김영사의 불교책은 부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불타의 세계



불교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최근까지의 불교학 및 인도철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불교계 초유의 대작. 세계적인 불교학계 거장들의 6년에 걸친 현지 고증 및 집필, 수백 점의 천연사진과 자료, 2년간의 우리말 작업 끝에 나온 화제작.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부처의 삶과 여정, 그가 가르친 삶의 방식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 | 김지견 옮김 | 4 · 5배판 양장본 | 544쪽 | 값 35,000원

행복한 마음



생각만으로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음 하나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뉘는 것을. 그러나 나름은 여전히 다스림의 저 밖에 밀고 싶은 때로 절곡입니다. 여기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줄 171가지 이야기들이 빛나는 잎새로 모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 당신의 마음을 넉어쓰십시오. 당신의 행복, 그것 하나를 부해 이 책을 바칩니다.

출간 이후 16년간 494쇄를 거듭 찍은 숨은 베스트셀러.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스무의 바로 그 책.

김정빈 지음 | 개정증보판 · 양장본 | 530쪽 | 값 9,900원

향하고 있는가 마음을 어디로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찾지 말라.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은 어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나를 밝게 해주는 여가 내 부처님일 뿐이다."

혜성오 지음 | 김현수 옮김 | 양장본 | 228쪽 | 값 8,900원

禪 어록 시리즈

선불교 거장들의 생생한 지혜와 행적, 사상이 고스란히 담긴 세계적인 명저들

- 육조단경 나카기와 다키 주해 | 양기봉 옮김 | 양장본 | 315쪽 | 값 7,000원
- 달마어록 마나기다 세이잔 주해 | 양기봉 옮김 | 양장본 | 300쪽 | 값 8,900원
- 초기선종사 1, 2 마나기다 세이잔 지음 | 양기봉 옮김 | 양장본 | 1권 464쪽, 2권 358쪽 | 1권 값 14,900원, 2권 값 13,900원
- 방거사 어록 미치아 요시타카 주해 | 양기봉 옮김 | 양장본 | 308쪽 | 값 8,500원
- 대혜서 하라키 겐코 주해 | 양기봉 옮김 | 양장본 | 430쪽 | 값 14,900원

불교학술서

국내외 불교학계에서 높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진공 석학들의 주옥같은 명저들

- 대승불교개설 하리가와 아키라 외 편저 | 정승석 옮김 | 양장본 | 408쪽 | 값 12,000원
- 불교 요설 에기무 아쿠다 지음 | 석오진 옮김 | 개정판 양장본 | 184쪽 | 값 9,900원
- 바웃드하 불교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 | 해 원 옮김 | 신국판 | 368쪽 | 값 7,900원
- 인도 고대사 람 사ran 사르자 지음 | 이광수 옮김 | 양장본 | 352쪽 | 값 8,900원
- 종교학 기시모토 히데오 지음 | 박인재 옮김 | 양장본 | 152쪽 | 값 7,900원
- 불교입문 다키자키 지키도 주해 | 신명관 옮김 | 개정판 양장본 | 250쪽 | 값 1,,000원